제주의 성담과 방어유적

글·사진 고재원 **감수** 김일우







서귀포문화원
Seogwipo Cultural Center

제주의 성담과 방어유적

글·사진 고재원　**감수** 김일우

서귀포문화원
Seogwipo Cultural Center

목차 Contents

04 발간사

08 Ⅰ. 머리말

13 Ⅱ. 성곽
16 1. 읍성
39 2. 진성
75 3. 환해장성

110 Ⅲ. 봉수와 연대
110 1. 봉수
162 2. 연대

234 Ⅳ. 제주의 방어체계

247 Ⅴ. 맺음말

발간사

2021년 하얀 소의 해가 점점 저물어가고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기다리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주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며 3개 읍성, 9개 진성, 환해장성, 25개 봉수와 38개 연대로 이루어진 방어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 책은 외침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던 제주의 관방시설을 돌아보는 관방문화 이야기입니다. 성곽(읍성, 진성, 환해장성), 봉수, 연대 순으로 입지환경, 문헌기록물, 잔존상태, 역할을 담아 방어유적과 문화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제주의 방어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유적보호, 문화재 보존, 마을의 역사자원 등에 보다 쉽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제주읍성 성담은 산지항 축항공사의 매립재로 사용되며 파괴되었고, 연대·봉수와 환해장성 역시 인접한 곳의 산담이나 밭담으로 사용되며 많은 훼손을 겪었습니다. 읍성과 성곽의 일부 구간과 연대 대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보호받으며 복원과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지정 관방유적들은 언제든지 훼손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관방문화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문화유산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모여 비지정 관방유적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향토문화유산의 가치가 지켜질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집필에 애써주신 고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님과 감수를 맡아주신 김일우 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귀포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서귀포가 105개 마을의 문화적 다양성을 가꾸는 노지문화를 비전으로 고유의 자연과 문화원형을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서귀포문화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향토사의 발굴,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을 위하여 총 29권의 향토자료를 발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의 보존과 전승은 물론 서귀포 시민들의 문화 사랑방이자 평생학습 교육의 장이 되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문화원장 **강명언**

제주의 성담과 방어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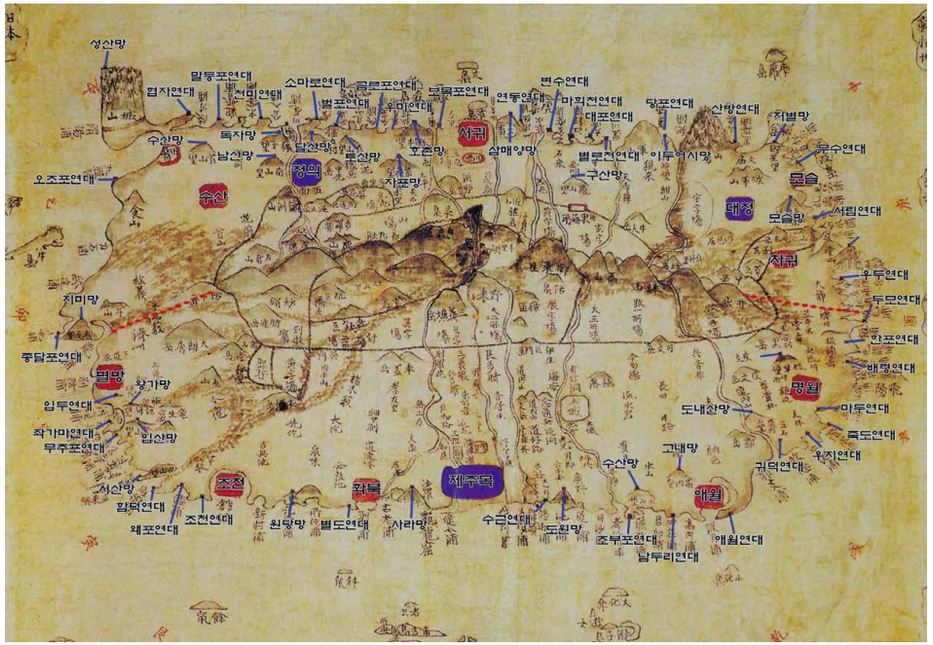


Ⅰ. 머리말

성담은 제주어로 성(城)을 의미한다.[1] 전문적인 용어는 성곽(城郭)이라고 불린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는 시설물이다. 제주 방어시설은 1996년『제주의 방어유적』이 발간되고, 목관아지가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에『제주시 방어유적 - 봉수, 연대』,『제주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계획』,『서귀포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계획』,『전국 봉수유적 심화학술조사』,『제주도 진성』등 방어유적 관련 보고서가 출간되고, 서귀진, 조천진, 정의현관아지, 고(古)정의현성 등 발굴조사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제주의 방어시설물에 대한 연구가 학위논문과 일반논문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전문가를 위한 보고서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찾기 힘들다. 이는 문화재 관련 행정부서에서 용역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제한된 부수가 발간되기 때문이다.

제주 방어체계의 확립은 조선시대가 들어서면서 완성되기 시작한다. 조

1) 담은 돌로 쌓은 석축시설물이다. 담장으로 외겹의 외담, 자갈로 여러겹의 잣담(잣벡) 형식이 있다. 담은 제주에서 성(城)을 쌓아 만든 성담, 무덤 주위에 쌓는 산담, 농경지의 경계로 쓰이는 밭담, 중산간 목장경계에 쌓은 잣담(잣성) 등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 방어시설은 제주의 읍성·진성·환해장성과 통신시설(봉수와 연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탐라순력도』「한라장촉」의 읍성, 진성, 연대, 봉수

선시대 이전의 방어유적 혹은 기록물은 단편적이며, 항파두리성(古城)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의 방어체계는 성곽인 읍성(3개소), 진성(9개소), 환해장성과 통신시설인 봉수(25개소), 연대(38개소)가 알려져 있다. 읍성은 제주의 행정체계인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古정의현성 포함)의 중심에 있다. 진성은 애월진, 명월진, 차귀진(고산리), 모슬진, 서귀진, 수산진, 별방진(하도리), 조천진, 화북진이다. 봉수는 사라, 도원, 원당, 수산, 서산, 입산, 왕가, 고내, 도내, 만조, 저별, 호산, 구산, 모슬, 당산, 토산, 달산, 남산, 독자, 수산, 성산, 지미, 삼매양, 호촌, 자배봉수이다. 연대는 수근, 조부, 별도, 조천, 왜포, 한덕, 무주, 좌가, 입두, 남두, 애월, 귀덕, 우지, 죽도, 마두, 배령, 대포, 마희천, 변수, 연동, 서림연대이다. 환해장성은 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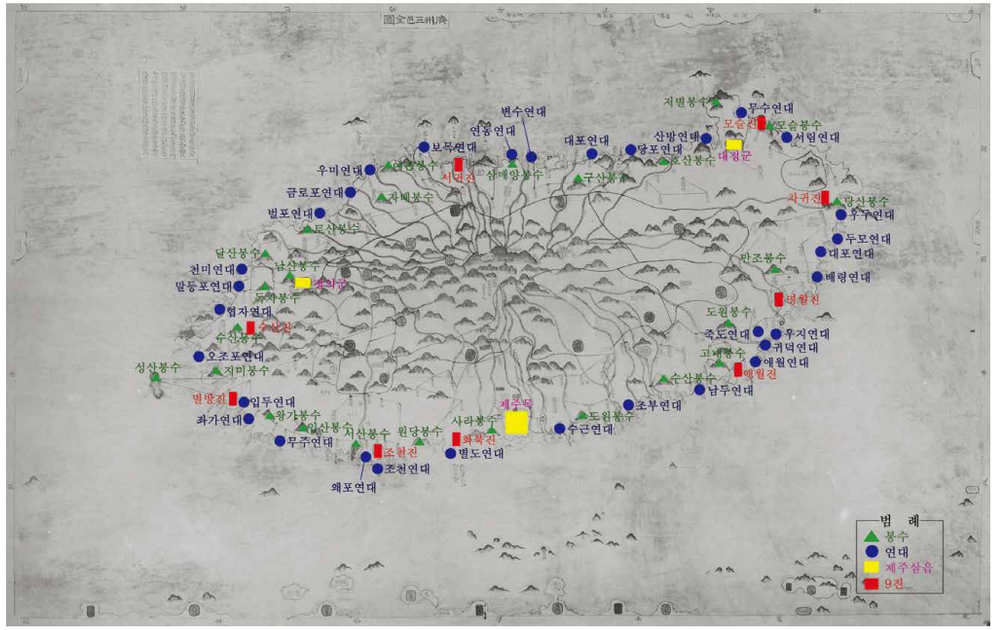


『동여비고』에 나타난 환해장성(古長城)

선을 따라 만들어진 성담으로 제주도 해안 곳곳에 산재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성담인 읍성과 진성, 통신시설인 봉수와 연대는 서로 유기적인 연락망을 취하고 있었다.

이들 방어체계에 대한 기록물은 『제주읍지』, 『탐라지』, 『증보탐라지』 등 문헌과 『탐라순력도』, 『해동지도』 등 고지도에 위치 및 규모, 상응체계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성곽과 연대는 복원을 거쳐 제주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다만 봉수는 지정된 것이 없다. 봉수는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하루빨리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에 들어 읍성과 진성과 내부 관아시설은 학교 혹은



『제주삼읍전도』의 읍성, 진성, 봉수, 연대

관공서가 들어서면서 파괴되는 수모를 당하곤 했다. 특히 제주읍성의 성담은 제주항 축항공사의 부재로 사용되어 대부분 파괴되는 아픔도 겪었다. 그리고 구한말에 전화가 들어오면서 1894년경에 연대와 봉수의 기능은 상실되고, 석축시설물은 주변 산담 등으로 이용되면서 훼손된다.

이 책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확립된 방어체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유적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순서는 성곽(읍성, 진성, 환해장성)부터 통신시설(봉수와 연대)까지 게재하고, 유적의 입지환경, 문헌기록물, 잔존상태, 역할 등을 기술할 것이다. 이는 이 글의 목적 중의 하나가 개개의 분야를 알리되, 그것이 전문적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제주의 방어체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적보호, 문화재보존, 제주역사와 마을의 역사자원 발굴, 그리고 교육과 홍보라는 대명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은 그간 필자가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소속으로 행한 연구조사 활동을 근간으로 삼아 이루어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자면, 봉수, 연대, 환해장성에 대한 현지조사 경험과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 제주성지에 대한 프로젝트에 참여, 이외의 성곽 혹은 성내 건물지 등 발굴조사 경험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이 책에 수록된 사진은 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2~2021년)에서 조사한 것으로 필자와 연구원들이 촬영한 것임을 밝혀둔다. 하지만 유적 중심의 고고학적 사고에 기반을 두다 보니 문헌에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 강창룡(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역사학전공)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책이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사진정리, 현장자료정리에 도움 주신 박재현(제주문화유산연구원, 고고학전공)선생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아울러 이런 저런 자료를 챙겨주신 한편, 현장조사에서도 땀 흘리고 있는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조사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김일우(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장, 역사학전공)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감수를 맡아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아울러 서귀포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Ⅱ. 성곽

성곽(城郭)[2]은 군사적 용어로서 관방(關防)시설을 일컫는 것이다. 관방은 주요 거점지역에 방어시설을 만들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 시설물로는 성곽과 통신시설(봉수와 연대)이 있다.

방어시설의 축조는 고대에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의 군사적 요충지에 이루어져 방어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위치, 즉,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틈바구니 속에 방어시설의 구축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했다. 삼국시대에는 성곽의 나라로도 알려지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북방 야인과 남방 왜구가 항상 변경을 넘보며 침탈하곤 했기에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관방시설이 체계적으로 구축·정비되어 간다.

제주도는 탐라시대부터 해양적 요충지인 지정학적인 상황과 한반도와 중국 대륙 및 일본 지역 등을 잇는 중개(중간)적 위치를 십분 활용하여 대외교류에 힘쓰고, 독립적 지위를 이어갔다. 아울러 동남아 지역으로도 열려 있는 해상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제주는 동아시아권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로서 주목되어 왔었다. 곧, 제주는 외부세력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한편, 외침에 노출

2) 성곽은 성(城)과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어 쓰기도 한다. 하지만 성곽은 비교적 넓은 의미로 내성과 외성을 포괄하곤 한다. 내성은 성(城), 외성은 곽(郭)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다. 내성은 지배자의 구역으로 외성은 피지배자의 구역이기도 하다. 성곽의 시설은 성벽(체성+여장시설), 치성, 성문, 해자, 성내 주요 건물 등을 말한다.

되는 경우도 잦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방어시설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중앙정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한다. 그 현황은 세종 21년(1439) 제주도안무사 한승순(韓承舜)이 올린 장계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제주목은 김녕·조천관·도근천·애월·명월 5개소, 대정현의 경우는 차귀와 동해 2개소, 정의현도 서귀와 수산 2개소에 이미 방호소가 설치되어 왜구 침입에 대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봉수가 제주목 10개소, 대정현 5개소, 정의현 7개소로 도합 22개소이며, 각 봉수마다 봉화군이 5명씩 배치되었던 한편, 높이와 넓이가 각각 10자의 연대도 설치되어 있었음이 드러난다.

조선시대 제주의 방어시설은 중종 5년(1510) 제주목사 장림(張琳)의 건의에 따라 증설되었고, 중종대(1506~1539년)에 와서 크게 확충된다. 이로부터 제주 지역은 왜구 침입에 대비한 방어시설을 대체적으로 갖추었다고 하겠다. 한편, 방어시설의 증설로 인해 군사의 수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 여성도 성곽에 나아가 보초를 서게 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이때부터 제주어로 '예청'이라 일컫는 '女丁'의 존재가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의 방어시설은 중종대 이후에도 왜구침입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정비·증설이 이루어졌고, 18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완성단계를 맞이했다. 이는 1765년경 발간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와 1785년대 지방행정 기록인 『제주읍지(濟州邑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제주 지역의 관방시설은 3개 읍성과 9개 진성, 25개소 봉수와 38개소 연대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성과 함께 연대와 봉수는 제주 도처에 빽빽하다시피 들어서는 한편, 군사도 배치되어 있었다. 이는 군사적 목적의 필요성과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주민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곁들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주가 변방이면서 주민통제, 혹은 주민 긴박의 정도가 여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었던 점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인조 7년(1629)~순조 23년(1823)까지 194년 간 제주 사람이 육지부의 왕래를 금지하는 '출륙금지령'을 내린 적도 있었던 것이다.

진성의 경우도 군사적 기능과 함께, 읍치(邑治)의 행정적 보좌와 도심지적 기능도 지녔다고 하겠다. 이렇게 된 데는 진성이 성곽시설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 3읍성만으로는 제주 지역의 행정적 관할과 도심지 기능이 산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점도 작용했다고 본다. 그래서 제주 진성의 경우는 각 읍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또한 대다수의 진성이 도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춘 곳에 설치되었던 한편, 진성 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둬 균형적으로 배치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제주 방어시설의 분포상을 볼 때, 가장 주목되는 점은 연대·봉수와 같은 군사통신시설의 연락망이 제주읍성을 지향하는 한편, 여기에서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곧, 제주 군사통신시설의 연락망체계는 다른 지방으로 뻗어 나가지 않고 제주도내에서 하나의 완결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제주 지역이 한반도 육지부와 바다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위치에 연유했다고 볼 수 있으며, 섬이라는 제한적 상황적 인식이 작용했다고 본다.[3]

3) 제주 방어시설의 정비과정과 분포양상 및 그 의미에 대한 논고는 다음 글에서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김일우, 2016,「조선시대 제주 關防施設의 설치와 분포양상」『한국사학보』65, 고려사학회.

1. 읍성

읍성(邑城)은 지방의 주(州), 부(府), 군(郡) 현(縣) 등의 행정관사가 마련되고, 고을의 중심부에 축조되어 유사시에 외적을 대비하는 한편,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 성곽을 말한다. 읍성은 위계상 주성, 부성, 군성, 현성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보통 '읍성'이란 단어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주에서의 읍성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에 따라 제주(목)성, 대정(현)성, 정의(현)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제주읍성, 대정읍성, 정의읍성도 같은 말이다.

읍성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소극적인 방어체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방어체계로 전환된다. 읍성축조는 국력을 쏟아 부은 역점사업이었다. 읍성의 입지로는 교통이 편리하며, 주변에 농경지가 가깝고, 특히 물이 풍부한 평지를 선호하였다. 이는 비상시에 오랜 기간 성내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1910년 읍성철거령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읍성뿐만 아니라 진성도 원형을 잃고 훼손되기에 이른다. 일례로 제주성의 성담은 1920년대 제주항 축항공사에 부재로 쓰이는 수난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의 행정구역에 대한 기록은 『태종실록』에 처음 등장한다. 태종 16년(1416) 기록에 보면, 제주도에 17개 현촌(縣村)이 있는데, 북면(北面) 대촌현(大村縣, 제주시 중심부)에 성을 쌓아 본읍(本邑)으로 삼고, 당시 동도(東道)에 속해 있던 신촌현(新村縣), 함덕현(咸德縣), 김녕현(金寧縣), 그리고 서도(西道)에 속해 있던 귀일현(貴日縣), 고내현(高內縣), 애월현(厓月縣), 곽지현(郭支縣), 귀덕현(歸德縣), 명월현(明月縣)을 제주목(濟州牧)에 소속시켰다. 곧, 제주목 관할에 모두 10개 현을 둔 것이다. 동도(東道)에는 현감(縣監)을 두고, 정의현(旌義縣)을 본읍으로 삼아서, 당시 동도에 속해 있던 토산현(兎山縣), 호아현(狐兒縣), 홍로현(洪爐縣) 3현(三縣)을 소속시켰다. 서도(西道)에는 현감(縣監)을 두고, 대정현(大靜縣)을 본읍으로 삼아서, 당시 서도에 속해 있던 예래현(猊來縣)과 차귀현(遮歸縣) 2현(縣)을 합친 3개현을 소속시켰다.

성의 축조방식은 협축(夾築)으로, 평지성의 읍성이나 진성의 축조에 자주 쓰이는 방법이다. 내벽과 외벽은 비교적 큰 석재로 수평을 유지하며 쌓고, 그 사이에 비교적 작은 석재(자갈 등)와 토사 들을 채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협축성은 외벽이 비교적 단단하고 견고한 편이나 내벽은 외벽에 비해 허술한 편이다. 아울러 속채움석이 자갈과 토사가 같이 혼재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수 등의 원인으로 벽체의 배부름현상이 나타난다.[4] 그리고 축성법(築城法) 중 쌓기 방식은 허튼층쌓기[5]로 읍성 등에 주로 쓰이는데, 축성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내 읍성과 진성에 주로 적용된 방식이며, 대부분 자연적인 현무암 할석과 가공한 판석을 같이 혼재하여 쌓았다.

제주 성담의 성돌(城石)은 재질이 대부분 다공질 현무암이다. 성담의 하단부(기초)는 대석(大石)을 놓고 기초를 다지고 상부로 올라가면서 작은 성돌을 이용해 축성하였다.[6] 이렇게 하면 성돌의 크기 차이로 인해 틈이 생기게 되는데, 작은 돌(자갈)을 끼워 맞추어 틈을 메운다. 맞는 돌을 구하지 못

4) 지금도 대정읍성, 명월진성 등은 외벽에 배부름 현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배부름 현상이 심해서 성벽이 터지는(무너지는) 경우와 함께, 수리한 흔적도 볼 수 있다.

5) 허튼층쌓기는 돌쌓기의 가로줄눈이 직선으로 되지 않게 불규칙한 돌을 흩트려 쌓는 방법이다. '난적쌓기', '막쌓기'라고도 한다.

6) 제주읍성의 경우 기초부는 초석(礎石)을 놓기 전에 지반이 약한 곳은 다진 흙을 먼저 깐 후 초석을 놓아 단단하게 고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발굴조사에서 밝혀졌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21,「제주시 삼도2동 827-22번지 일원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부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자문회의자료집」.

할 경우에는 쐐기돌을 사용하여 성벽을 튼튼하게 한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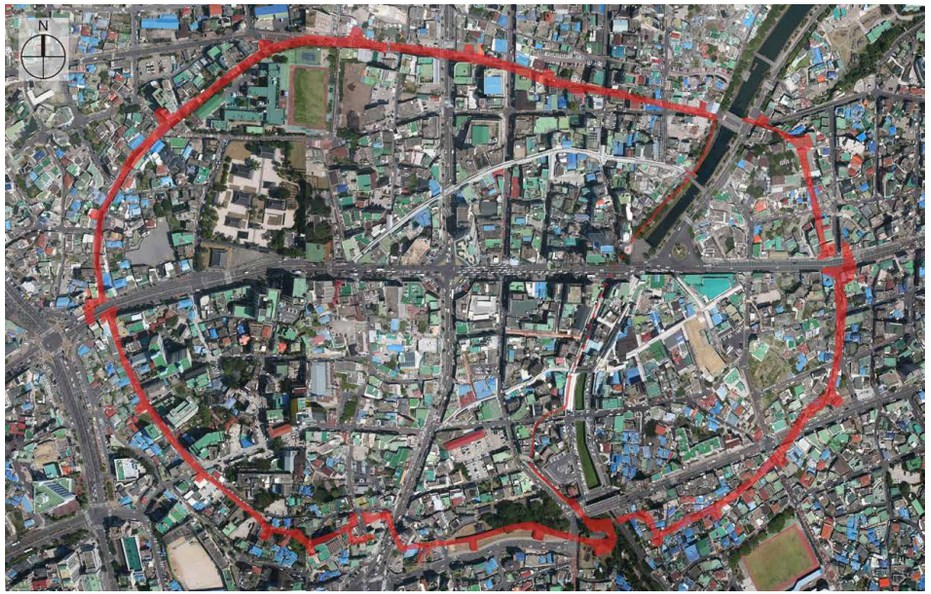
1) 제주읍성

제주읍성(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3호)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제주의 중심부에 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태종실록』(1411년)에 제주성을 수축하도록 하는 기사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람』(1481년) 「제주목-고적(古蹟)」조 고성(古城)항목에 '주성(州城) 서북쪽에 고성의 유지(遺址)'가 있다는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제주성은 이미 주성 혹은 읍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다른 성을 언급한 것은 지금의 '무근성(묵은성)'과 연관된 것으로 고려이전부터 성곽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8]

제주읍성은 이도1동, 삼도2동, 일도1동에 걸쳐 있으며, 구도심 중심에 일부 남아 있다. 제주읍성은 서쪽의 병문천과 동쪽의 산지천을 끼고 있다. 특히 산지천은 용천수(가락쿳물 등)가 풍부하여 읍성의 입지에 더 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성의 남쪽은 비교적 높은 지형을 유지하고 암반이 노출되어 있는데, 암반을 이용해 성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안 조망권이 확보됨으로 적의 기습 혹은 침입에 대비하는데도 유리했을 것이다. 성 주변의 하천은 자연 해자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쪽의 치

7) 변성훈, 2018, 「제주읍성의 구조와 부대시설에 대한 고찰」, 『제주문화』 24, 제주문화원.

8) 관덕정 뒤편 '선덕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다량의 패각/동물뼈와 탐라시대 토기유물이 확인된 바 있다. 아마도 주변 병문천과 인접한 해안가에서 가져와 선덕대를 조성하면서 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체국이 있던 곳이 고려시대 제주를 다스리던 주요 행정관서인 성주청(星主廳)이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목관아지 발굴조사에서 하부층에서 탐라시대층이 확인된 바 있다. 원도심지(칠성로) 발굴조사에서도 탐라시대 유적이 다수 드러났다. 적어도 무근성은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으로 탐라시대부터 성의 모습이 점차 고려시대를 거치며, 동쪽으로 확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주읍성(항공촬영)

(雉)[9]에는 제이각(制夷閣), 일각(一閣) 등 누각이 세워져 성안과 해안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산지천 서쪽변으로 간성(間城)이 있었는데, 간성에는 중인문(重仁門)[10]이 있었다. 그리고 산지천에 북수구(北水口)와 남수구(南水口)가 있어 성안에 왕래할 수 있는 교각이 있었다. 제주성의 규모와 각종 문루의 설치 및 격대·타첩 등의 부대시설을 자세히 전하는 사료는 제주목사 이원진이 효종 4년(1653)에 편찬한 『탐라지(耽羅誌)』다. '석축, 둘레 5,489척, 높이 11척'의 규모, '동문·남문·서문의 3문과

9) 성벽 중간에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쌓은 성벽으로 보통 방형(方形) 모양을 하고 있다. 적군이 쉽게 성벽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든 시설물이다. 치위에 여장시설이 둘러져 있다. 격대擊臺)로 불리기도 한다.

10) 현재 이곳은 산지천변 칠성통 입구에 해당한다.

남북수구의 수구 2문'에 문루 설치, '격대 27개소, 타첩[11] 404개'의 부대시설이 소개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은 이후 유형원의 『동국여지지』 및 이원조의 『탐라지초본』과 『제주읍지』 등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그대로 전한다. 또한 '1565년 곽흘 목사가 동성을 퇴축하여 가락천과 산지천이 성안에 있는' 사실까지 동일하게 소개되어 있다.

한편 중종 7년(1512) 제주목사 김석철 때 남문루를 새로 창건하여 정원루(定遠樓)라 하였는데, '제주성의 주위에 긴 참호를 아주 깊게 파서 성문 보다 낮게 하여, 모두 널판으로 다리를 놓아 밤에는 들어 올리고 낮에는 깔아 놓아 걱정이 없게 방비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제주읍성 주위에 해자(垓字)[12]와 판교를 축조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실은 김상헌의 『남사록』(1601년)에도 제주읍성에는 '격대(擊臺)·포루(鋪樓)·호자(壕子)·조교(吊橋)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라는 기록이 뒷받침 해주고 있다.

제주읍성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실이 소개되어 있는 사료는 역시 제일 후대에 저술된 담수계의 『증보탐라지』[13]이다. 여기에는 위의 여러 『탐라지』 등에서 소개하는 사실 외에 홍수 예방을 위해 산지천 서안에 간성(間城)을 쌓은 사실과 간성의 남북에 2문을 축조한 사실까지 전한다. 즉, '정조 4년(1780) 목사 김영수(金永綏)가 옛 성터에다 간성을 쌓아서 홍수 폐단을 없애니 길이가 551보(步)요 높이가 9척이다. 그리고 두 문(門)을 설치하여 남문

11) 타첩(垜堞)은 여장(女墻), 총안(銃眼), 여담 등으로 불린다. 체성위에 외벽 가장자리에 쌓은 담으로 화살 혹은 총을 쏠수 있는 구멍이 있는 시설물이다. 우리말로는 성가퀴, 살받이터라고 한다. 제주에서는 화북진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제주도내 복원된 성벽에는 여장시설이 거의 없다.

12) 제주도내 읍성의 해자(垓字)는 도랑으로 가시나무(탱자나무 등) 혹은 가시덤불을 심었다. 육지부처럼 물을 채워 넣지 않았다. 이는 제주도가 지질학적으로 물을 채우거나 상시 흐르는 물을 가둘 수 있는 토양(암반)여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13) 1953년 저술된 것으로 제주지역의 석학 12명이 조직한 '담수계(淡水契)'가 제주의 옛기록을 보완하고 재정리한 지리지이다.



제주읍성 성벽 전경(문화재 지정구간)

을 소민(蘇民)이라 하고 북문(北門)을 수복(受福)이라 하였다.'라고 전한다. '헌종 13년(1847) 제주목사 이의식(李宜植)이 수복문(受福門)을 중인문(重仁門) 으로 편액을 고쳤다.'라는 사실까지 더 전하고 있다. 제주목사 이의식은 북수구를 뒤로 더 물려 쌓고, 북수구에서 서북쪽 성 위에 천일정(天一亭)이라는 정자도 세웠다.

현대에 들어서 1990년대 제주목관아 발굴조사를 통해 국가사적지 지정과 관아 건물복원도 이루어졌다.

- 제주읍성의 주요 증개축 변천사

· 태종 11년(1411) 제주목사 김정준(金庭雋) 제주성 수축

· 중종 7년(1512) 제주목사 김석철(金錫哲) 제주읍성 부속시설(해자, 판교) 축조
· 명종 20년(1565) 제주목사 곽흘(郭屹) 동성(東城) 퇴축(退築)
· 선조 32년(1599) 제주목사 성윤문(成允文) 제주성 5척 가축(加築)
· 정조 4년(1780) 제주목사 김영수(金永綏) 간성(間城) 축조 및 간성 남북 2문 축조
· 헌종 13년(1847) 제주목사 이의식(李宜植) 북수구 퇴축, 천일정 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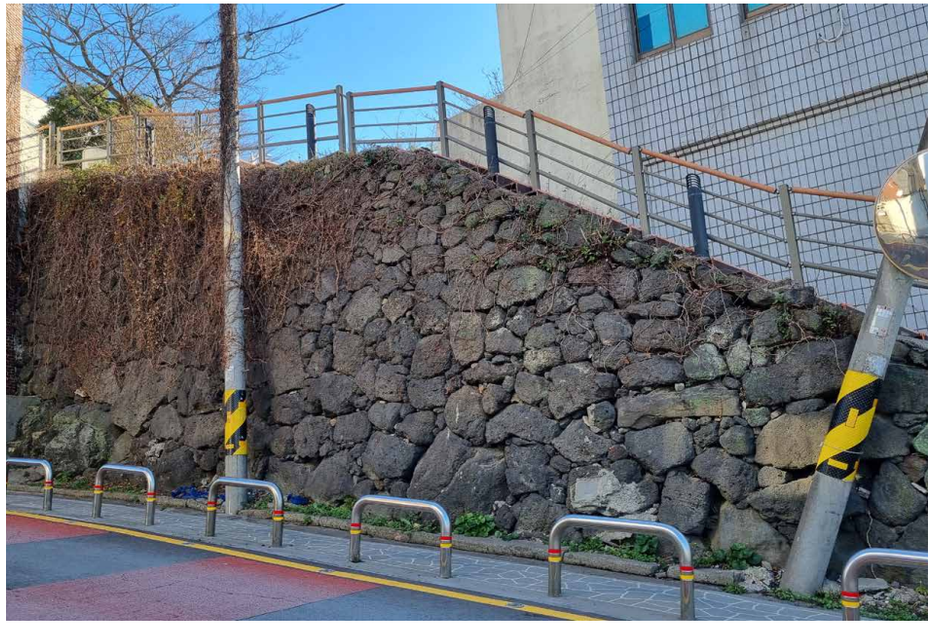
• 제주읍성의 규모

제주읍성은 탐라국시대의 고성(古城) 때는 대체로 산지천과 병문천을 자연 해자로 삼아 성곽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 제주읍성의 둘레가 910보(4,550척)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는 4,394척으로 기록되었다. 『탐라지』(이원진, 1653년)에서는 5,489척으로 나왔다. 이후 읍지류 등 기록에 동일한 규모로 실려 있다.[14]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제주성의 둘레는 3,221m(치성 포함)이며, 면적은 467,100㎡ 가량 된다.[15]

성벽의 높이는 문헌에 의하면 대체로 11척(혹은 13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포백척으로 환산하면 5.14m이다. 1848년 출판한 『사마랑호 탐사항해기』에는 7.6m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문화재지정구간의 높이는 2.9~5.3m

14) 조선시대 도량형의 1尺은 영조척(32.22cm), 포백척(46.73cm), 주척(20.81cm)이 사용됨.
1보(步)는 5척. 포백척이 그나마 현재 실측 둘레와 유사함.

15) 제주성 전체둘레는 2,725m(치성을 포함 하지 않은 경우), 확장이전의 둘레는 2,964m, 면적은 334,335㎡ 가량 된다. 간성의 길이는 665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3 『제주성지-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제주읍성(기상청 북쪽)

이다. 높이의 편차는 지형적인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적어도 남쪽 성벽과 동쪽 성벽 일부는 암반층 위에 쌓은 것임을 육안으로도 확인된다.

현재까지 성벽의 폭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1914년 『지적원도』를 기준으로 하면 체성의 폭은 일정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해안과 인접한 북벽이 두꺼워 13~14m, 나머지는 6~9m가량 된다. 문화재지정구간은 상부가 11.3m가량 되는데, 밑변이 넓은 사다리꼴 모양이다.

치성의 축조방법은 협축으로 잔돌끼움을 한 허튼층쌓기이며,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성돌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외벽은 직선형 성벽으로 단경사를 이루고 있고, 내벽은 2~3단으로 내부에 채움석(자갈, 할석, 토사)을 넣어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육지부 읍성의 축조에는 편축기법이 일부 사용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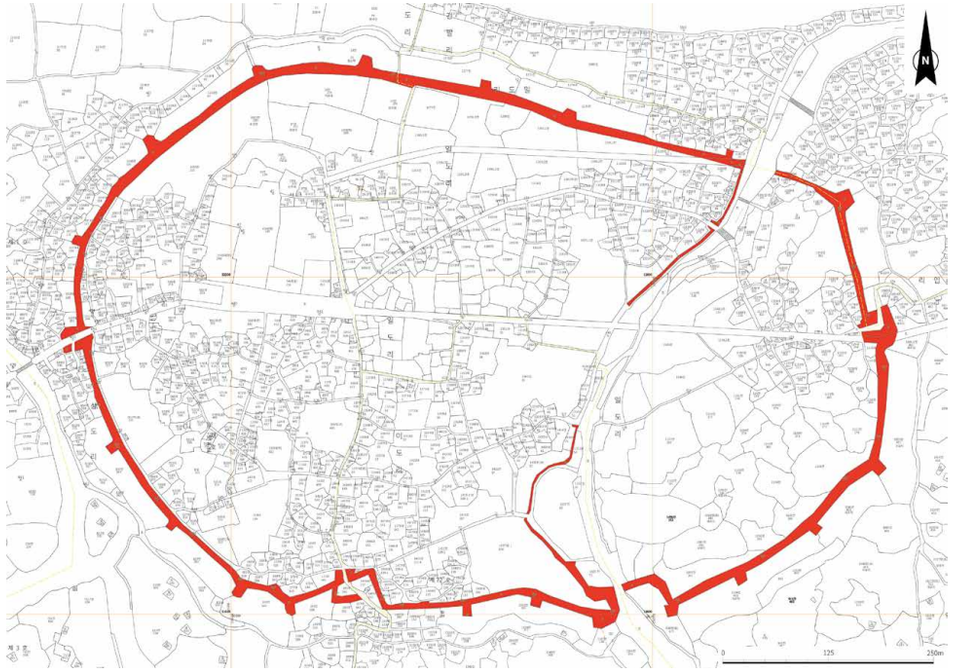
기도 한다. 제주도의 지형적 혹은 지질적 특성상 협축이 쉽게 무너지지 않으므로 제주도 내 읍성뿐 아니라 진성도 협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1780년에는 제주목사 김영수가 산지천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간성을 쌓았는데, 높이 9척, 길이가 551보로 기록되었다. 현재 성벽이 남아 있는 곳은 문화재지정구간을 포함하여 307m가량이다. 제주읍성에는 옹성(甕城)[16]과 문지(門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 제주읍성의 철폐 과정

제주읍성은 1910년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증·개축 등을 통해 제주 섬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로 들어서면서 식민정책의 하나로 제주읍성이 헐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철폐한 것이 아니라 20년간에 걸쳐 서서히 무너뜨려갔다. 1910년대에는 주로 문루를 헐기 시작했고, 1920년대에는 성벽 전체에 대한 철폐가 이루어졌다. 특히 1926년부터는 일제가 동부두·서부두를 축조하고 산지포를 매립하는 산지항 축항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주읍성 3면의 성담 상당 부분을 바다에 매립함으로써 제주성의 성체는 대부분 철폐되었다. 제주읍성의 철폐 과정은 김석익의 『탐라기년(耽羅紀年)』 부록에 그 사실이 전한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913년 북성문 훼철

16) 옹성은 성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문(출입구)앞에 성벽에 덧대어 만들어진 성이다. 제주도 성곽의 옹성형태는 항아리모양(반원형)이다. 성문으로 진입하는 적을 측면이나 후면에서 공격할 수 있으므로 성문의 방어력을 높인 구조물이다. 옹성에도 여장시설물은 있다. 정의읍성에 문루와 옹성 복원모습을 볼 수 있다.



제주읍성(1914년, 『지적원도』)

· 1914년 동문, 서문, 간성의 북문 등 여러 문루 훼철

· 1915년 간성의 남문과 북성 철폐

· 1918년 남문 훼철

· 1923년 동성에 측후소 개설

· 1926년 제주성의 3면을 헐어 산지항 축항

· 1927년 남·북수구의 홍문(홍예교)이 홍수로 붕괴

현재의 제주읍성은 잔존해 있던 남문지 동편 일부 구간(오현단 후면 남쪽)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수하여 150m 구간과 3개의 치성을 정비하였다. 그 외에 발굴조사를 통해 (구)제주대학교부속병원 서쪽 도로변, 성내교회 서쪽



제주목관아지



제주읍성 남서편(구 제주대학교병원 인근)

주차장부지에서 성의 기간부가 확인된 바 있다. 제주기상대 북서쪽 경계 담벼락에 제주성의 외벽, 제주읍성 남동쪽 주택의 담벼락에 제주의 내벽, 남문지 서편에 민가 담벼락에 제주읍성의 내벽 일부가 남아 있다. 그리고 제주읍성 서문지 북편 도로변에도 치성의 북벽 일부가 외담으로 남아 있다. 최근 탐라문화광장 조성 부지내에서 성곽의 치성 흔적이 일부 확인된 바 있다.[17]

- 제주읍성내의 주요 관아건물

· 문루 : 동문(濟中樓, 延祥樓), 서문(鎭西樓, 白虎樓), 남문(定遠樓)

· 관덕정(觀德亭 보물 322호) : 1448년 창건, 병사훈련장, 정면5칸 측면4칸 구조

· 제주목관아(濟州牧官衙, 사적 380호)[18] : 제주목 행정중심, 관덕정 북쪽은 동헌(목사집무시설)인 연희각(延曦閣), 홍화각(弘化閣) 등, 남쪽은 이아(二衙, 판관 집무시설, 구제주대병원)

· 객사(客舍)[19] : 영주관(瀛洲館), 현재 북초등학교

· 운주당(運籌堂) : 동문시장 남동쪽, 장대(將臺), 군지휘소(훈련장)

제주읍성이 관할하던 진성은 별방진, 조천진, 화북진, 애월진, 명월진이다. 봉수는 사라, 도원, 원당, 수산, 서산, 입산, 왕가, 고내, 도내, 만조봉수이고, 연대는 수근, 조부, 별도, 조천, 왜포, 함덕, 무주, 좌가, 입두, 남두, 애월, 우지, 죽도, 배령 대포, 두모연대이다.

17) 제주읍성의 연혁과 잔존현황은 다음 글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3,『제주성지-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18) 1435년 화재로 인해 관아건물이 소실되었다. 최해산 목사가 영청인 홍화각, 종루 등 206칸의 관아건물을 건립했다. 건축자재는 폐사된 사찰의 목재와 기와를 갖다 썼다고 한다.

19) 성(고을)안의 중심건물이고, 국왕의 위패를 모시며, 공적인 관리가 방문했을 시 숙소로 사용하였다.

2) 정의읍성

정의읍성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44번지 일대이며, 성읍민속마을(중요민속자료 제188호)을 둘러싸고 있다. 정의현은 원래 성산읍 고성리에 있었으나, 세종 5년(1423) 성읍리로 옮겨 판관 최치렴(崔致廉)에 의해 5일만에 정의읍성을 쌓았다고 한다.[20]

정의읍성의 입지는 해발 120m에 위치하며, 동쪽의 천미천을 끼고 있으며, 북쪽에 진산(鎭山)인 영주산, 동남쪽에 남산봉, 서쪽에 모지오름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성의 크기는 동서 350m, 남북 300m, 성벽높이 3.1~3.5m가량 된다. 지형은 북쪽이 조금 높은 편이다.

정의읍성에 주둔했던 병력은 성장(城將) 2명과 치총(雉摠) 4명을 비롯하여 현감 수솔관(隨率官) 133명, 성정군(城丁軍) 807명, 유직군(留直軍) 155명이었다. 이 외에 관할 봉수 4개소와 연대 4개소, 또 이에 필요한 병력으로 별장 48명과 봉군 96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읍성 안에는 동헌인 근민헌(近民軒)[21]을 시작으로 객사(客舍), 향소청(鄕所廳), 출신청(出身廳), 무학청(武學廳), 인리청(人吏廳), 대변청(待變廳), 진무청(鎭撫廳) 등 여러 용도를 지닌 건물들이 있었다.

외부형태로 볼 때, 정의읍성은 대정읍성과 마찬가지로 4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의읍성 안에는 동문과 서문을 잇는 도로와 남문과 중간지점을 잇는 주요 도로가 개설되어 전체적으로는 T자형 도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우물은 2개소가 알려져 있다. 현재 문루(동문, 서문, 남문)와 옹성의 복원

2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정의현, 성곽조.

21) 2009년 발굴조사에서 기존 관아가 남향(일관헌)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동향(近民軒)임을 알려주는 기단석렬이 확인되고, 정면 5칸, 측면 2칸 기와건물임이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2013년 정의현 관아(동헌)가 복원되기에 이르렀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정의현 관아지』.



정의읍성 원경



정의읍성 성벽(외부)



정의현 관아지 건물지

이 이루어졌다. 향교는 성내 서문쪽에 자리하고 있다.

성벽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성벽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무암을 거칠게 장방형 혹은 방형으로 다듬고 가로쌓기와 모쌓기를 병행하면서 축조하였다. 동쪽의 성벽은 하부와 상부의 석재 크기가 비슷하지만 서측 성벽은 하부 1~3단을 제외하고는 잔돌쌓기로 축성하였다. 최근 동문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문지도리 초석과 초석 배치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 동문의 문루가 복원되었다.[22)]

『탐라순력도』의 「정의조점(旌義操點)」, 「정의양로(旌義養老)」, 「정의강사(旌義講射」에 객사, 관아, 향교, 창고 등 기와건물과 초가건물이 빼곡하게

22) 남제주군, 1987, 『제주성읍민속마을 성문지 및 치성발굴조사보고서』.



정의읍성 동문지



정의읍성 동문지 문지도리



정의읍성 남문(복원)과 돌하르방

성안을 채우고 있다. 동문, 서문, 남문과 성 밖에 달산봉수가 그려져 있다.

정의읍성 소속의 방어시설은 진성이 수산진과 서귀진이며, 봉수는 토산, 달산, 남산, 독자, 수산, 성산, 지미봉수이고, 연대는 벌포, 소마로, 천미, 말등포, 협자, 오조포, 종달연대가 있다.

3) 대정읍성

대정읍성(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2호)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인성리, 안성리 3개 마을에 둘러싸여 있다. 읍성 주변은 마을과 초등학교,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제주의 읍성과 진성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성이다. 제주읍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 정도이다.



대정읍성 원경

태종 18년(1418) 대정현감 유신(兪信)이 축성한 대정읍성은 해발 38m 내외의 평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규모는 동서 380m, 남북 320m가량 되며, 높이는 약 5.2m가량 된다. 나중에 북문은 폐쇄되었지만, 동·서·남·북문 등 4개의 문과 옹성(甕城), 문루 등을 설치했으며 6개의 치성(雉城)을 갖추고 있었다. 타첩(垜堞) 155개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정읍성 주변 방어유적은 남서쪽에 모슬봉수, 남쪽에 저별봉수(송악산), 동남쪽에 호산봉수(박수기정), 서남쪽에 무수연대와 서림연대가 있다.[23]

대정읍성에 주둔했던 병력은 성장(城將) 2명과 치총(雉摠) 4명을 비롯하여 현감 수솔관(隨率官) 115명, 성정군(城丁軍) 380명, 유직군(留直軍) 40명이었다. 이 외에 관할 봉수와 연대가 각각 3개소와 7개소, 또 이에 필요한 병

23)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대정읍성학술조사보고서』.



대정읍성 성벽(북벽)

력으로 별장 60명과 봉군 12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대정읍성 안에는 동헌인 윤경당(潤經堂), 객사인 영안관(瀛安館)을 시작으로, 청풍당(淸風堂), 향사당(鄕社堂), 군관청(軍官廳), 인리청(人吏廳), 현창(縣倉), 군기고, 기패청(旗牌廳) 등 여러 용도를 지닌 건물들이 있었다. 원래 동헌과 객사가 북쪽에 나란히 배치되었는데, 화재로 인해 동헌은 현재 보성초등학교쪽으로 이전하게 된다. 대정향교도 처음에는 읍성 안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효종 4년(1653)에 단산 아래로 이전했다.

외부형태로 볼 때, 대정읍성은 성담을 기준으로 4각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성 안에는 동문과 서문을 잇는 일직선 도로와 남문과 중간지점을 잇는 주요 도로가 개설되어 전체적으로는 T자형 도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정읍성 성벽(동북벽)

2008년 추사전시관 건립 이전에 대정읍성 동측의 성변내부 단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제주읍성의 경우 축성 이전에 기초를 보강하기 위해 판축하거나 자갈이나 괴석을 일정넓이로 깔아 놓은 흔적을 확인 할 수 있으나, 대정읍성의 경우, 이러한 기초 보강시설 없이 현무암 할석을 이용해 바로 허튼층쌓기(막쌓기)를 한 것이 특징이다.[24]

대정읍성은 조선 초기 대표적인 읍성 가운데 하나로서 읍성의 조영규범인 풍수사상이나, 규범과 질서를 잘 반영한 읍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서지역의 자연환경을 잘 활용한 읍성의 특징도 보여준다. 대정읍성은 성벽보수가 이루어졌으며, 성안에는 초등학교와 민가를 비롯하여 경작지가 조성되어

24) 이는 이 지역이 화산회토(흑갈색사질점토층)가 성돌의 압력을 완화하는 완충 작용하는 토양적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제주 추사전시관 유적』.



대정읍성 성벽(동남벽)

있다. 그리고 지방기념물인 돌하르방이 성문 앞에 위치하며,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국가사적 487호), 추사전시관도 자리한다.

『탐라순력도』의 「대정조점(大靜操點)」, 「대정강사(大靜講射)」를 보면, 객사와 관아 등은 기와건물로 나머지는 초가로 그려져 있다. 성안에 말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문, 서문, 동문이 있다.[25] 지도에 대정향교가 파군산악(破軍山岳, 지금의 단산) 앞에 있는 것으로 묘사 되었고, 송악산 뒤편에 저성망(貯星望, 저별봉수)과 모슬봉수가 표기되어 있다.

대정읍성 방어시설은 진성이 모슬진, 차귀진, 봉수는 구산, 호산,저별, 모

25) 문헌에는 3개의 문루가 언급되었는데, 2001년 북문지(北門止)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원래는 물탱크가 있는데, 이를 제거하고 옹성과 문지가 확인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대동지지(大東地志』(1864년)에 대정성지에 옹성 4개소임이 언급되어 있어 북문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적 옹성의 형태와 문지의 초석 등이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이에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남제주군, 2001, 『大靜城止 北門- 조사보고서』.

슬, 당산봉수, 연대는 변수, 마희천, 대포, 별로천, 당포, 산방, 서림, 무수, 우두연대가 있다.

4) 고(古) 정의현성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401번지 일대로 고성리 마을에 둘러싸여 있다. 해발 1~3m 내외의 해안 저지대에 속하며, 서쪽은 해안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 간 발굴조사와 지표조사의 결과를 보면 고정의현성의 규모는 둘레가 1,450m, 성체 하부폭은 2.2~4.5m(등성시설 포함 하부폭 7.2m), 높이 5~7m 가량된다. 성의 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회곽도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일부 훼손은 되었지만, 다른 성곽에 비해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는 편이다.



고(古) 정의현성 전경

태종 때 제주도에는 부목군현(府牧郡縣)의 행정구역을 3개로 확대하고, 1인의 목사와 2인의 현감을 두었다. 당시 제주도 동남쪽에 자리했던 제주목(濟州牧) 동도(東道)에 속한 토산현(兎山縣), 호아현(狐兒縣), 홍로현(洪爐縣) 등 3개 현을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구역 이름을 '정의현(旌義縣)'이라 하였다.

고을 수령인 현감(縣監)이 파견되면 고을 수령을 비롯한 벼슬아치들이 모



고(古) 정의현성 원경

여 나랏일을 처리하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통 관아(官衙) 또는 현청(縣廳)이라 불렀다. 이 관아와 현청은 대개 성을 둘러서 성 안에 두었다. 이 성을 보통 읍성(邑城)이라 부르고, 현(縣)의 성(城)이기 때문에 편의상 현성(縣城)이라고도 불렀다.

정의읍성은 태종16년(1416)에 처음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듬해인 태종17년(1417) 5월 갑진(19일)에 전라도 도관찰사의 건의로, 정의현 읍성을 서촌(西村)의 진사리(眞舍里, 성읍리)와 토산리(兎山里) 중에서 거리가 적당한 곳에 읍성을 배치 하고, 군대를 이동할 때 좋은 곳이 진사리(성읍리)로 옮기는 사의(事宜)를 올렸더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고 했다. 그리고

세종 4년(1422) 정의현 사람 전(前) 부정(副正) 최흥우(崔興雨) 등 138인이 '성 안에 물이 없고 큰 산이 내리눌러 있어서 정의성(旌義城)을 진사리(眞舍里)로 옮기기를 청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세종 4년(1422)에 지금 성읍리의 정의읍성으로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26]

2. 진성

읍성이 행정중심의 성이라면 진성(鎭城)은 군사적인 거점지에 진보鎭堡)가 구축된 다음, 이를 일컫는 것으로 육군과 수군에서 통용된 용어이기도 하다. 진성은 삼국시대부터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고려후기에 남부 해안지역의 방어를 위해 증설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기 전부터 해안 및 섬 지역에 토지가 개발되고, 해조류(소금 포함) 채취 등 경제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인구가 집중되고 왜구에 대한 방비가 필요하게 된다. 조선시대(15세기경)에 이러한 지역은 지리적으로 읍성과 떨어져 있어 방어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보(鎭堡)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제주지역의 진성은 방호소(防護所) 혹은 수전소(水戰所)로 혼용·기록되고 있다.[27] 방호소는 기본적으로 왜구의 침입과 왜선의 정박 혹은 은폐 우려가 있는 요충지에 만들어진다. 제주목 소속이 김녕,[28] 조천관(朝天館), 도근천(都近川), 애월, 명월을 포함해 5개소, 대정현 소속이 차귀(遮歸), 동해(東

26) 제주특별자치도 외, 2017,『고성리 고정의현성- 복원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
27) 김일우, 2016, 앞의 논문, 298쪽
28) 현재 김녕리 경로당이 있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海)[29]를 포함해 2개소, 정의현 소속이 서귀포, 수산[30]을 포함해 2개로 전체 9개소가 있었다. 이들 방호소에는 제주목 2,065명, 대정현 782명, 정의현 소속 538명의 마·보병(馬·步兵)이 배치된다.

1510년 제주목의 김녕방호소가 별방방호소로 이전되고, 정의현의 오조포(吾召浦)방호소,[31] 대정현의 색포(塞浦)방호소, 모슬포방호소, 범질포(犯叱浦)방호소[32]가 증설되어 13개소로 늘어난다. 수전소는 제주목 7곳, 정의현 2곳, 대정현 3곳이 알려져 있다.[33] 17세기 중반 이후 김녕이 별방(別防)으로, 도근천이 화북으로, 동해방호소가 모슬포로 옮겨져 9진 체계가 확립된다. 구진(九鎭)의 분포는 제주목에 화북진(禾北鎭), 조천진(朝天鎭), 별방진(別防鎭), 애월진(涯月鎭), 명월진(明月鎭), 대정현에 차귀진(遮歸鎭), 모슬진(摹瑟鎭), 정의현에 서귀진(西歸鎭), 수산진(水山鎭)이다. 18세기에 접어들면, 해안 중심의 수전소는 폐지되고,[34] 육상 중심의 봉수-연대-진성의 방어

29) 동해방호소는 동해성 안에 객사와 군기고가 있다. 중종 5년(1510)에 가래방호소를 이곳으로 옮겼다. 지금은 폐지하였다. 『증보탐라지』(1765년) 「대정현-방호소」 - 동해방호소의 위치는 현재 대포동 363번지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곧, 회수마을과 하원마을의 중간 지점에 있었다.

30) 성산방호소는 선조 25년(1592)에 이경록 제주목사가 성을 쌓고 수산방호소를 이곳으로 이설하였다. 선조 32년(1599)에 성윤문 제주목사가 성 안에 물이 없어서 방어하여 지키기 어렵다 하여 다시 수산방호소로 이설하고 여기를 폐하였다. 『증보탐라지』(1765년). 지금은 일출봉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31) 오조포 방호소(吾召浦防護所)는 정의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43리의 거리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제38권 「전라도(全羅道), 정의현(旌義縣)」

32) 색포 방호소(塞浦防護所)는 대정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58리의 거리에 있다. 모슬포(毛瑟浦) 방호소는 대정읍성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의 거리에 있다. 범질포 방호소(犯叱浦防護所)는 대정읍성으로부터 서쪽으로 30리의 거리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제38권 「전라도(全羅道), 대정현(大靜縣)」 - 지금의 서귀포시 강정동 '곳개·곳물개'를 이른다(썩은섬 앞 해안가). 범질포는 한경면 용수리의 법기동(法機洞) 바닷가를 이른다.

33) 이들을 열거하면 건입포수전소(巾入浦水戰所), 조천관포구수전소(朝天館浦口水戰所)·김녕포구수전소(金寧浦口水戰所), 벌랑포수전소(伐郎浦水戰所), 도근천포구수전소(都近川浦口水戰所), 애월포구수전소(涯月浦口水戰所), 명월포구수전소(明月浦口水戰所), 오조포수전소(吾召浦水戰所), 서귀포수전소(西歸浦水戰所), 모슬포중수전소(毛瑟浦中水戰所), 색포동수전소(塞浦東水戰所)·범질포서수전소(犯叱浦西水戰所)이다.

34) 제주도 해안은 지형적 특성(암반지대)으로 큰 배를 대기 어렵고, 큰 포구 또한 만들기 쉽지 않다. 아울러 수군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계기로 육상의 방어체계를 더욱 선호하게 된다.

체계가 이루어지며, 1895년 진성이 폐지될 때까지 운영된다.[35]

1) 별방진성(別防鎭城)

별방진성(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4호)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354번지 일대이며, 제주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70리에 위치하고 있다. 별방진성에 관한 규모에 대하여 각종 읍지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책 이름과 편찬 연도	주요 내용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	周 2,390尺, 高 7尺, 東北 2門
『南槎錄』, 1601년	周 2,390尺, 高 7尺, 東南北 3門
『耽羅志』, 1653년	周 2,390尺, 高 7尺, 東南北 3門
『增補耽羅誌』, 1765년	周 2,390尺, 高 7尺, 東南北 3門, 有二泉井
『濟州邑誌』, 1785년 2월 이후	周 2,890尺, 東南北 3門, 城中 2泉
『濟州大靜旌義邑誌』, 1793년	周 1,081步
『耽羅誌草本』, 1842년	周 1,081步, 高 7尺, 東南北 3門
『耽羅誌』, 1848년 8월 이후	周 2,390尺, 高 7尺, 東南北 3門 有泉
『濟州郡邑誌』, 1899년	周 2,890尺, 東南北 3門, 城中2泉

『탐라순력도』「별방조점(別防操點)」에는 성 안에는 객사, 동창(東倉) 등 기와건물과 여장시설이 그려져 있다. 바닷물이 성안까지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문(동문, 서문, 남문)이 보이고, 별방(하도리)포구 앞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미망(指尾望) 표기와 지미봉 정상부에 지미봉수와 해안가에 두

35) 고용규, 2018, 「제주지역 진성의 역사고고학적 고찰」, 『제주도 진성』, 제주특별자치도 외.



별방진성 원경

원포(頭遠浦)연대(종달연대)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 건물의 원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장시설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마을 원로들이 "미석(楣石)[36]과 타첩(여장시설)이 있었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성 안과 그 주변 지역에서 기와편, 분청사기, 백자, 청화백자 등이 발견되고 있다.

1765년에 편찬한 『증보탐라지』「구진(九鎭)」에 의하면, '별방진에는 동·남·북 세 곳에 문이 있고 문 위에는 초루가 있다. 주창(州倉)이 있다. 성안 두 곳에 샘과 우물이 있다. 객사는 3칸이며 군기고가 4칸이다. 별방진성에 소속

36) 석성(石城)의 외부벽에 체성과 여장시설 사이에 돌출된 판상형(板狀形) 석재를 말한다. 이는 체성과 여장을 구분함으로서 적의 공격이나 자연적인 훼손 등 여장이 붕괴될 때 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된 봉수는 세 곳으로 입산봉수·왕가봉수·지미봉수이며, 별방진성에 소속된 연대는 세 곳으로 무주포연대·좌가마연대·입두연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주목삼군각폐지공해성책(濟州牧三郡各廢止公廨成冊)』[37]에 의하면, 별방진성 안에 진사 3칸, 객사 3칸, 공수 3칸, 사령방 2칸, 문 1칸, 동서남문 3칸 등 합 15칸의 건물이 있었다. 별방진성의 전체적인 지형이 남고북저의 지형 위에 있고 성곽의 북측은 해안과 접해 있다. 별방진성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원도』(1914년)에 의하면, 둘레가 960m 정도이고,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동·서·남문과 각각의 문에는 옹성이 있으며, 치성은 7개소가 있다.



별방진성 성벽(서벽)



별방진성 성벽(북쪽)

현재 별방진성의 성벽은 남문과 서문 사이의 서벽은 잔존하고 있으며 동

37) 1900년에 내장원(內藏院)에서 제주군, 정의군, 대정군의 폐지된 관아에 대해 기록한 문헌이다.



별방진성 동벽

문과 남벽 및 북벽 구간은 복원하였다. 서문 자리와 북벽은 민가가 들어서면서 대부분 훼손되었다. 치성은 7개소 중 그 중에 북·동·남쪽에 3개소의 치가 복원되어 있다. 서벽에는 2개의 치가 잔존하고 있다. 북벽 2개소의 치는 훼손되었는데, 1914년『지적원도』를 보면, 기존에 있던 북벽 2개소의 치가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벽의 상부는 대부분 훼손되어 높이를 알 수 없지만, 현재 2m 내외로 남아 있다. 그리고 성곽의 내벽은 2단으로 축조되었고 하단은 내벽 경비로 바닥에서 1.5~1.8m 정도이다. 따라서 성곽의 내벽 높이는 3~4m정도로 추정된다.[38]

축조 방식은 제주도 현무암을 거칠게 다듬어 허튼층쌓기와 협축으로 쌓

38) 제주특별자치도 외, 2014,『별방진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

았다. 외벽의 기울기는 직선형 성벽으로 단경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옹성의 축조는 성벽과 일체식으로 축조하였고, 치성은 성벽을 쌓은 후 덧대어 쌓는 방법으로 축조하였다.

진성 안에는 마을 주민들의 주택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고 있다. 북쪽 수구문을 통해 조수가 드나들었는데, 지금도 연지까지 조수가 들어온다. 문헌 기록에는 성 안에 우물 2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다. 지금도 성 안에는 두레박물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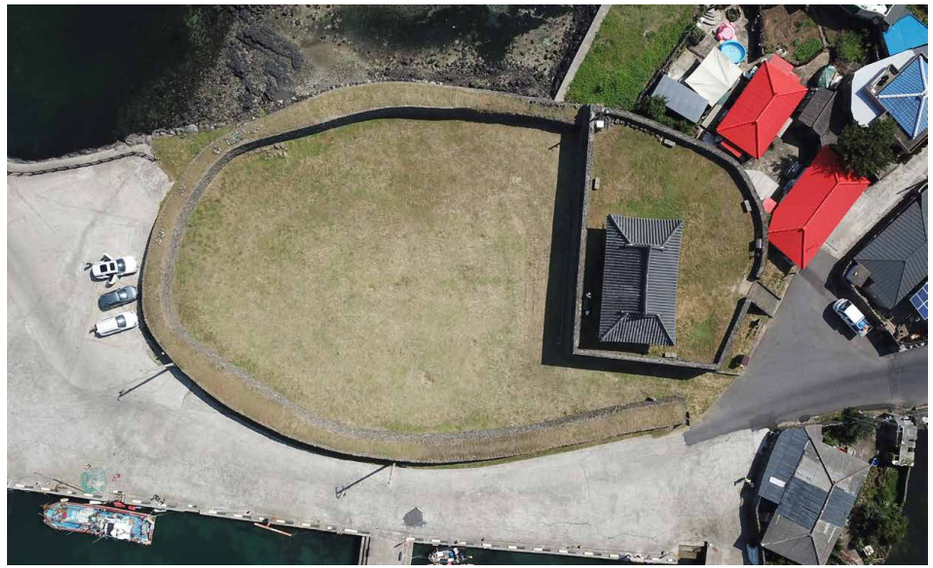
2) 조천진성(朝天鎭城)

조천진성(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8호)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제주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에 위치하고 있다. 조천진성에 관한 규모에 대하여 각종 읍지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책 이름과 편찬 연도	주요 내용
『南槎錄』, 1601년	周 430尺, 高 10尺, 東門 1門
『耽羅志』, 1653년	周 428尺 7寸, 高 9尺 1寸, 東門 1門
『增補耽羅誌』, 1765년	周 428尺 高 9尺, 城內無泉
『濟州邑誌』, 1785년 2월 이후	周 428尺, 高 7尺, 南置 1門
『濟州大靜旌義邑誌』, 1793년	周 240步
『耽羅誌草本』, 1842년	周 240步, 高 9尺, 1門
『耽羅誌』, 1848년 8월 이후	周 428尺 7寸, 高 9尺 1寸, 東門 1門
『濟州郡邑誌』, 1899년	周 428尺 7寸, 高 9尺 1寸, 東門 1門

여기에는 타첩도 28개소가 확인되고 있다. 『증보탐라지』「구진(九鎭)」에 의하면, '조천진성 안에는 조천관과 연북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천진성에 소속된 봉수는 한 곳으로 서산봉수이다. 그리고 조천진성에 소속된 연대는 세 곳으로 조천연대·왜포연대·함덕연대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제주목삼군각폐지공해성책(濟州牧三郡各廢止公廨成冊)』에 의하면, 조천진성 안에 진사 10칸의 건물이 있었다.

1914년에 제작한 『지적원도』와 현재 지적도 및 위성사진에 의하면, 현재에도 원래의 모습이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지적원도』에는 조천진 지역이 2690번지로 되어 있고, 국유지로 표시되어 있다. 조천진성은 육계도에 위치한 진성으로 육계도까지 이르는 길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다. 도로 주변이 점차 매립되면서 주택이 들어섰던 것을 볼 수 있다. 현재의 조천진성 지역은 조천포구가 확장되면서 북쪽 지역 매립된 곳과 연결되어 있다. 진성의 동남



조천진성



조천진성 원경

쪽으로도 매립이 진행되어 주차장이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성곽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성곽의 형태는 타원형을 띠고 둘레는 128m로 다른 진성에 비해 규모가 작다. 북측의 성벽은 해풍으로 무너진 것을 주민들이 복원하였다고 한다. 남측 성벽 위에는 연북정(戀北亭,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호)이라는 정자가 복원되어 있다.

제주고고학연구소의 발굴조사에 의하면, 건물지와 담장 등이 조사·확인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물지는 1960년 배를 수리하기 위한 도크



조천진성 건물지 조사 모습


조천진성 북벽


조천진성 서벽

시설에 의해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되었지만 잔존한 건물지 구성으로 볼 때 크게 3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1기는 방호소가 설치될 당시인 고려말~조선초로 건물과 시설물이 초축되는 시기이다. 2기는 방호소에서 선조 23년(1590)에 이옥 목사가 쌍벽정(雙碧亭, 연북정)을 짓고 조천진을 중창하기 이전까지이다. 3기는 중창기 이후 일제강점기까지로 구분하였다.[39]

『탐라순력도』「조천조점(朝天操點)」에 연북정(燕北亭) 정자가 남쪽 성벽위에 그려져 있고, 성 안에는 창고(군기고)를 비롯한 기와 건물이 들어서 있다. 진성 밖에는 조천연대도 그려져 있다. 성 내부에는 연북정에 올라가는 계단을 볼 수 있는데, 현재 복원된 계단은 일제강점기 때 경찰주재소로 쓰면서 성 밖으로 계단을 만든 것이다.

39)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17,『朝天鎭城Ⅰ』.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20,『朝天鎭城Ⅱ』.

3) 화북진성(禾北鎭城)

화북진성(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56호)은 제주시 화북1동 5761번지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별도포구와 접한 해안가에 인접해 있으며 현재 진성터는 '화북청소년 문화의집'으로 활용되고 있다. 화북진성 동편에 별도연대와 별도환해장성이 위치해 있다. 별도연대는 화북진성에 소속된 유일한 연대이다.

화북진성은 숙종4년(1678) 제주목사 최관(崔寬) 재임 당시 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북진성은 해발 1~4m의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화북진성 서벽

화북진성의 1914년『지적원도』에 의하면, 진성의 규모는 동서 120m, 남북 75m이고 형태는 타원형이다. 성문은 동문과 서문이 있었다. 화북진성에 관한 규모에 대하여 각종 읍지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책 이름과 편찬 연도	주요 내용
『增補耽羅誌』, 1765년	周 608尺 高 10尺, 東西 兩門, 城中無水
『濟州邑誌』, 1785년 2월 이후	周 606尺, 高 12尺, 東西 兩門
『濟州大靜旌義邑誌』, 1793년	周 303步
『耽羅誌草本』, 1842년	周 303步, 高 10尺, 東西 兩門
『耽羅誌』, 1848년 8월 이후	周 303步, 高 1尺, 東西 兩門

제주목사 윤시동이 1765년 이후에 편찬한『증보탐라지』「구진(九鎭)」에 의하면, 진성은 둘레가 608자며 높이가 10자다. 동쪽과 서쪽 양쪽에 문이 있고 그 위에 초루가 있다. …중 략 … 환풍정은 숙종 25년(1699)에 남지훈 제주목사가 고쳐 세웠다. 객사와 망양대와 군기고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제주목삼군각폐지공해성책(濟州牧三郡各廢止公廨成冊)』에 의하면, 화북진성 안에 환풍정 3칸, 공수 3칸, 사령방 1칸, 마방 4칸 등 합 14칸의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화북진성은 축성 당시 성곽이 187m 정도 남아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높이는 4.6m에 달해 보존상태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부분적으로 축성 당시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잔존 구간 중 북벽은 원형으로 남아 있으나 남벽은 1970년대 도로 개설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었고, 네 곳은 화북초등학교 담장 개설로 많이 훼손되었다. 북벽 일부에 여장의 흔적이 남아 있다.


화북진성 북벽

성문은 동문과 서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유실되었다. 축조 방법은 제주산 현무암을 거칠게 다듬어 쌓은 석성(石城)으로 궁형(弓形)의 형식으로 협축에 잡석 채움을 하고 있다. 진성의 북쪽에는 폭 5m의 도로를 사이로 해안과 접해 있는데, 이는 바다를 매립하여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진성의 축성시에는 북측 성곽이 해안과 접해 있었다.

조선 숙종 28년(1702) 제주목사 이형상이 화북 진성을 순력할 때 그린『탐라순력도』「화북성조(禾北城操)」에는 북측 성벽이 해안과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와건물 2채와 초가건물 6채가 그려져 있다. 아울러 성위에 군사들과 성안에 군사와 말이 도열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 건물의 본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성 안에서 건물의 주초석 11점이 확인되었고, 기와편, 분청사기, 백자, 청화백자 등도 발견되었다.

1914년에 제작한『지적원도』와 현재 지적도 및 위성사진에 나타난 화북진성을 보면, 화북진성의 윤곽이 잘 그려져 있다. 지목이 성(城)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내부의 토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다. 동쪽과 서쪽에 도로가 있는 곳에 성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북진성은 현재 전체에서 절반 정도가

남아 있다. 서문 추정지에서 북쪽으로 70m 지점은 기단석, 성석, 면석 비율이 일정하게 되어 있어서 당시의 성벽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동쪽으로 50m 지점은 성벽이 가정집 울타리와 맞붙어 있다.[40]

4) 애월진성(涯月鎭城)

애월진성(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형유산 제19호)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736번지 일대에 자리하고 있으며 제주읍성으로부터 서쪽으로 40리에 위치하고 있다. 애월진성에 관한 규모에 대하여 각종 읍지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책 이름과 편찬연도	주요 내용
『耽羅志』, 1653년	周 549尺, 高 8尺, 南西 2門
『增補耽羅誌』, 1765년	周 225步 高 18尺, 南西 二門
『濟州邑誌』, 1785년 2월 이후	周 549尺, 南西 2門
『濟州大靜旌義邑誌』1793년	周 255步
『耽羅誌草本』, 1842년	周 255步, 高 16尺, 西南 2門
『耽羅誌』, 1848년 8월 이후	周 549尺, 高 8尺, 南西 2門
『濟州郡邑誌』, 1899년	周 549尺, 高 8尺, 南西 2門

조선 숙종 28년(1702) 이형상 제주목사가 애월진성을 순력할 때 그린 『탐라순력도』의 「애월조점(涯月操點)」에는 성 안에 군기(軍器) 등 초가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당시 건물의 원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여기에는 서문과 남문의 문루와 여장시설도 묘사되어 있다. 현재 일부이긴 하지만 여장시설

40) 제주시, 2011, 『도지정기념물 화북진성 복원계획 및 주변 문화유산 활용계획 수립 보고서』.



애월진성

이 남아 있다. 윤시동 제주목사가 1765년에 편찬한 『증보탐라지』「구진(九鎭)」에 의하면, '애월진성 안에는 객사 4칸, 군기고 4칸, 상 안에는 우물이 없다. 그리고 애월진성에 소속된 봉수는 한 곳으로 고내봉수이다. 애월진에 소속된 연대는 두 곳으로 애월연대·남두연대다.' 라는 기록이 있다. 『제주목삼군각폐지공해성책(濟州牧三郡各廢止公廨成冊)』에 의하면, 애월진성 안에 진사 3칸, 익랑 5칸, 성문 2칸, 등 10칸 건물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914년에 제작한 『지적원도』와 현재 지적도 및 위성사진에 나타난 애월진성 주변 지역은 지번이 1736번지로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지만 국유지로 표시되어 있다. 지번 옆에는 '구진영(舊鎭營)'이라고 표기하여 과거 애월진의 터임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애월진성은 애월초등학교 부지에 일부 남아 있다. 서측 성벽은 민가의 울타리를 겸하고 있어서 외벽 하부의 성돌만 남아 있고 내벽은 소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측 성벽은 학교 시설이 들어서 있어서 흔적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남측 성벽은 일부 복원되어 있다. 북



애월진성 북벽

측 성벽에는 총안과 미석(眉石)이 보이고 있고, 여장과 회곽도가 여전히 남아 있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성문은 다른 진성과 달리 동문이 없고 남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현재 서문은 애월초등학교 정문으로 이용되고 있고 남문은 훼손되었으나 주춧돌 2점이 확인되었다.[41] 서문은 서쪽에 있는 용천수를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마을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남고북저의 지형 위

41) 애월진성내 건물지의 초석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애월성당 입구 화단과 마당의 나무 아래에 조경석으로 쓰이고 있다.

에 위치한 애월진성은 지형이 낮은 북측은 바다를 매립한 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해안과 접해 있다. 애월진성의 『지적원도』에 의하면 동서 75m, 남북 95m로 그 둘레가 245m 정도인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자연지형에 적합하도록 축조되어 오히려 부정형에 가깝다.



애월진성의 주초석(애월성당)

5) 명월진성(明月鎭城)

명월진성(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9호)은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2256번지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명월진성은 1510년경부터 축성되기 시작한다. 1765년에 편찬한 『증보탐라지』「구진(九鎭)」에 따르면, 명월진성에 소속된 봉수는 2개소로 도내봉수·만조봉수이다. 명월진성에 소속된 연대는 7개소로 두모연대·한포연대(대포연대)·배령연대·마두연대·죽도연대·우지연대·귀덕연대이다. 현재 성곽의 규모는 둘레가 1,388m, 높이 5.1m가량 된다.[42] 진성의 규모에 대하여 각종 읍지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42) 『제주도 진성의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제주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8)에는 지적도 연결, 치·옹성을 포함했을 경우 둘레 1,491m로 보고 있다. 『제주의 방어유적』(제주도 1996)에는 둘레를 1,360m으로 보고 있다.



명월진성 동북벽

책 이름과 편찬 연도	주요 내용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	周 3,020尺, 高8尺, 東西南 3門, 城中有泉
『南槎錄』, 1601년	周 3,050餘尺, 高9尺 3門, 1泉
『耽羅志』, 1653년	周 3,020尺, 高8尺, 東西南 3門, 城中有泉
『增補耽羅誌』, 1765년	周 3,050여자, 高11자, 東西南 三門, 中有1泉
『濟州邑誌』, 1785년 2월 이후	周 3,020尺, 高8尺, 東西南 3門, 城中有泉
『濟州大靜旌義邑誌』1793년	周 715步
『耽羅誌草本』, 1842년	周 715步, 高11尺, 東西南 3門
『耽羅誌』, 1848년 8월 이후	周 3,020尺, 高8尺, 東西南 3門, 城中有泉
『濟州郡邑誌』, 1899년	周 3,020尺, 高8尺, 東西南 3門, 城中有泉

명월진성은 9진성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성으로 현재까지 원형이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1914년에 제작한『지적원도』를 보면 성곽의 형태와 치성, 성문의 옹성 구조가 잘 드러나 있다. 이에 의하면, 타원형의 형태로 남고북저의 지형에 위치하며 동·서·남문지와 각 성문에는 옹성이 있고 치성 7개소가 표기되어 있다. 특히 성곽 전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해자의 형태도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아울러 동·서문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남문으로 이어지는 옛길도 드러난다. 이 길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성벽은 남문 옹성 및 1개소의 치와 함께 약 260m 정도 복원되어 있다. 잔존 성벽은 복원된 동벽의 일부이며 서벽은 훼손이 심하고 허물어졌다. 현재 성벽은 농로로 사용되고 있다. 서문지와 동문지의 훼손이 가장 심하며 서문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옹성 흔적이 일부 확인되는 동문지는 잡목 등으로 인해 뚜렷한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탐라순력도』「명월조점(明月操點)」,「명월시사(明月試射)」에는 성 안에 서별창(西別倉), 병고(兵庫) 등 기와건물과 초가건물이 그려져 있다. 남문, 서문, 북문의 문루(門樓)와 큰 샘[泉][43]이 있으며 성벽에는 여장이 묘사되어 있다. 성 밖에는 만조봉수도 보인다. 영조 41년(1765) 이후에 윤시동 목사가 편찬한『증보탐라지』「구진(九鎭)」에 의하면, 명월진성 안에는 '동쪽 · 서쪽 · 남쪽 세 곳에 문이 있고 모두 초루가 만들어져 있다. 객사가 3칸이며 군기고는 4칸이 있으며, 사창과 영 진휼 창고도 있다. 성 안에 샘이 하나 있는데

43) 명월성 서쪽과 인접해 옹포천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옹포천은 풍부한 수량을 자랑한다. 아마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명월진성을 축조한 것으로 보이며, 샘은 다른 성곽에 비해 과도할 정도로 크게 그렸다. 명월성지 북서편 외곽과 인접해 한림정수장이 들어서 있다.



명월진성 원경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물맛이 매우 달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샘은 용천수로 현재 1996년에 완공된 한림 정수장이 들어서 있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규모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2000년 남문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옹성 안쪽에 민가가 있었다. 조사결과 문지도리와 초석 및 심초석이 원형을 유지한 채 남아 있었다. 이를 근거로 남문을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44)]

또한, 『제주목삼군각폐지공해성책(濟州牧三郡各廢止公廨成冊)』에는 진성 안에 '아사 3칸, 창고 2칸, 문 2칸, 공수 2칸, 사령방 2칸, 중화청 2칸, 외공수 2칸, 군기고 4칸, 도청 4칸, 객사 3칸, 창대청 3칸, 진고 4칸, 보고 2칸, 사창 2칸, 동문 1칸, 남문 1칸, 서문 1칸, 적대 1칸, 진졸청 3칸 등 합 48칸의 건물이 있다.' 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 건물

44) 북제주군, 2000, 『명월성남문지- 발굴조사보고서』.

의 본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장의 흔적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이 지역 원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미석과 총안이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이 디딤돌과 물팡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석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포구 매립시 많은 성곽 돌을 사용했다."고 한다.

현재 명월진성내에는 민가 주택 및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성내와 그 주변 지역으로 기와편, 분청사기, 백자, 청화백자 등이 발견된다.

6) 수산진성(水山鎭城)

수산진성(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2호)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580번지 외 16필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정의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에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수산진성 주변 지역은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 사람인 타라치(塔剌赤)가 소, 말, 약대, 노새, 당나귀와 양을 싣고 와서 수산평에 방



수산진성 원경

목했던 곳이다. 수산진성의 규모에 대하여 각종 읍지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책 이름과 편찬 연도	주요 내용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	周 1,264尺, 高 26尺
『耽羅志』, 1653년	周 1,164尺, 高 16尺, 左右 2門
『增補耽羅誌』, 1765년	周 1,264尺, 高 16尺, 東西 兩門, 城中無井泉, 有奉天水一處
『濟州邑誌』, 1785년 2월 이후	周 1,164尺, 高16尺, 東西 2門, 城中 1泉
『濟州大靜旌義邑誌』 1793년	周 582步
『耽羅誌草本』, 1842년	周 1,164尺, 高16尺, 東西 2門
『旌義郡邑誌』, 1899년	周 1,164尺, 高16尺, 東西 2門, 城中 1泉
『耽羅誌』, 1902년 9월 이전	周 1,164尺, 高16尺, 左右 2門

『탐라순력도』「수산조점(首山操點)」에는 성 안에는 초가건물 4동과 샘[泉]이 있으며 성벽에는 여장시설이 있다. 그리고 동문과 서문이 그려져 있다. 성 밖에는 고성(古城)과 수산봉수, 협재(俠才)연대(협자연대)가 표기되어 있다. 지금은 당시 건물의 본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과수원 등 지표상에서 기와편, 분청사기, 백자, 청화백자 등이 발견되고 있다. 1765년에 편찬한 『증보탐라지』「구진(九鎭)」에 의하면, '수산진성 안에는



수산진성 남벽 단면



수산진성 남벽

동쪽과 서쪽 양쪽에 문이 있다. 객사는 3칸이며 군기고가 3칸이다. 그리고 수산진성에 소속된 봉수는 두 곳으로 성산봉수·수산봉수이다. 수산진성에 소속된 연대는 세 곳으로 종달포연대·오조포연대·협재연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주목삼군각폐지공해성책(濟州牧三郡各廢止公廨成冊)』에 의하면, 수산진성 안에 진사 3칸, 익랑 3칸, 객사 2칸 등 합 8칸의 건물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지적원도』(1914년)와 현재 지적도 및 위성사진에 의하면, 수산진성은 현재 수산초등학교 담장과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현존 상태는 양호하며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9진성 가운데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성곽이라 할 수 있다. 성곽의 형태는 정방형이며 3개소의 치가 남벽과 서벽 모서리, 서벽과 북벽 모서리, 북벽과 동벽 모서리에 방형의 치성으로 남아 있다. 또한



수산진성 각자성석

북측 성벽에는 여장이 잘 보존되어 있다. 성문은 동문과 서문 두 개의 문이 축조되어 있었다. 동문 주변에는 과수원, 서문 주변에는 학교 건물과 농경지가 들어서 있다.

수산진성 남동쪽 성벽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조사결과 기존의 성벽은 1~3단 가량 축성 당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후대의 보수·정비과정에서 쌓여진 것으로 보인다. 기단석의 하단 부분은 20~40㎝가량의 괴석을 평탄하게 집석한 상태와 함께 할석을 이용하여 기단석보다 20~30㎝가량 밖으로 돌출되어 상부의 무게를 분산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 같다. 이렇게 잡석을 깔아 바닥을 다진 후 기단석 및 벽석을 축조한 형태는 아직까지 도내

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45]

동쪽 성벽 인근에 '진안 할망당'이 있는데, 이 당은 수산진성을 축성 당시 희생당한 소녀의 영혼을 달래는 곳이라는 전설이 있다. 최근 수산진성 남동쪽 성벽에서 각자성석(刻字城石)이 확인되어,[46] 진안할망당 전설과 함께 축성주체의 실마리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성곽에서 각자성석이 발견된 예는 수산진성이 유일하다.

7) 서귀진성(西歸鎭城)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55호로 지정되어 있고, 서귀포시 서귀동 717-4번지 외 59필지에 자리하고 있다. 정의읍성에서 서쪽으로 70리[47]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서귀진성의 규모에 대하여 각종 읍지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책 이름과 편찬 연도	주요 내용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	周 161尺, 高5尺
『南槎錄』, 1601년	周 500尺, 高6尺, 西南 2門
『耽羅志』, 1653년	周 825尺 5寸, 高12尺
『增補耽羅誌』, 1765년	周 500尺, 高六尺, 南西兩門, 中有一井
『濟州邑誌』, 1785년 2월 이후	周 825尺, 高12尺, 東西 2門, 城中 1泉

45)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 『제주 서귀포시 수산진성유적 문화재시굴조사 간략보고』.

46) 각자성석은 조선시대 성의 축조와 관련 감독자, 시기, 규모 등을 기록한 것이다. 수산진성에 문자가 새겨진 성돌(성석)이 발견되었다. 성체외벽 하단부에 2개의 성돌에서 확인된다. 글자는 다공질현무암 성돌로 마모가 심한편이다. 확인된 것은 대략 玄, 任, 仁, 吉 등 7자 이상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외 2018, 『제주도 진성-국가사적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47) <서귀포 칠십리 축제>의 칠십리는 서귀진성과 정의(현)읍성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조선시대 문헌에 자주 등장한다.



서귀진성 원경

책 이름과 편찬 연도	주요 내용
『濟州大靜旌義邑誌』, 1793년	周 415步
『耽羅誌草本』, 1842년	周 825尺, 高12尺, 西南 2門
『旌義郡邑誌』, 1899년	周 825尺, 高12尺, 東西 2門, 城中 1泉
『耽羅誌』, 1902년 9월 이전	周 825尺 5寸, 高12尺

『탐라순력도』「서귀조점(西歸操點)」에 의하면, 병고(兵庫)가 기와 건물, 나머지는 초가건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동문과 서문이 있으나,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성 밖에는 삼매봉 정상에 삼매양봉수가 보인다. 1765년에 편찬한 『증보탐라지』「구진(九鎭)」에 의하면, '서귀진성 안에는 객사가 3칸, 군기고가 3칸이 있다. 정의현 창고와 영 진휼 창고도 있다. 그리



서귀진성 복원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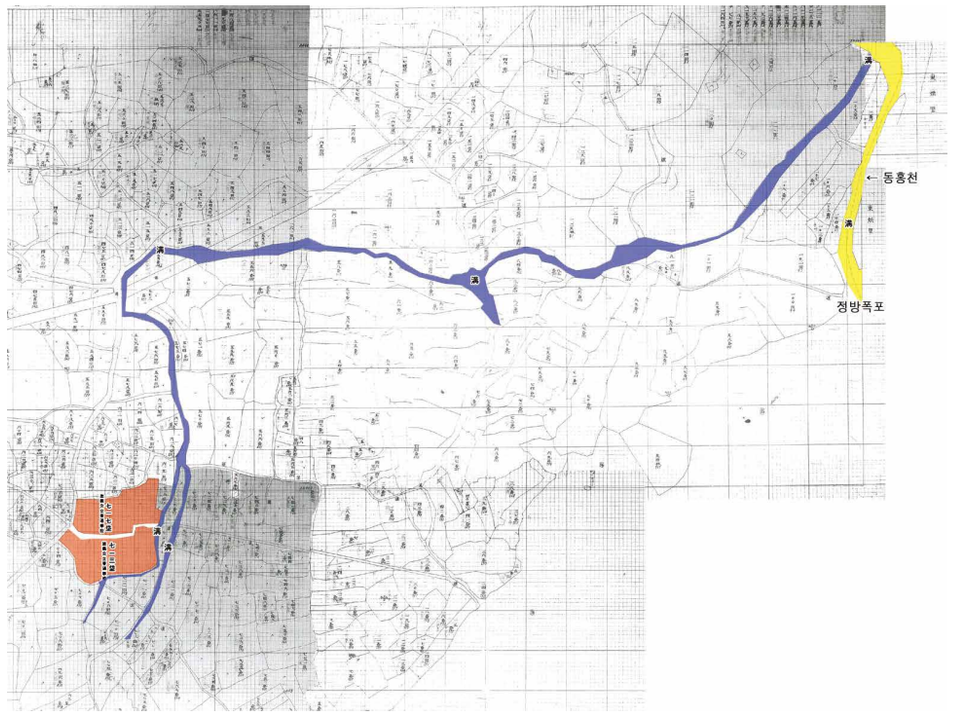
서귀진성 우물

고 서귀진성에 소속된 봉수는 세 곳으로 자배봉수·호촌봉수·삼매양봉수이다. 서귀진성에 소속된 연대는 네 곳으로 금로포연대·우미포연대·보목포연대·연동연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주목삼군각폐지공해성책(濟州牧三郡各廢止公廨成冊)』에 의하면, 서귀진성 안에 진사 3칸, 객사 3칸, 공수 3칸, 진졸청 3칸 등 합 12칸의 건물이 있었다.

특히 1914년에 제작한 『지적원도』와 현재 지적도 및 위성사진에 나타난 모습으로 볼 때 현재의 서귀진성은 서귀포시의 시가지가 확대됨에 따라 거의 원형을 상실하여 과거의 모습을 찾기가 힘들다. 『지적원도』에는 성곽의 형태가 『탐라순력도』에 타원형이 아닌 부정형의 모습이다. 동문과 서문을 연결하는 도로는 당시에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14년 자료에 의하면 서귀진성의 관아 시설물은 정의보통공립학교로 사용하였다. 현재는 동서를 잇는 도로가 더 확장되어 있고 서귀포시가 사적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를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건물이나 주택들은 없다. 성벽은 북벽과 서벽 일부가 잔존하고 있으나 불분명하다. 그 외 시설은 남아 있지 않다.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서귀진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추정 성벽지, 건물지 2동과 물을 끌어들이던 수로(암거시설)와 우물(집수정),[48] 석렬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서문지 추정지 서쪽 713-17도 부분의 『지적원도』상에 서쪽으로 돌출된 부분을 옹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북동쪽 모서리 돌출된 부분을 치성으로 추정하고 있다.[49]

48) 서귀진지 성안 서남쪽에 우물의 식수는 1914년 지적도에 따르면 정방폭포에서 수로를 파고 석조 배수로[暗渠施設]를 만들어 끌어 왔음을 발굴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수로를 통해 끌어들인 주변 경작지에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49)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 『제주 서귀진지』.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제주 서귀진지 Ⅱ』.



서귀진성 수로망(1914년 지적원도)

서귀진성 관련 전설이 남아 있다. 서귀진 소속 관속(官屬) 하인 변인태에 대한 내용이다. 전설 속에 왜선의 침입을 감시하던 당번을 '망한'이라고 하는데, 노인을 제외하고 모든 남자는 순번을 정해 봉수대에서 망을 보았다는 얘기로 꾸며져 있다.[50]

8) 모슬진성(摹瑟鎭城)

모슬진성은 제주도의 서남쪽 해안가를 방어하던 진성이다. 서귀포시 대

50) 현용준, 2017, 『제주도 전설』,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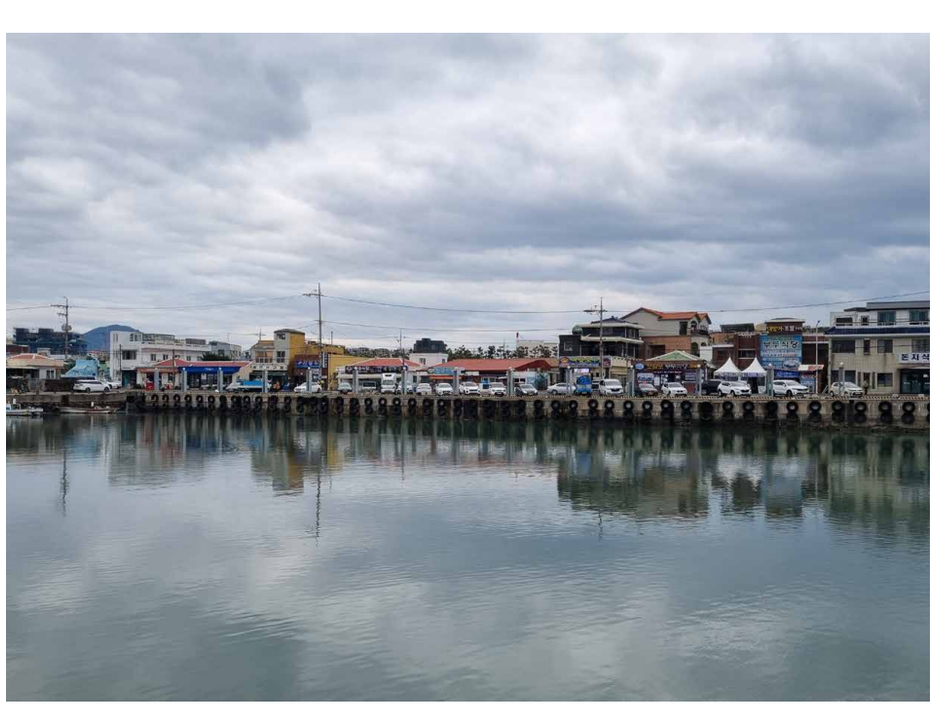
정읍 하모리 770-34번지 일대(추정)로 현재 모슬포항 매립지에 해당한다. 이곳은 식당 및 민가로 인해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모슬진성은 대정읍성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모슬진성은 숙종2년(1676) 윤창현 목사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윤시동 목사의 『증보탐라지』「구진(九鎭)」(1765년)에 따르면 '모슬진성에 소속된 봉수와 연대는 각각 한 곳으로 저별봉수와 무수연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성곽의 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모슬진성에 관한 규모에 대하여 각종 읍지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책 이름과 편찬 연도	주요 내용
『增補耽羅誌』, 1765년	周 315자, 高 12尺, 東 1門, 城中無泉
『濟州邑誌』, 1785년 2월 이후	周 315자, 高 12尺, 北門
『濟州大靜旌義邑誌』 1793년	周 210步
『耽羅誌草本』, 1842년	周 335尺, 高 12尺, 타첩 22개소, 東 1門
『大靜郡邑誌』, 1899년	周 335尺, 高 12尺 ,東 1門, 城中無泉
『耽羅誌』, 1902년 9월 이전	周 335尺, 高 12尺, 東 1門

『탐라순력도』 중 「모슬점부(摹瑟點簿)」에는 북문 1개소만 있으며 삼면은 바다로 에워싸여 있고, 모슬진성 안에는 객사, 병도 등 4동의 초가건물이 있다. 성 밖에는 모슬봉수, 연대(무수연대)가 표기되어있다. 『증보탐라지』「구진(九鎭)」(1765년)에는 '동쪽에 문이 하나 있고 문 위에 초루가 있다. 객사는 3칸이며, 제영(題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기고도 3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785년 편찬된 『제주읍지』에는 북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모슬진성은

지형적으로 볼 때 조천진성과 유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성문 또한 1개소인 점도 같다. 그리고 제주목사 이원조의 『탐라지초본』(1842년)에는 타첩이 22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주목삼군각폐지공해성책(濟州牧三郡各廢止公廨成冊)』에는 '모슬진성 안에 진사 5칸의 건물이 있었다.'고 전한다. 즉, 모슬진성은 규모가 작은 성임을 알 수 있다.

1914년 『지적원도』와 현재 지적도 및 위성사진에 의하면, 모슬진성은 9진성 가운데 과거 흔적이 가장 적게 남아 있는 성으로 파악된다. 또한 진성 주변이 매립되면서 허물어지고 이에 따라 예전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 『탐라순력도』와 『지적원도』에는 모슬포항이 매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육계도



모슬진성 추정터



「모슬점부」에 나타난 모슬진성

(陸繫島)[51]에 있었던 모슬진성이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모슬진성의 지번이 하모리 770번지인데 진(鎭)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국유지로 표시되어 있

51) 파도에 의해 섬 뒤쪽(육지를 향한 쪽)에서 모래, 자갈 등이 퇴적되면서 발달한 육계사주(陸繫沙洲)에 의해 육지와 연결된 섬을 말한다. 성산 일출봉이 좋은 예다.

다. 하지만 진성 동쪽의 포구가 매립되어 육지가 되면서 육계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여태의 기록들을 정리해보면, 현재의 모슬포수협 북쪽 지역이 모슬진의 터가 되며 이쪽으로 연결되는 포구쪽 도로가 과거 모슬진과 연결되었던 도로로 보인다. 현재 모슬진성은 모슬포항과 항만 매립으로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

9) 차귀진성(遮歸鎭城)

차귀진성은 지금의 한경면 고산리 2216번지 외 일대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닷가까지는 직선거리로 1.3km 정도 떨어져 있다. 현재 차귀진성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차귀진성에 관한 규모에 대하여 기록된 각종 읍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책자명과 편찬 연도	주요 내용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	周 1,466尺, 高 33尺
『南槎錄』, 1601년	周 1,190餘尺, 高 10尺, 2門, 城中 1井
『耽羅志』, 1653년	周 2,466尺, 高 22尺
『增補耽羅誌』, 1765년	周 1,190여尺, 高 10尺, 東西2門
『濟州邑誌』, 1785년 2월 이후	周 2,466尺, 高 22尺, 東西 2門, 城中有泉
『濟州大靜旌義邑誌』, 1793년	周 1,644步
『耽羅誌草本』, 1842년	周 1,190尺, 高 10尺, 垜堞 73, 東西 2門
『大靜群邑誌』, 1899년	周 2,466尺, 高 22尺, 東西 2門
『耽羅誌』, 1902년 9월 이전	周 2,466尺, 高 22尺, 兩門 2門, 東西 2門



차귀진성 원경

『탐라순력도』 중 「차귀점부(遮歸點簿)」에는 진성 안에는 3동의 건물(客舍와 兵庫)과 동·서에 두개 문이 있으며, 당산봉수와 우두연대가 표기되어 있다. 지금은 당시 건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1765년에 편찬한 『증보탐라지』 「구진(九鎭)」에 의하면, '차귀진성 안에는 객사가 3칸, 군기고가 3칸이 있다. 차귀진성 중간에는 우물이 하나 있다. 차귀진성에 소속된 봉수는 한 곳으로 당산봉수이다. 차귀진성에 소속된 연대는 한 곳으로 우두연대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제주목삼군각폐지공해성책(濟州牧三郡各廢止公廨成冊)』에는 '차귀진성 안에 진사 3칸, 객사 3칸(부상)의 건물이 있었다.'



차귀진성 발굴조사 성벽

고 전한다.

1914년에 제작한 『지적원도』와 현재 지적도 및 위성사진에 의하면, 현재의 차귀진성은 대부분 허물어져 과거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평지에 위치한 진성이어서 성담도 거의 사라지고 진성 터에는 마을 주민들의 주택이 들어서 있고 일부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52] 동문과 서문을 연결했던 일자형 도로가 아직도 이용되고 있다.

전체적인 성곽의 형태는 직사각형으로 추정되나 원형으로 그려진 『탐라

52) 성벽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를 참고하면, 고산리 2225번지 북쪽 경계면 돌담이 보이는 하단부 석축이 차귀진의 북쪽 성벽 기단부로 이해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건물지 일부가 성벽 하부로 내려간다. 적어도 고려시대 건물지 주변부에 조선시대 성벽이 세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 지역은 고려시대 서아막(몽골지배기의 국립목장)이 있었던 곳으로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제주 고산리 2225번지 유적』.



「차귀점부」에 나타난 차귀진

순력도』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53] 이는 『탐라순력도』의 진성 표현이 실제의 형태보다는 모식적으로 원형의 형태로 묘사한 데에 기인한다.

53) 1914년 『지적원도』와 1996년 『제주의 방어유적』 보고서를 참고하면 직사각형 형태에 가깝다.

3. 환해장성

환해장성은 '古長城'(고장성)·'長城'(장성), '해안성담'으로도 알려져 있다. 해안을 전체적으로 둘러친 장성이다. 환해장성의 축조는 고려 삼별초가 진도를 거점으로 삼아 대몽항쟁을 벌일 때부터 축조되었다. 원종 11년(1270) 고려왕정의 개경정부는 진도 삼별초의 제주 점령을 저지하기 위해 관군을 제주로 보내 방어시설 등을 설치케 했는데, 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해장성이었던 것이다.[54]

환해장성은 제주 삼별초에 의해 축조되었다. 진도 삼별초가 1270년 이문경(李文京)부대를 보내 제주 점령에 나섰다. 이들은 제주의 서쪽 명월포를 통해 상륙한 뒤, 환해장성을 쌓던 고려 개경정부의 관군을 역습했다. 이어 양자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끝에, 개경정부 관군은 전몰하고, 제주는 삼별초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환해장성은 계속 쌓아졌다. 이로부터는 환해장성의 축조가 삼별초에 의해 주도되고, 여·몽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한 것으로 바뀌었다. 이때의 환해장성은 해안선을 따라 연속해 쌓은 것이 아니라 바다로부터 적이 상륙하기 적당한 곳을 골라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환해장성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주로 왜구의 침탈을 막고자 계속 수축, 혹은 신축되었다. 특히, 헌종 11년(1845)에는 이양선이 우도(牛島) 앞바다에 정박한 뒤, 연안과 섬을 측량하는 일이 벌어지자, 당시 제주목사 권직(權濯)이 군사를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5개월여 뒤 환해장성의 신축을 행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54) 김일우, 2016, 「조선시대 제주관방시설의 설치와 분포양상」, 『한국사학보』 65, 고려사학회.

환해장성은 각종 문헌에 '古長城'·'長城'·'萬里長城'이라 나온다. 환해장성이라는 명칭은 1903년~1905년 제주목사 재직의 홍종우(洪鍾宇)가 편찬한 『관풍안(觀風案)』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김석익(金錫翼)이 1918년 편찬한 『탐라기년(耽羅紀年)』에서부터 사용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고지도인 『동여비고』, 『조선강역총도』 등에는 '古長城'으로 표기되어 있다. 환해장성에 대한 문헌기록은 다른 성곽에 비해 극히 적은 편이다.

환해장성이 지금도 제주시 지역인 화북·삼양동, 애월읍 고내리, 조천읍 북촌·신촌·신흥·함덕리, 구좌읍 김녕·동복·행원·한동·평대리 지역에 남아 있다. 또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온평리, 대정읍 일과·영락리, 서귀포시 보목동·남원읍 태흥리 지역에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10곳이 '환해장성'이라는 명칭으로 1998년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9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 가운데 곤을동·별도·애월환해장성은 제주의 대몽항전기 때부터 쌓아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본다. 온평리환해장성은 약 2㎞에 걸쳐 흔적이 확인되고 현 잔존의 환해장성 중 가장 긴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하예동을 비롯한 18군데 비지정문화재인 환해장성이 잔존하고 있다. 이들 환해장성은 적어도 왜선 등 적선(이양선)이 침입 혹은 상륙하기 좋은 곳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모든 해안에 축조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환해장성은 현무암의 자연석을 적당한 크기로 분류해 쌓아놓는 형식으로 축조되었다. 현무암은 대부분 해안가의 천석(파도에 씻기고 닳은 둥글둥글한 돌)을 이용했던 것이다. 때문에 외관상 해안가 밭이나 경계구분의 돌담, 혹은 바닷물 범람 방지의 돌담 등과 식별이 쉽지 않다. 적어도 성곽은 회곽도 혹은 여장의 존재유무에 따라 식별이 가능하다. 높이는 대략 2m 안팎이나, 화북동 경우는 2.8m, 함덕리는 최고 4m의 경우도 있다. 환해장성의 형태는 성 밖은 경사지고 성 안은 높은 것, 또는 성 밖은 경사지고 성 안은 평탄한 것 등의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을 띠고 있음이 확인된다.

환해장성은 제주의 관방시설 가운데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축조 또한 장기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제주도 해안 도처에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 해안에 접근하는 외부세력의 양상과 출몰지역에 따라 설치·보수·증설이 이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곧, 환해 장성은 첫 축조가 13세기 후반 제주의 대몽항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왜구와 이양선의 출몰로 말미암아 1845년 무렵에 이르기까지 수축·신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환해장성은 전부가 해안가와 인접해 있고, 연대는 해안과 200m 내외의 거리에 들어 서 있다. 확인 가능한 36개소 연대 가운데 말등포연대가 해안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가 550m 정도에 달한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거리라 볼 수 있다. 환해장성과 연대가 설치된 곳은 전부 해안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포구도 이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마을에 비해 꽤 규모가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곧, 환해장성과 연대는 지형지세를 보고 적을 막고 방어가 편리한 요해처(要害處)에 만들어졌던 것이다.

현재 환해장성은 수난을 겪고 있다. 해안도로, 양어장, 펜션 등 각종 난개발로 신음을 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 해안경계를 위해 초소로 이용된 사례(행원)도 있다. 이밖에도 관광객들이 해안 돌탑을 쌓는 경우(온평리)도 있다. 해안가에 커피숍, 숙박업소 등이 들어서면서 정원 혹은 테라스로 전락한 예도 있다. 이는 환해장성에 대한 이해가 없어 벌어진 일로 볼 수도 있다. 그

나마 일부 표지판을 세우는 경우가 늘고 있다. 환해장성에 대한 첫 조사는 1991년『탐라문화』에 실린「제주도의 환해장성 연구」(강창언)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1996년에 발간한『제주의 방어유적』(제주도)일 것이다.

● 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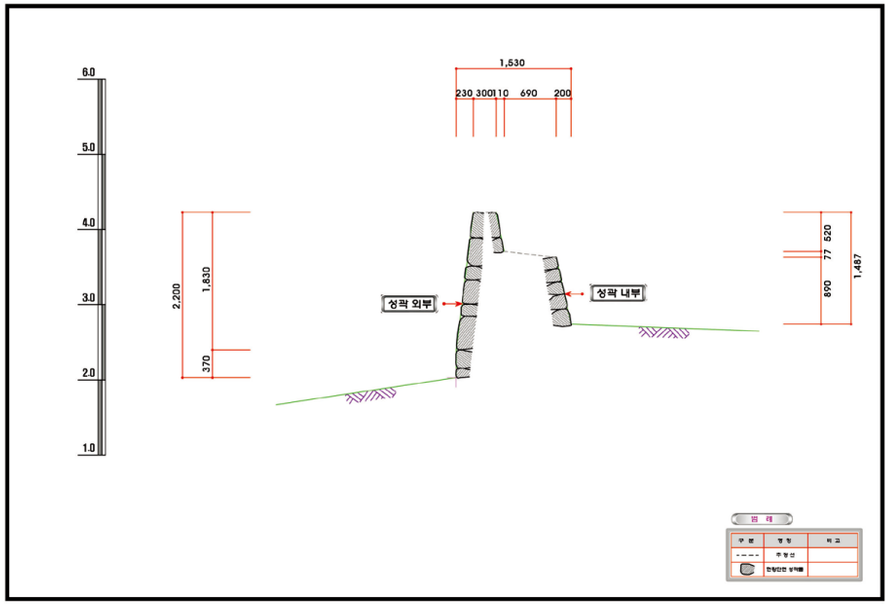
- 김수(金須)와 고여림(高汝霖) 등이 밤낮으로 성보(城堡)를 쌓고 병기를 수리하며 (삼별초군이) 올 만한 길을 끊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자 했으나, 지키는 자들이 우물쭈물 거리면서 (고려 개경정부의 관군과 삼별초 양쪽) 눈치를 봐 힘을 다하지 아니하니, 적(삼별초)이 다른 길로 이른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시중(侍中) 김수가 평소 대의로써 사졸들을 지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감격하여 용기를 백배나 더해 소리치며 다투어 나아가 싸움으로써 적의 선봉을 거의 죽였다. 그러나 토착민들이 적에게 힘을 보태주니, (관군은)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김수는) 고여림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다. [『졸고천백(拙藁千百)』,「김문정공묘지(金文正公墓誌)」;「김태현묘지명(金台鉉墓誌銘)」『고려묘지명집성』]
- 고장성(古長城) 바닷가에 둘러쌓았는데 둘레가 3백여 리이다. 고려 원종 때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진도에 웅거하니, 왕이 시랑(侍郎) 고여림(高汝林) 등을 탐라에 보내 군사 1천을 거느려 방비케 하고 인하여 장성을 쌓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 1601년 10월 12일 병자(丙子) …중략…,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김녕 폐현에 도착 했다.…중략… 바닷가 일대에는 또한 석성을 쌓았는데 길게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다. 섬을 두르면서 곳곳이 모두 그러하다. 탐라 때 쌓은 것으로 만리장성(萬里長城)이라 한다. [『남사록(南槎錄)』]
- 고장성(古長城) 바닷가에 둘러쌓았는데 둘레가 3백여 리이다. 고려 원종 때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진도에 웅거하니, 왕이 시랑(侍郎) 고여림(高汝林) 등에게 군사 1천을거느려 대비케 하였다. 그래서 장성을 쌓았다. 지금 바닷가 간간이 부서진 성, 곧 그것이 남아 있는 터이다.[『남환박물』]
- 장성(長城) 바닷가를 둘러쌓았는데 둘레가 3백여 리이다. 고여림(高汝林)이 삼별초를 막고자 할 때 쌓은 것이다. 지금은 모두 무너지고 허물어졌다. 탐라국 때 또한 장성(長城)이 있었는데 아직도 터가 남아 있다. [『탐라지초본』 권2, 제주「고적(古蹟)」]
- 을사(1845년) 이국선(異國船)이 연안을 순회하기 때문에 환해장성을 새로이 만들었다. [홍종우(洪鍾宇)『관풍안(觀風案)』]
- 여름에 이양선 1척이 우도 앞바다에 정박하였다. 서양인의 모습이 깊은 눈, 높은 코, 푸른 눈동자, 머리털은 양털 같았다. 이들 중 한 사람은 용모와 복장이 자못 달랐으며, 서툴기는 하나 문자를 알았다. 이는 중국인 오아순(吳亞順)이었다. 혹 때때로 포를 쏘면 산악이 울렸다. 작은 배를 던져 내려와 노끈으로 섬을 측량했다. 매번 1백보 정도의 거리마다 돌을 모아 회칠을 하고 쇠못을 그 위에 박으면서 장차 삼읍의 연안을 모두 다 두루하려 했다. 그 까닭을 물으니 산천의 그림을 그리려 한다고 했다. 제주목사 권직(權濯)이 두려워 마병(馬兵)·총수(銃手)·성정(城丁)을 모아 변에 대비했다. 겨울, 환해장성을 수축했다. [『탐라기년(耽羅紀年)』]

1) 곤을동환해장성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49-1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화북1동 4366번지 일대로 화북천과 바닷가와 인접한 곤을동 마을 동편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다. 규모는 길이 140m, 높이 3~3.8m가량 남아있다. 잔존 형태는 회곽도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궁상의 단일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이곳 북쪽은 해안과 인접해 있으며, 북쪽은 초지(임야)로 일부는 정원처럼 조성된 곳이 있으며, 근처 가게에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설물은 환해장성의 의미를 퇴색·왜곡시킬 수 있다.



곤을동환해장성



곤을동환해장성 모식도



곤을동환해장성

2) 별도환해장성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49-2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화북1동 1533-1번지 일대로 화북포구 동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이 환해장성 남쪽에 인접해 별도연대(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3-9호)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서남쪽에 화북진(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56호)이 있다. 2003년부터 복원을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는데, 원형은 사라진 것으로 보이며, 회곽도와 여장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규모는 길이 620m, 높이 2.5m 가량 된다. 복원된 석재는 해안가 바닷가 돌이 아닌 산간의 암반을 쪼개어 만든 석재를 써서 복원하여 과거 제주 문화재 복원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주변에 진성과 연대가 있어 해안방어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별도환해장성



삼양환해장성

3) 삼양환해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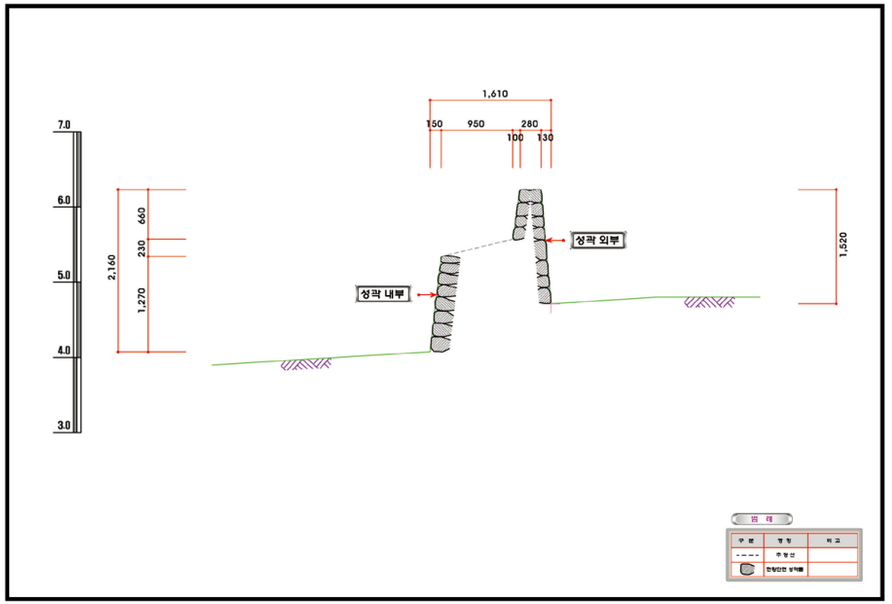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49-3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삼양3동 2622-1번지 일대로 삼양3동 포구 서쪽에 인접해 있다. 삼양3동 마을 북쪽 해안도로에 인접해 있다. 길이 280m, 높이 1.5~2.3m가량의 규모로 일부 무너진 곳이 보이지만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너진 성곽의 단면을 보면, 하단부가 넓고 상단부로 올라갈수 좁아지는 형태다. 외벽과 내벽은 비교적 큰 천석을 이용하고 있으며, 속 채움석은 작은 천석을 이용하고 있다.



애월환해장성

4) 애월환해장성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49-4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947-1번지 일대로 애월항 서쪽에 자라잡고 있다. 환해장성 남서쪽에는 애월연대(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3-17호)가 인접해 있다. 그리고 동쪽의 애월포구와 인접해 애월진(제주도 향토유형유산 19호)이 있다.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길이 360m, 높이 2.5~5m, 기저부 폭이 5m가량 되는 규모로, 다른 환해장성에 비해 규모가 커 보인다. 1991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외벽은 궁형 내벽은 단일경사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진 자료를 보면 회곽도와 여장이 보인다. 여장은 단일 축대로 되어 있다. 재료는 현무암 천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단부는 60×25㎝, 35×25㎝가량되는 큰 암석을 사용하고



애월환해장성 모식도



애월환해장성



북촌환해장성

상단부는 20×25㎝, 18×22㎝가량의 작은 천석이 쌓여져 있다.[55] 환해장성 남쪽 주변은 농경지로 이용되다가 양어장이 들어서 있었다. 지금은 양어장은 없어지고, 택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다.

5) 북촌환해장성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49-5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93-3번지 일대로 북촌리포구 동편에 자리잡고 있다. 주변은 양어장과 숙박업소가 들어서 있다. 규모는 길이 263m, 높이 3.0~3.8m가량 된다. 내벽과 외벽이 단일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55) 강창언, 1991, 제주도의 환해장성연구, 『탐라문화』1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북촌환해장성

6) 동복환해장성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49-6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687-5번지 일대로 동복리포구 동편에 자리잡고 있다. 주변은 해안도로와 근접해 있어 환해장성이 위험스럽게 느껴질 정도다. 규모는 길이 263m, 높이 3.0~3.8m가량 되며, 복원한 흔적이 보인다.



동복환해장성

7) 행원 환해장성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49-7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80-3번지 일대로 해안도로와 인접해 있다. 주변에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이 자리하고 있다. 환해장성은 해안에서 바다쪽으로 뽀족하게 나온 돌출부를



행원환해장성



행원환해장성

따라 길게 만들어져 있다. 주변 포구와는 거리가 있다. 규모는 길이 310m, 높이 1.5~2m 가량 된다.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 해안경계를 위한 초소(석축)로 인해 일부 변형이 이루어져 있다.

8) 한동환해장성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49-8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693-4번지 일대로 해안 돌출부에 자리잡고 있다. 주변은 양어장과 해안도로가 들어서 있다. 규모는 길이 290m, 높이 3.0~3.8m가량 된다. 2000년에 복원한 것으로 원형을 알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한동환해장성

9) 온평 환해장성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49-9호로 지정되어 있고,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66-2(1지점), 693-1(2지점), 1220-2(3지점), 1303-3(4지점)번지 일대로 온평리포구 동편에 자리잡고 있다. 주변은 양어장과 해안도로가 들어서 있다. 규모는 환해장성 중 최대이며, 길이 110m(1지점), 460m(2지점), 930m(2지점), 620m(4지점)이다. 일부 복원한 흔적이 남아 있으나,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과거 관광객들이 작은 돌탑을 쌓은 흔적이 눈에 뜨인다. 회곽도 및 여장 흔적이 남아 있다. 지점마다 조금 다르지만 지형 자체가 성곽내부와 외부가 자연적인 경사면으로 인해 이를 이용해 자연지형인 둔덕이 회곽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환해장성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그리고 성곽 내부와 회곽도를 연결하는 계단시설도 보고되고 있다.



온평환해장성 1지점



온평환해장성 3지점



온평환해장성 4지점

10) 신산환해장성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49-10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성산읍 신산리 49-5번지 일대로 신산리 포구 동쪽에 자리잡고 있다. 주변은 양어장과 해안도로가 들어서 있다. 규모는 길이 600m, 높이 2.0~2.5m가량 된다.



신산환해장성

11) 하예동환해장성

서귀포시 하예동 550번지 일대로 하예동 해안가 논짓물을 중심으로 동서로 늘어져 있다. 도로 및 주택으로 일부 훼손되었지만, 논짓물 서쪽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주변은 농경지와 해안도로가 들어서 있다. 규모는 길이 1,000m, 높이 3.8m, 너비 1.5m가량 된다. 회곽도와 여장시설도 확인된다. 2021년 하예동 697-1번지의 환해장성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기저부만 남아



하예동환해장성

있었으며, 조사결과 성벽의 잔존 폭은 1.4m로 확인되고, 성벽과 관련된 기단석렬 일부가 확인되었다. 성벽 기저부의 축조방식은 납작한 현무암 석재를 이용하여 지표면을 정리하고 상부에 할석을 쌓는 방식이다. 성벽 내외면

가장자리에 50㎝ 내외의 석재를 1~2단 정도 기반석재로 사용 후 그 위에 작은 할석을 쌓고, 그 안에는 잡석 채움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56]

12) 태흥리환해장성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785번지(1지점), 1827-3번지(2지점)번지 일대로 태흥1리 포구 서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안도로와 인접해 있다. 일부 허물어지긴 했으나 잘 남아 있



태흥리환해장성 1지점



태흥리환해장성 2지점

56)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21,『제주 하예동 유적』.

다. 1지점은 민가 진입로와 카페로 인해 훼손되어 있다. 2지점은 주변에 양어장이 들어서 있다. 잔존길이는 230m가량 된다.

13) 보목동환해장성

서귀포시 보목동 260-7번지 일대로 보목 포구 동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안도로와 인접해 있다. 잔존길이는 60m가량 된다.



보목동환해장성

14) 토평동환해장성

서귀포시 토평동 433-4번지 일대로 보목동 구두미포구 서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안소로와 인접해 있다. 잔존길이는 50m가량 된다. 거의 파손되어 밭담 경계로 쓰이고 있는 편이다.



토평동환해장성



강정동환해장성

15) 강정동환해장성

서귀포시 강정동 753번지 일대로 서건도 후면에 자리잡고 있다. 만이 형성되어 있어 조선시대 수전소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잔존길이는 125m가량 된다.

16) 일과리환해장성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286번지 일대로 일과리 포구 동쪽 자리하고 있다.

인근에 서림연대(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3-22호)가 있다. 해안도로 건설 및 주택단지 조성으로 대부분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잔존길이는 50m가량 된다.



일과리환해장성

17) 하도리 환해장성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95번지 일대로 하도리 포구 동쪽, 굴동포구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서쪽에 진성인 별방진(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4호)이 위치한다. 해안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주변은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잔존길이는 100m가량 된다.



하도리환해장성

18) 평대리환해장성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515-11번지 일대로 평대리 포구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해안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주변은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잔존길이는 400m가량 된다.



평대리환해장성

19) 월정리환해장성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730번지 일대로 월정리 포구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해안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와 양어장이 있다. 잔존길이는 60m가량 된다.



월정리환해장성

20) 함덕리환해장성


함덕리환해장성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283-3번지 일대로 함덕리 포구와 마을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남쪽에 함덕연대(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3-15호)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해안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와 양어장이 있다. 잔존길이는 150m가량 된다.

21) 조천리환해장성


조천리환해장성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28번지 일대로 조천리 포구와 마을 동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서남쪽에 조천연대(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3-15호)와 조천진(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68호)이 위치해 있다. 해안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해안 돌출부에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다. 주변은 자연 해안초지와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다. 잔존길이는 200m가량 된다.

22) 신흥리환해장성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76번지 일대로 포구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해안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해안 돌출부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은 자연 해안초지가 형성되어 있다 잔존길이는 50m가량 된다.


신흥리환해장성

23) 신촌리환해장성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375번지 일대로 마을포구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과 인접해 있다. 주변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잔존길이는 90m가량 된다.



신촌리환해장성

24) 고내리환해장성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233번지 일대로 마을포구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해안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해안 돌출부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은 양어장이 조성되어 있다. 무너져 있는 곳이 있지만 비교적 잔존 상태가 양호하다. 회곽도와 여장시설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 둔덕으로 지형은 외벽쪽으로 경사면을 이루면서 내려간다. 잔존길이는 300m가량 된다.



고내리환해장성

25) 귀덕리환해장성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082번지 일대로 마을포구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해안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해안 돌출부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은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일부 무너져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양호한 잔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회곽도와 여장시설이 남아 있다. 아울러 배수구도 확인되는데, 다른 환해장성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시설물이다. 잔존길이는 100m가량 된다.



귀덕리환해장성

26) 수원리환해장성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1014번지 일대로 마을포구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해안 돌출부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자 조성되어 있다. 잔존길이는 100m가량 된다.



수원리환해장성

27) 금능리환해장성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609-1번지 일대로 포구 서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안돌출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주변은 자연 해안초지가 형성되어 있다. 잔존상태는 무너져 있긴 하지만 양호한 편이다. 회곽도 시설도 보인다. 잔존길이는 100m 가량 된다.



금능리환해장성



월령리환해장성

28) 월령리환해장성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42번지 일대로 월령리포구와 마을 동쪽과 인접해 있다. 자연 해안초지가 형성되어 있다. 잔존상태는 무너져 있긴 하지만 양호한 편이다. 회곽도 시설도 보인다. 환해장성은 높이 1.5~2m, 폭은 1.2m, 잔존길이는 130m 가량 된다.

환해장성은 입지적인 형태가 해안의 돌출부, 마을포구, 연대 혹은 해안진성과 비교적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왜선 혹은 적선에 대한 근접방

어의 목적도 있지만, 적이 해안 상륙을 시도하려 할 때 위협적인 시각적 요소가 되도록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환해장성은 고지도에 고장성(古長城)으로 표기되어 있다. 17세기 후반에 제작된『동여비고(東輿備攷)』와 18세기에 제작된『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叢圖)』에는 3군데가 표기되어 있는데, 제주시 지역인 애월리, 화북~삼양동, 행원~하도리 지역이다. 17세기 후반에 제작된『지나조선고지도(支那朝鮮古地圖)』와 18세기에 제작된『고지도첩(古地圖帖)』「탐라전도(耽羅全圖)」에는 4군데가 표기되어 있는데, 제주시 지역인 화북~삼양동, 행원~하도리, 애월리, 옹포~월령리 지역이다. 고장성 주변에는 해안의 포구 및 진성 등이 표기되어 있다. 이를 보면 제주도 북부지역인 한림-애월-별도(화북/삼양)-행원-별방(하도)까지 환해장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환해 장성은 대부분 제주도 북쪽해안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정부가 방어체계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는 측면을 본다면 환해장성의 증축 혹은 수축이 가속화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회곽도와 여장시설은 환해장성 축조시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래서 회곽도 혹은 여장시설이 일부만 있거나 아예 없는 환해장성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지정문화재로 관리되는 환해장성도 있지만, 비지정문화재로 위험에 노출된 환해장성도 있다.[57] 이는 각종 개발과 관련해 이루어진 경우가 숱하다. 앞으로는 개발과 보존이 상충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양자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여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얼마전부터 현상변경시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고 있다. 그래도 문화재 추가 지정 혹은 향토유형유산 등록 등 문화재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7) 문화재청·제주시문화예술과·제주흥사단문화유산답사회, 2014,『사라져 가는 제주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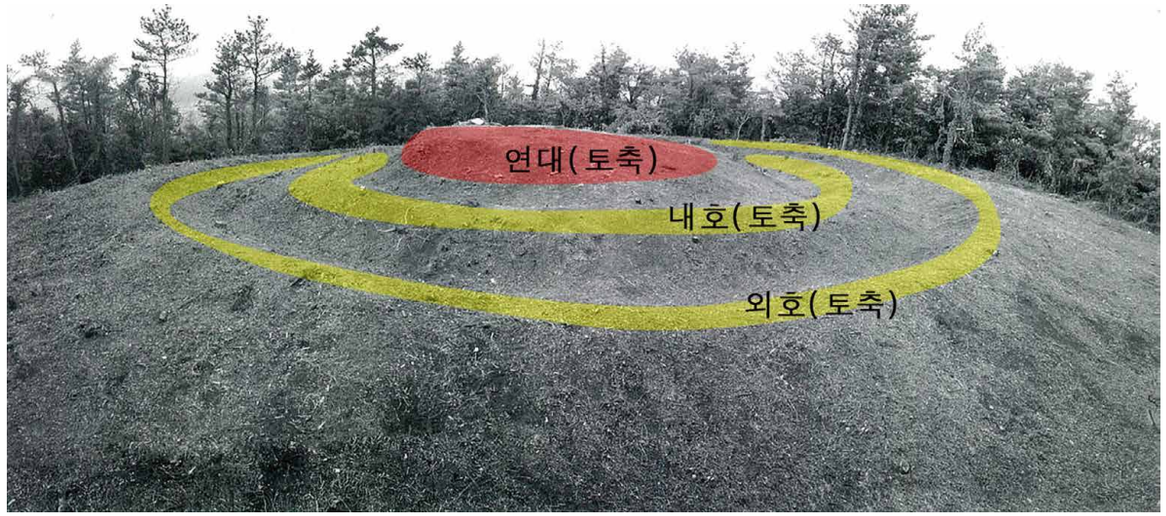
III. 봉수와 연대

1. 봉수(烽燧)

봉수는 연대와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살펴보며 경계하고, 이를 알리는 군사통신시설이다. 봉수는 조선시대 군사통신수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기간통신망으로 운영하던 봉수제(烽燧制)가 마련되어 있었다. 봉수는 높은 산이나 해안구릉에 올라가서 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 곧 봉화로 군사적 위협 등의 사실을 신호· 연락했던 시설인 것이다. 이들 봉수가 제주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오름, 곧 기생화산의 정상부에 봉수대가 설치되었다.

봉수는 중국의 주(周) 나라로부터 유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봉화가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기는 하나, 군사적인 수단과 목적으로 설치되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것은 고려시대가 들어설 무렵으로 보고 있다.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봉수제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나아갔다. 그래서 성종 2년(1471) 반포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기재됨으로써 봉수제의 법제화가 완결되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봉수는 평상시에는 1개, 적이



제주 봉수의 구조(토산봉수)

나타나면 2개, 경계에 접근하면 3개, 경계를 범하면 4개, 맞붙어 싸우게 되면 5개를 올리되, 서울에서는 오원(五員)이 본조에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오장(伍長)이 진장(鎭將)에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만일,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어서 연락을 할 수 없을 때는 봉졸(烽卒)들이 차례로 달려가 보고했다. 또한 봉군(烽軍)은 다른 군역에 종사할 수 없었다.

제주의 첫 봉수도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다. 『고려사』 권32, 「세가」(충렬왕 28년 12월)에 '고려가 탐라 등의 요해처에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 군사를 파견하는 한편, 봉수도 설치했다.'고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보면, 제주에도 봉수가 1302년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위치와 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주 봉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선시대에 들어서 비로소 드러난다. 이는 세종21년(1439) 제주도안무사 한승순이 올린 장계로부터 비롯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주에는 1439년에 이미 22개소의 봉수가 설치·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이 나온다. 한승순은 '봉화와 척후하고 망보는 것이 제주의 동쪽 김녕에서 제주의 서쪽 판포까지 10곳, 대정현 서쪽 차귀에서 동쪽 거옥까지 5곳, 정의현 서쪽부터 북쪽 지말산까지 7곳'이라고 조정에 보고했던 것이다. 이밖에도 그 장계에는 봉화가 있는 곳에 5인씩 배치함과 아울러, 망보는 사람에게 무기와 깃발·뿔고동을 가지고 올라가게 해 적변(賊變)이 있으면 봉화를 들어 알리는 등의 통보, 더 나아가 방비책까지 서술되어 있다. 제주는 15세기 전반 이전에 이미, 봉수제가 체계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봉수는 15세기 이전부터 제주목을 중심에 두고, 대정현과 정의현을 거치고서 동·서 방향을 따라 일주하는 22곳에 봉수가 설치되었다. 이들 22개소 봉수는 성종 12년(1481) 편찬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책에는 15세기 후반 무렵, 제주 삼읍에 설치·운영되던 23개소 봉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목 소속의 사라악(沙羅岳)·별도(別刀)·원당악(元堂岳)·입산(笠山岳)·도도리악(道道里岳)·수산악(水山岳)·고내악(高內岳)·판을포(板乙浦)의 8개소 봉수, 정의현 소속의 남산(南山)·오음사지악(吾音沙只岳)·여을온(餘乙溫)·소수산(小水山)·지말산(只末山)·달산(達山)·토산(兎山)·전월론(餞月論)·호아촌(狐兒村)·삼매봉(三每陽)의 10개소 봉수, 대정현 소속의 송악(松岳)·모슬악(毛瑟岳)·차귀악(遮歸岳)·굴산(堀山)·거옥악(居玉岳)의 5개소 봉수이다. 아마도 이들 23개소 봉수는 한승순의 장계에 나오는 22곳 봉수와 겹치며, 그 장계가 나온 세종21년(1439) 이후 하나가 더 늘어나 보태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봉수가 전부 기생화산, 즉 오름에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판포봉수처럼 포구에 설치된 군사통신시설도 봉수라 명명한 것으로 볼 때, 15세기 후반 무렵에는 봉수와 연대의 구분이 없었던 것 같다. 이때도 각 봉수는 알릴 일이 생기면, 동·서로 연락하여 영문(營門)에 도달케 하였다. 그래서 각 봉수는 서로 호응하는 상응봉수(相應烽燧)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봉수가 17세기 중반 무렵에 이르러서는 25개소로 늘어났다. 이는 효종 4년(1653) 이원진(李元鎭) 편찬의 『탐라지(耽羅志)』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 무렵의 각 봉수에는 감관(監官) 1인과 망지기 2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2명씩 번을 갈면서 5일간 망을 보았다.

18세기 초반에는 봉수의 운영이 매우 철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형상(李衡祥)이 제주목사를 지내면서 자료를 취합·서술한 뒤, 숙종 30년(1704) 편찬한 『남환박물(南宦博物)』에 여실히 드러난다. 이를 보자면, '외적의 동태와 그에 따른 대응상황을 밤에는 횃불로 하고, 낮에는 연기로 알려 대응하는데 감히 착오나 오류가 없다.'고 했다. 또한 '만약 구름과 안개로 어두운 때를 만나면 구전(口傳)으로 서로 보고한다.'고 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봉수가 18세기 후반에 편찬한 『탐라방영총람』에는 24개소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나온다. 종전의 25개소에서 1개소의 봉수가 철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봉수가 1765년경에 편찬한 『증보탐라지』와 1785년에 편찬한 『제주읍지』

에는 다시 25개소에 설치되었음이 나오고 있다. 정의현 소속의 수산봉수(水山烽燧)는 새로이 다시 설치되었음도 드러난다. 이로써 제주 봉수는 18세기 후반기에 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완성단계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5개소 봉수[58] 가운데 대정현 소속의 모슬봉수가 폐쇄되었다. 이는 제주목사 이원조가 헌종 8년(1841)경 편찬한 『탐라지초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 대정현 소속의 5개소 봉수 가운데 모슬봉수는 찾아볼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봉수가 19세기 전반부터 24개소의 봉수가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봉수의 기능과 그 효용성은 통신시설의 근대화에 따라 상실된다.

봉수의 설치 지역을 보자면, 현재 확인되는 25곳 봉수 가운데 22개소가 해발 200m 이하의 해안지대, 3곳 봉수, 곧 만조·호산·자배봉수가 200m 이상의 중산간지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들어서 있기도 하다. 봉수는 대개가 봉군이 쉽게 오를 수 있으며, 멀리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특색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 봉수는 상응봉수와의 거리가 대부분 10㎞ 미만이다. 이는 한반도 육지부 봉수의 경우, 봉수와 봉수가 서로 응하는 거리가 보통은 30~40리, 멀게는 70리가 되는 것에 비해, 매우 가까운 편이다. 제주의 봉수는 상응봉수와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도 제주 봉수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의 봉수는 대체적으로 오름 정상부에 2중의 방화벽 기능의 원형으로 축조된다. 정상부에 연대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것이 있었다고 보이는 봉수도 일부 있기는 하나, 확실치 않다. 드물게 방형을 띠고 있는 경우도

58) 현재 25개 봉수로 알려져 있지만, 한라산 중턱의 한라산 봉수(왕관릉)도 있었다고 한다. 『증보탐라지』의 봉수·연대조에 '한라산 중봉에 예전에 봉수대가 있어 추자도 봉수와 보길도 봉수 및 관두량 봉수와 서로 변고를 알렸는데, 바다가 어두우면 서로 준거할 수 없어 혁파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한편, 고지도 『탐라순력도』, 『해동지도』, 『탐라지도병서』 등)에 '연대(煙臺)'로 표기되어 있다.
고재혁, 2021, 『조선전기 제주해안방어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보이는데 호산봉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규모는 직경 30m정도가 평균치로 보이나, 가장 적은 것은 직경 11m, 가장 큰 것은 직경 45m정도에 달함도 확인할 수 있다.

토산봉수와 만조봉수 조사에서 정상부에 연대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적어도 연대(망대)의 역할을 했을 축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석축을 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조봉수의 경우 정상부에 일부 평탄면이 보이고 정상부 주변에 무덤의 산담을 보면 치석 흔적이 있는 석재들을 볼 수 있는데, 봉수제가 폐지된 이후 무덤의 부속시설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육지부 울산의 천내(川內)봉수의 예를 보면 2중의 호를 두르고 정상부에 석축의 연대가 있는데, 육지의 연변봉수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이다.[59]

봉수의 경우도 22개소가 해발 200m 이하 해안지대의 오름에 설치되었고, 200m 이상의 중산간지대에 자리잡은 만조·호산·자배봉수의 3개소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오름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또한 해안지대의 마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봉수뿐만 아니라, 연대와 환해장성도 제주 해안에 접근하는 외부세력의 양상과 출몰지역에 따라 신축 · 보수 · 증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 만큼, 제주의 봉수·연대가 설치된 것은 해안 일대 외부세력의 진입 상황 등과 관련한 동정과 동향을 살피고, 이를 알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 지역의 연대와 봉수의 분포상을 보자면, 동·서로 걸친 이들의 배치 간격이 너무 빽빽하다는 감이 든다. 또한 연대와 봉수에는 각각 봉군(烽軍)

59) 김주홍, 2011, 『조선시대 봉수 연구』, 서경문화사



왕가봉수 원경

과 연군(煙軍)이 배치되었음에도 제주의 연대와 봉수가 역사적으로 군사적 기능을 행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편이다. 이에 연대·봉수의 설치와 운영은 군사적 기능 외의 다른 역할에 활용되지 않았을까 한다.[60] 봉수가 있는 오름은 제주도 주민들에게는 '망오름'으로 불리웠고, 고지도에도 ○○望으로 표기된 예가 많다.

1) 왕가봉수(往可烽燧),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793-2번지 일원의 사구 상에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5m 정도로 낮으나 해안방면으로는 다소 표고차가 있어 해안일대가 넓게 조망되는 곳이다. 따라서 주변으로는 높은 곳 없이 트여 있어 동쪽의 입두연대, 서쪽의 좌가연대와 교신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다.

60) 김일우, 2016, 앞의 논문, 308~309쪽

왕가봉수는 조선시대 별방진(別防鎭) 소속이었고 별방진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8.39km), 제주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75리(41.93km)에 있었다. 1653년에 편찬한 『탐라지』에 따르면 왕가봉수는 동쪽으로 정의현(旌義縣) 지미봉수와 서쪽으로 입산봉수와 연락을 취하였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왕가봉수는 동쪽으로 입두(笠頭)연대와 서쪽으로 좌가마(佐可馬)연대와도 교신하였다.

왕가봉수는 모래 기반 위에 원형으로 축조됐다. 하부직경 11m, 상부직경 3m, 왕가봉수 터가 있었던 곳은 현재 나무와 잡풀이 우거져 있다. 특히 봉수대의 흔적으로 반경 주위에 돌들이 드문드문 확인되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근래에 경작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봉수터가 있던 곳을 깎아 밭을 일구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왕가봉수의 원형을 찾아 볼 수 없다. 현재 왕가봉수에는 표지석이 엎어진 채 놓여 있는데 원래의 자리에서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한다. 원래의 자리는 현 위치에서 동쪽으로 20~30m 정도의 지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왕가봉수는 일반적으로 봉수대에 축조되는 하부의 이중둑이 없어서 주위 지반보다 높고 둥그렇게 모래를 3.5m 높이로 쌓고 나서 봉수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26×38cm, 34×23cm 크기의 작은 돌을 하부에서 상부까지 다져 놓았다. 이러한 축조방식은 봉수대 중에서 왕가봉수대에서만 찾아 볼 수가 있다.[61] 현재는 경작지로 조성되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왕가봉수의 축조 시기는 『탐라지(耽羅志)』(1653년)의 제주목에 '왕가(往可)봉수'라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효종 4년(1653)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61) 제주도, 1996, 『제주의 방어유적』



입산봉수 원경

2) 입산봉수(笠山烽燧)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043번지 일원 입산봉에 자리하고 있다. 입산봉은 김녕해수욕장에서 남쪽으로 1.1km 떨어진 해발 82m의 오름으로 봉수는 남동쪽 봉우리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입산봉수는 조선시대 별방진(別防鎭)에 소속된 봉수이며 별방진으로부터 서쪽으로 35리(19.57km), 제주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55리(30.75㎞)에 있었다. 입산봉수의 봉수노선은 조선전기『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 따르면 서산봉화와 응하였고, 이후『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가 간행될 무렵에는 서쪽의 서산봉수가 폐지되면서 원당봉수와 연락하였고 서쪽으로는 지말산봉수(只末山烽燧)와 응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탐라지(耽羅志)』(1653년) 기록 이후부터는 동쪽으로는 신설된 왕가봉수(往可烽燧), 서쪽으로는 복설(復設)된 서산봉수(西山烽燧)와 교신하였다. 그리고『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입산봉수는 동쪽으로 무주(無注)연대와도 교신하였다.

현재 봉수터는 입산봉수의 형태 및 규모 확인은 어렵다. 왜냐하면 입산봉수가 있었던 곳에는 김녕마을 공동묘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동쪽 정상 봉수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는 시멘트 담이 있는 비교적 큰 묘가 있다. 입산봉수터에는 표지석이 반대편 능선에 잘못 세워져 있다. 입산봉수의 축조시기는 조선전기『세종실록지리지』의 제주목에 서산봉화는 동쪽으로 입산(笠山)봉화와 응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에도 '입산오름 봉수'라는 기록이 보인다.

3) 서산봉수(西山烽燧)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와 북촌리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111m의 서우봉 정상으로부터 해안선에 접한 해발 86m의 북쪽 봉우리에 위치한다. 봉수가 위치한 곳이 도로에 접한 해안 인근 오름이므로 접근하는 길은 마을 사이 좁은 소로를 지나 등산로(올레길 19코스)를 따라 봉수대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서산봉수는 조선시대 조천진(朝天鎭)에 소속된 봉수이며 조천진으로부터 동쪽으로 12리(6.71km), 제주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40리(22.36km)에 있었다. 서산봉수는『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 따르면 서산봉수는 동쪽



서산봉수 터

으로 입산봉화와 응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 『탐라지(耽羅志)』(1653년) 이후부터는 복설(復設)되었고 동쪽으로 입산봉수와 서쪽으로 원당봉수와 연락을 취하였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서산봉수는 서쪽으로 함덕연대와도 교신하였다.

현재 봉수대가 있던 자리에는 전투경찰부대 레이더기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봉수는 이로 인하여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서산봉수의 축조시기는 조선전기 『세종실록지리지』의 제주목에 '서산(西山)봉화'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4) 원당봉수(元堂烽燧)

제주시 삼양1동 700-4번지 일원 원당봉의 북쪽 작은 봉우리(알오름)에 위치하였다. 우측 길인 남사면의 중턱에는 불탑사 오층석탑(보물 1187호)이 세워진 불탑사(원당사지)가 자리하고 있다.

원당봉수는 조선시대 제주목(濟州牧) 소속이었으며, 제주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11.18km) 떨어져 있다. 원당봉수는 조선전기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 따르면 동쪽으로 서산봉화, 서쪽으로 별도봉화와 응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 『탐라지(耽羅志)』(1653년) 이후부터는 동쪽으로 서산봉수(西山烽燧), 서쪽으로 사라봉수와 연락을 취하였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조천(朝天)연대와도 교신하였다.

원당봉수 서쪽으로는 별도연대와 화북진(禾北鎭), 사라봉수가 육안으로



원당봉수 원경

잘 보이고 있다. 또한 원당봉수에서 동쪽으로 서산봉수도 마찬가지이다.

원당봉수는 2중의 원형 토축인 큰 테두리(외호) 안에 하나의 작은 테두리(내호)가 중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당봉수는 북쪽의 작은 봉우리에 중심부에서 내호(內壕, 토축) 반경 11m, 외호(外壕, 토축) 반경 13.5m의 거리에 2중의 원형 토축으로 큰 규모의 외호를 축조하여 자연적인 공간인 외부와 인공적 공간인 봉수대를 구분하였다. 외호(토축)의 둘레는 약 42m이다.

현재는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넝쿨과 잡목이 우거진 상태이다. 때문에 원형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정상부에 '원당유적비(元堂遺跡碑)'가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정상부에는 원형(1.5×2m)의 돌담이 보인다. 원당봉 서쪽 봉우리에 '원당봉수대터' 표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원당봉수의 축조시기는 『세종실록지리지』의 제주목에 '원당(元堂)봉화'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5) 사라봉수(紗羅烽燧)

제주시 건입동 387-1번지의 사라봉 정상에 있는 망양정(望洋亭)의 북쪽에 있었던 봉수이다. 사라봉은 구제주시권의 동쪽 해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발 높이가 184m이다. 동쪽에는 별도봉이 연봉을 이루고 있다. 서사면에 비해 다소 완만한 동사면의 정상부에 봉수가 복원되어 있다.

사라봉수는 제주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2.80km)에 있는 사라봉에 있었다. 사라봉수는 제주읍성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봉수였다. 사라봉수는 서쪽으로 도원봉수, 동쪽으로 별도봉수와 응하였지만, 별도봉수가 폐지



사라봉수 원경

된 이후부터는 동쪽으로 원당봉수와 신호를 주고받았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사라봉수는 동쪽으로 별도연대와 서쪽으로 수근연대와도 응하였다.

사라봉수의 형태 확인은 불가능하다. 다만 사라봉 정상에는 망양정(望洋亭)이라는 정자를 세워 바다와 시내를 동시에 전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때 통신수단으로 사용했던 봉수를 1989년에 해체·보수하여 돌로 쌓은 연대(烟臺) 형태로 복원하였다. 현재 봉수의 규모는 장축 9.25m, 단축 7.42m, 높이 3.4m이며, 장방형 석축으로 복원된 것이다. 제주지역의 대다수 봉수는 거의 흙을 쌓아 만든 원형(圓形) 봉수대였다. 따라서 봉수대에

있어야 할 내호(內壕, 토축)와 외호(外壕, 토축)는 정밀조사 없이 석축으로 복원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사라봉수 복원

봉수의 축조시기는 조선전기『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의 제주목에 '사라오름 봉수'라는 기록과 신증(新增)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성종 12년(1481)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6) 도원봉수(道圓烽燧)

제주시 도두동 산3번지 일원인 해발 65m의 도두봉 정상에 있었던 봉수터이다. 현재 도두봉에는 여러 갈래의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찾고 있다. 남사면에는 관음정사가 자리하고 있다.

도원봉수(道圓烽燧)는 원래 조선시대 제주목(濟州牧) 소속이었고 제주읍성으로부터 서쪽으로 17리(9.50km)에 있었다. 조선전기『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 따르면 동쪽으로 별도봉화(別刀烽火), 서쪽으로 수산봉화(水山烽火)와 응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탐라지(耽羅志)』(1653년) 이후부터는 줄곧 동쪽으로 사라(紗羅)봉수, 서쪽으로 수산(水山)봉수와 연락을 취하였다.『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도원봉수는 동쪽으로 수근포(修近浦)연대와 서쪽으로 조부포(藻腐浦)연대와도 교신하였다.


도원봉수 원경

도원봉수의 형태 확인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도두봉에 굴을 파고 도두포구에 있는 '오래물'을 끌어다 군용비행장에 급수하려고 설치했던 물탱크의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로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도원봉수에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고 정상부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도원봉수 터

도원봉수의 축조시기는 조선전기『세종실록지리지』의 제주목에 '도도리오름(道道里山) 봉화'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7) 수산봉수(水山烽燧)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산1-12번지 일원에 자리한 해발고도 121m의 수산봉(水山峰) 정상에서 북쪽 끝자락에 있다. 남동사면을 따라 대원정사에서 정상부의 전투경찰 경비소까지는 시멘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수산봉수는 조선시대 제주목(濟州牧)에 소속된 봉수이며 제주읍성(濟州邑城)에서 서쪽으로 30리(11.18km)에 있었다. 조선전기『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 따르면 동쪽으로 도도리산봉화(道道里山烽火 즉 道圓烽燧), 서쪽



수산봉수 원경



수산봉수 터

으로 고내봉화(高內烽火)와 응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선은 조선시대 내내 유지되었다.『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조부(藻腐)연대와 남두(南頭)연대와도 서로 교신하였다.

수산봉수대가 있었던 수산봉 정상에는 전투경찰 경비소가 있다. 그 옆에 안테나가 세워진 자리에는 반경 10.5km, 높이 1.5m의 원형(圓形)으로 된 두둑한 토단(土壇)이 있을 뿐이지만, 철책으로 보호하고 있음과 함께 두둑한 상부 토단(土壇)을 전투경찰 경비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남아있는 원형토축의 규모는 직경 14.2m, 높이 1.5m 가량 된다.

수산봉수의 축조시기는 조선전기『세종실록지리지』제주목에 '수산(水山)봉화'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만든 것으

로 보인다.

8) 고내봉수(高內烽燧)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산3-1번지 일원인 해발고도 175m의 고내봉(高內烽) 정상부 북측에 자리한다. 봉수가 자리한 곳은 편의시설인 의자가 놓여져 있으며, 인접해 비포장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고,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동편에 휴대폰 기지국으로 쓰이는 컨테이너 시설과 철탑이 설치되어 있다.

고내봉수는 조선시대 애월진(涯月鎭) 소속이었으며 애월진으로부터 3리



고내봉수



고내봉수 원경

(1.68km), 곧 제주읍성으로부터 서쪽으로 37리(20.68km)에 있었다. 조선전기『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 따르면 동쪽으로 수산봉화(水山烽火), 서쪽으로 곽산봉화(郭山烽火)와 응하였고 중종 25년(1530)『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발간 무렵에는 서쪽의 곽산봉화가 폐지되면서 판을포오름(板乙浦岳)봉수에 응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탐라지(耽羅志)』(1653년) 이후부터는 동쪽으로 수산봉수(水山烽燧), 서쪽으로 도내봉수(道內烽燧)와 연락을 취하였다.『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고내봉수는 동쪽으로 남두(南頭)연대, 서쪽으로 애월(涯月)연대와도 교신하였다.

고내봉수는 토축(土築)한 외겹 원형(圓形) 봉수대이다. 중앙부에 움푹 패인 원형 토축(내호)이 있고 주변에 호(壕)로 보이는 토단(외호)이 일부 확인된다. 기존의 보고에 의하면 이곳이 봉수터이나 이곳에서 북쪽으로 인접한 곳에 현재 원형의 둔덕에 호(壕)와 같이 원형으로 둘러싸인 토축이 확인되고 있다. 정상부의 토축부에는 경사면을 깎아 주변으로 석축한 흔적도 일부 확인된다. 이곳은 경사면으로서 토단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정상부 토축 가장자리에 석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상부 토축은 직경은 13.5m이다. 내호와 외호(토축)의 높이는 1.3m가량이며 내호와 외호의 도랑 간격은 1m가량이다. 도랑을 파낸 후 토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봉수의 외호는 원형에 가까운데 전체직경이 41.23m이며 전체면적이 1,215㎡이다. 동서방향은 비교적 능선에 위치해 있어 완만한 경사면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반면, 남북방향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봉수의 서쪽 바깥 테두리로 직경 2m 가량의 구덩이가 확인되는데 연조시설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내봉수의 축조시기는 조선전기『세종실록지리지』제주목에 '고내(高內)봉화'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9) 도내봉수(道內烽燧)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1149-28번지에 자리한 해발고도 143m의 어도오름 서쪽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오름의 동사면을 따라 감귤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서사면에는 일부 경작지를 비롯하여 삼나무와 소나무숲이 자리하고 있다. 봉수터는 숲과 과수원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다.



도내봉수 원경

도내봉수는 조선시대 명월진(明月鎭) 소속이었고 명월진으로부터 동쪽으로 21리(11.74km), 제주읍성으로부터 서쪽으로 54리(30.19km)에 있었다. 조선전기『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따르면 고내(高內)봉수와 판포(板浦 또는 板乙浦岳)봉수 사이에 있던 곽산(郭山)봉수가 폐지되면서 동쪽 고내봉수에서 바로 서쪽 판을포악(판포)봉수와 연락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효종 4년(1653)『탐라지』발간 무렵 신설된 도내봉수는 이후부터 동쪽으로는 기존의 고내봉수와 응하였지만 서쪽으로는 판포봉수가 아닌 만조(晩朝)봉수와 응하였다. 이는『탐라지』에 본래 '판포오름에 있다가 만리(晩里)로 옮겼다'라는 기록과『남사일록(南槎日錄)』에 판포(板浦)봉수 대신 만조

(晩早)봉수의 명칭이 등장함을 볼 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효종 4년 이전부터 판포오름(널개오름)에 있던 봉수대를 만조오름(느지리오름)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내봉수는 『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도내봉수는 동쪽으로 귀덕(歸德)연대, 서쪽으로 우지(牛池)연대와도 교신하였다고 한다.


도내봉수 터

도내봉수대는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원형(圓形)으로 흙을 쌓았으며 전체 규모는 반경 21m, 둘레 66m, 높이 1.7m 정도이다. 봉수대의 형태는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나 정상부분에 120×160cm의 무릎 정도 깊이로 네모난 구덩이가 파여 있고, 북쪽 방향에 이장한 묘와 산담이 바깥 둑까지 남아 있다.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서 전체적인 형태나 규모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도내봉수의 축조시기를 살펴보면, 조선후기 『탐라지(耽羅志)』(1653년)의 제주목에 '도내(道內)봉수'라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효종 4년(1653)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10) 만조봉수(晩早烽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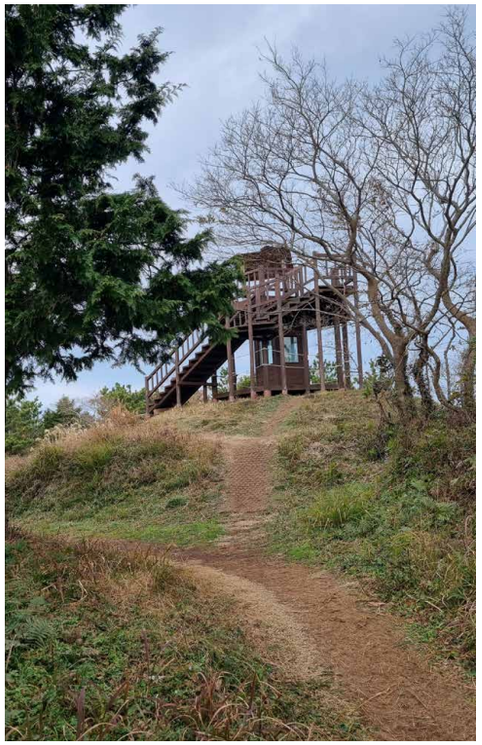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산 5번지 일원에 자리한 해발 225m의 느지오름(일명 망오름)의 정상부 북측에 있다. 오름의 사면에는 소나무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남사면을 따라 정상부까지 계단식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정상부에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봉수 주변으로 잡목과 덤불이 들어서 있어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힘들다.

만조봉수는 조선시대 명월진(明月鎭) 소속이었으며 명월진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2.80km), 제주읍성으로부터 서쪽으로 81리(45.28km)에 있었다. 조선후기 효종 4년(1653) 『탐라지』이후부터 동쪽으로 도내(道內)봉수, 서쪽으로 대정현(大靜縣) 당산(堂山) 봉수와 연락을 취하였다. 『증보탐라지


만조봉수 원경

(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만조봉수는 서쪽으로 배령(盃令) 연대와도 교신하였다.

만조봉수대는 중심부에서 둑을 돌아가면서 2중으로 쌓았다. 그 사이에 고랑을 만들어 다시 한 단을 높게 둥근 봉우리 모양으로 흙을 쌓았다. 만조봉수는 이중으로 된 외연의 둑 둘레가 56m가량 된다. 일부 오름 탐방로 길이 관통하고 있다. 봉수대 정상부에는 목조 전망대를 만들었다. 정상부 봉수대 하단부에 할석이 일부 확인되는데, 봉수대의 기저부 시설물로 여겨진다.


만조봉수 터

만조봉수의 축조시기는 조선후기 『탐라지(耽羅志)』(1653년)의 제주목에 본래 판포오름에 있다가 '만리(晩里)로 옮겼다'라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효종 4년(1653)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11) 수산봉수(水山烽燧)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039번지 일원에 자리한 해발 137m의 대수산봉에 위치한다. 봉수대 남서쪽으로는 독자봉과 남산봉, 달산봉이 있고 북쪽으로는 성산일출봉과 지미봉, 그리고 북서쪽으로는 수산진(水山鎭)이 자리한다. 수산봉수는 제주도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수산봉수는 조선시대 수산진(水山鎭) 소속이었고, 정의읍성에서 동쪽으로 30리에 있었다. 수산봉수의 봉수노선은 조선전기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 따르면 북쪽으로 지말산(只末山)봉화와 서쪽으로 악사지(岳沙只)봉화와 응한다고 하였다.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는 소수산(小水山)봉수는 동쪽으로 지말산봉수, 서쪽으로는 현재 성산읍 온평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을온(餘乙溫)봉수와 응하였다. 하지만 『탐라지(耽羅志)』(1653년)부터 『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까지는 서쪽 여을온(餘乙溫)봉수가 폐지되고 동쪽에 성산(城山)봉수가 신설되면서 동쪽으로 성산봉수, 서쪽으로 독자(獨子)봉수와 교신하였다.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66~1800년)이후부터는 봉수대를 기존 소수산오름(小水山烽燧)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대수산오름(큰물뫼, 首山烽燧)으로 옮겼으나 대응 봉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봉수대 원형(原形)이 잘 보존된 수산봉수의 평면 형태는 2중의 원형(圓形)으로, 큰 테두리(외호) 안에 하나의 작은 테두리가 중복되도록 구성하였다. 즉, 중심부에 토축으로 봉수대를 쌓고 그 주위에 한단 낮춰 둑과 2중의 고랑을 원형(圓形)으로 설치하였던 것이다. 외호 끝단의 반경은 22.5m에 달한다.

수산봉수의 축조시기는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의 정의현에 '수산봉화(水山烽火)'라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12) 성산봉수(城山烽燧)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일출봉에 있었던 봉수이나 현재 멸실되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성산봉수는 조선시대 수산진(水山鎭) 소속이었고, 수산진으로부터 동쪽으로 15리(8.39km)에 있었다. 성산봉수는 조선후기 효종 4년(1653)『탐라지』에 따르면 동쪽으로 소수산(小水山)봉수와 서쪽으로 지미(指尾)봉수와 연락을 취하였다. 하지만『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66~1800년)이후부터는 동쪽으로 소수산봉(소수산봉수)에서 옮긴 수산봉수(대수산봉)와 연락을 취하였다.『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소수산봉수는 동쪽으로 오조연대와 남쪽으로 협자연대와도 교신하였다.『탐라순력도』에「성산관일(城山觀日)」은 제주목사 이형상이 제주판관과 정의현감과 함께 성산망(城山望)이라 표기한 성산봉수에서 일출을 보는 그림이다. 그림에서 봉수의 연대는 목책(석축?)처럼 보이며, 상부는 지붕처럼 씌어져 있다. 일출봉 상부 자체가 암반과 단애면(암반절벽)으로 환호시설은 필요치 않아 보인다. 성산봉수의 축조시기를 살펴보면 조선후기『탐라지(耽羅志)』(1653년)의 제주목에 '성산(城山)봉수'라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효종 4년(1653)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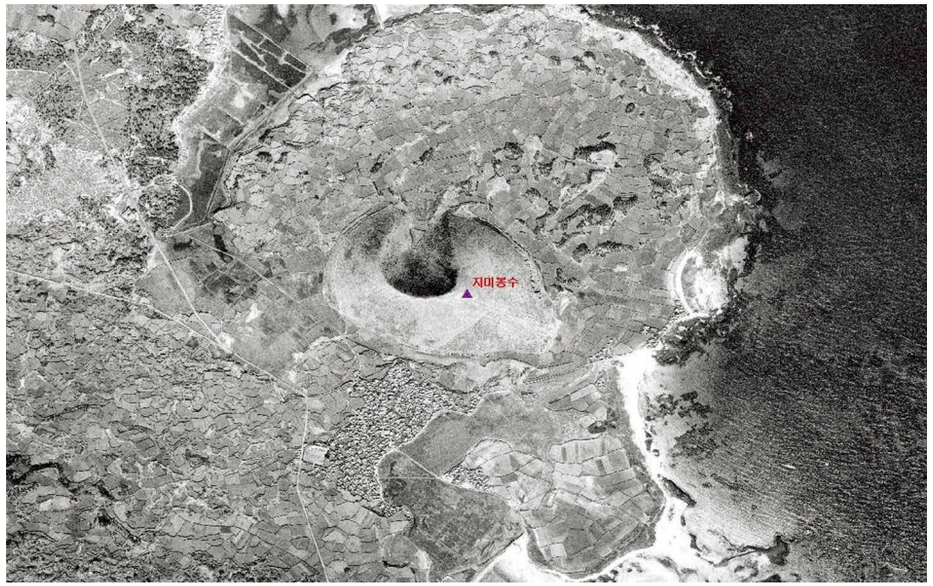
성산봉수 원경

13) 지미봉수(指尾烽燧)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 4번지 지미봉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지미봉은 해발 165m으로 남동사면과 남서사면으로 계단식 등산로가 개설되어 산자락에서 정상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사가 심한 북사면으로는 출입을



지미봉수 원경



지미봉수(1967년 항공촬영)

통제하고 있다.

지미봉수는 조선시대 수산진(水山鎭) 소속이었고 별방진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2.80km), 정의읍성으로부터 북쪽으로 45리(25.16km)에 있었다. 정의읍성으로부터 북쪽으로 45리(25.16km)에 있었다. 지미봉수는 조선전기『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 따르면 동쪽으로 수산봉화와 응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탐라지(耽羅志)』(1653년) 이후부터는 동쪽으로 성산봉수(城山烽燧), 서쪽으로 제주목(濟州牧) 왕가봉수(往可烽燧)와 연락을 취하였다.『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지미봉수는 동쪽으로 종달(終達)연대, 서쪽으로 제주 입두(笠頭)연대와도 교신하였다.

지미봉수는 중심부에 둑을 돌아가면서 사이에 고랑을 두어 이중으로 쌓

고 다시 한 단 높게 봉우리 형태로 토축(土築)한 두 겹 원형(圓形) 봉수대이다. 현재는 산불감시소와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다. 지미봉수는 외호(토축) 직경이 21.4m가량 된다.

지미봉수의 축조시기를 살펴보면 조선전기『세종실록지리지』의 정의현에 수산(水山)봉화는 북쪽으로 지말산(只末山)봉화 및 입산(笠山)봉화와 응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에도 '지말산(只末山) 봉수(烽燧)'라는 기록이 보인다.

14) 남산봉수(南山烽燧)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에 자리한 해발고도 179m인 남산봉의 동쪽 봉우리에 자리하고 있다. 남산봉수는 신천리 해안에서 북서쪽으로 6.2km 떨어진 곳에, 서쪽으로 400m 거리에 천미천이 위치한다. 봉수대 동쪽으로는 독자봉, 남쪽으로는 달산봉과 매오름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토산오름과 가세오름이 있다. 일반적으로 봉수대들은 해안에 접한 곳이나 해안으로부터 1~3km의 거리에 위치하는데 비해 남산봉수는 해안으로부터는 6.2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 정의읍성과는 불과 1.1km의 가까운 곳에 있다. 이는 남산봉수의 기능이 해안을 감시하기보다 다른 봉수대로부터 신호를 받아 치소(治所)인 정의읍성에 전달하는 임무, 즉 내륙의 내지봉수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산봉수(南山烽燧)는 조선시대 정의현(旌義縣) 소속이었고, 정의읍성으로부터 동남쪽으로 3리(1.68km)에 있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동



남산봉수 위치(1967년 항공촬영)

쪽으로 오음사지악봉수, 서쪽으로 토산봉수와 응한다고 하였으며, 조선후기『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가 나올 때까지도 오음사지악봉수가 독자봉수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동일 노선이 유지되었다. 하지만『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



남산봉수



남산봉수

制烽臺摠錄)』(1766~1800년)이후부터 동쪽으로는 독자봉수와 응하였지만 서쪽의 토산봉수 대신 남쪽의 달산봉수와 응하였다. 그리고『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남산봉수는 남쪽으로 천미연대, 북쪽으로 말등연대와도 교신하였다.

봉수대 원형(原形)이 잘 보존된 남산봉수의 평면 형태는 2중의 원형(圓形)으로, 큰 테두리(외호) 안에 하나의 작은 테두리(내호)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였다. 즉, 중심부에 토축으로 반경 16m(둘레 49m), 높이 2.5m의 봉우리를 쌓고 그 주위에 한단 낮춰 둑과 2중의 고랑을 원형으로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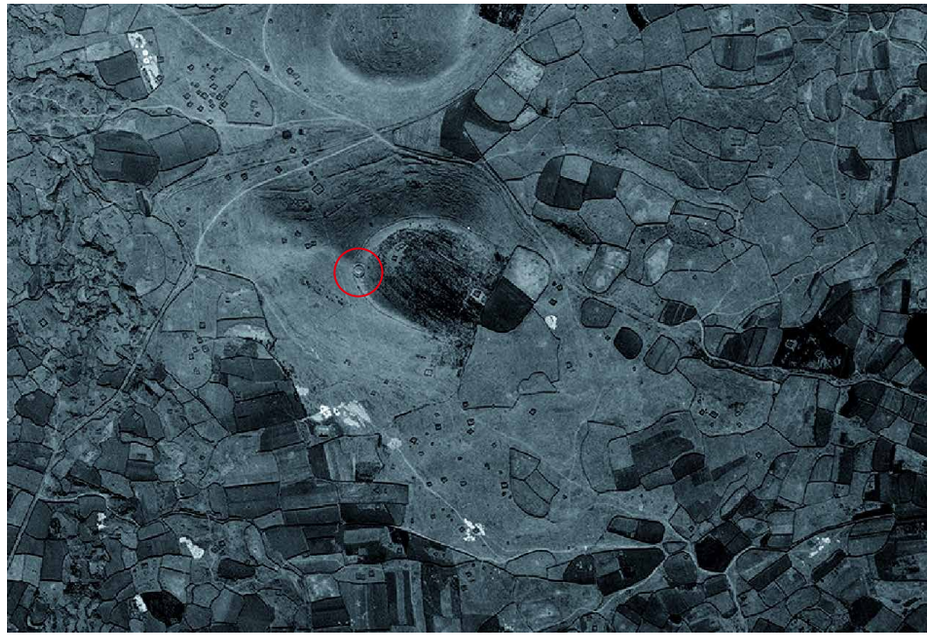
남산봉수의 축조시기는『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의 정의현에 '남산

봉화(南山烽火)'라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숙종 25년(1530)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15) 독자봉수(獨子烽燧)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785번지 일원인 독자봉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독자봉은 신산리 해안에서 북서쪽으로 2.7km 떨어진 해발 159m이다. 봉수대 북동쪽으로는 성산일출봉과 수산봉, 그리고 멀리 지미봉, 남서쪽으로는 달산봉이 있다. 남동쪽에서부터 북동쪽으로는 낮은 평지로 되어 있어서 해안을 감시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독자봉수는 조선시대 정의현(旌義縣) 소속이었고, 정의읍성으로부터 동



1967년 독자봉수 위치



독자봉수 전경

쪽으로 18리(10.06km)에 있었다. 독자봉수의 봉수노선은 조선전기『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 따르면 동쪽으로 수산(水山)봉화와 응한다고 하였다. 이후『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따르면, 오음사지악봉수는 동쪽으로 현재 성산읍 온평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을온봉수, 서쪽으로는 신설된 남산(南山)봉수와 응하였다. 하지만『탐라지(耽



독자봉수 터

羅志)』(1653년)부터 『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가 발간되기 까지는 동쪽 여을온봉수가 폐지되면서 소수산봉수와, 서쪽으로 남산봉수와 교신하였다.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66~1800년) 이후부터는 동쪽의 소수산봉수가 소수산봉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대수산오름으로 옮기면서 만들어진 수산봉수와 연락하였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에 의하면, 독자봉수는 북쪽으로 협재(俠才)연대(협자연대)와도 교신하였다.

봉수대 원형(原形)이 잘 보존된 독자봉수의 평면 형태는 2중의 원형(圓形)으로, 큰 테두리(외호) 안에 하나의 작은 테두리(내호)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였다. 즉, 중심부에 토축으로 반경 9.5m(둘레 31m) 높이 1.9m의 봉우리를 쌓고 그 주위에 한단 낮춰 둑과 2중의 고랑을 원형으로 만든 것으로 외호 끝단의 반경은 14m 정도이다. 남쪽과 북쪽의 골은 동쪽과 서쪽의 골에 비하여 지형이 1.5~1.7m 정도 높고, 둑 높이 또한 봉우리 경사가 완만한 남북쪽에서 경사가 급한 동서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봉수대 축조 당시에 배수관계를 고려하였다고 생각된다.

독자봉수의 축조시기는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의 정의현에 '악사지봉화(岳沙只烽火)'라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16) 달산봉수(達山烽燧)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043-2번지에 자리한 달산봉에 위치하고 있다. 달산봉은 신천리 해안에서 북서쪽으로 2.1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오름으로



달산봉수 전경

해발 136.5m의 정상부에 봉수대가 위치한다. 봉수대 북동쪽으로는 독자봉, 북쪽으로는 남산봉, 남서쪽으로는 가세오름과 토산오름 그리고 매오름이 있다.

달산봉수는 조선시대 정의현(旌義縣) 소속이었고, 정의읍성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5.59km)에 있었다. 달산봉수는 조선전기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 따르면 북쪽으로 정의읍성 남쪽과 서쪽으로 토산봉화와 응한다고 하였다.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의하면, 줄곧 동쪽으로 남산봉수, 서쪽으로 토산봉수와 응했다고 한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는 달산봉수가 남쪽으로 소마로연대, 북쪽으로 천미연대와도 교

신하였다.


달산봉수 터

봉수대 원형(原形)이 잘 보존된 달산봉수의 평면 형태는 2중의 원형(圓形)으로, 큰 테두리(외호) 안에 하나의 작은 테두리(내호)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였다. 즉, 중심부에 토축으로 반경 12m(둘레 37.5m), 높이 1.5m의 봉우리를 쌓고 그 주위에 한단 낮춰 둑과 2중의 고랑을 원형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외호 끝단의 반경은 10.8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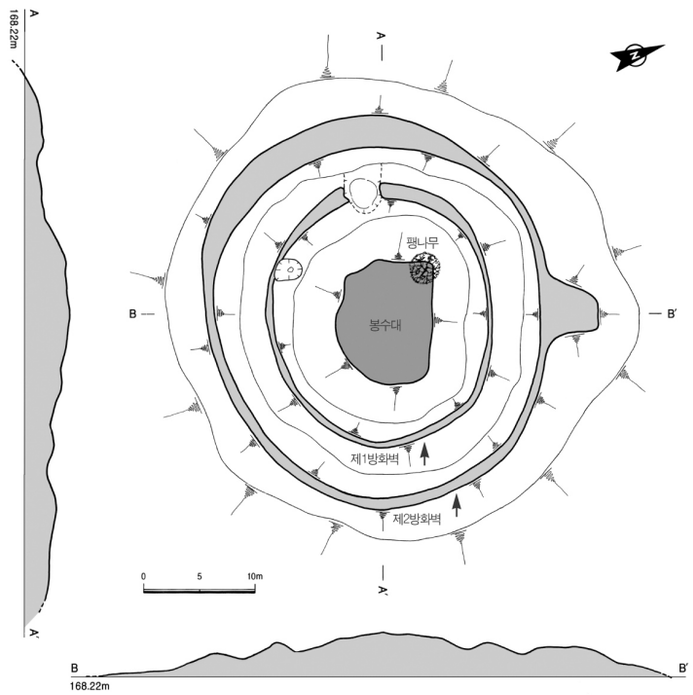
달산봉수의 축조시기는 『세종실록지리지』 (1432년)의 정의현에 '달산봉화(達山烽火)'라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17) 토산봉수(兎山烽燧)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2리 산13번지에 자리한 토산망이라는 오름의 정상에서 떨어진 서쪽 봉우리에 위치한다. 봉수대 북동쪽으로는 남산봉과 본지오름 그리고 멀리 독자봉, 동쪽으로는 매오름과 달산봉 서쪽으로는 자배봉이 있다. 봉수대가 서쪽 봉우리에 있는 이유는 산 정상에 위치했을 경우 서쪽에 있는 자배봉과는 앞에 있는 토산망(오름)에 가로막혀 서로 교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배봉수 또한 토산봉수와의 교신 관계를 고려하여 정상이 아닌 남쪽 봉우리에 축조하였다고 생각된다.


토산봉수 전경

토산봉수는 조선시대 정의현(旌義縣) 소속이었고, 정의읍성으로부터 서남쪽으로 35리(19.57km)에 있었다. 조선전기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동쪽으로 달산봉화와, 서쪽으로 호아촌봉화와 응한다고 하였다.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편찬 무렵에는 동쪽으로 기존의 달산봉수와 응했지만 서쪽으로는 호아촌봉수와의 중간에 전월론봉수가 신설되면서 이와 응하였다. 하지만 『탐라지(耽羅志)』(1653년)에 의하면, 서쪽의 전현리(錢懸里, 즉 전월론봉수)에서 자배봉(자포(紫蒲)봉수)으로 봉수대를 옮기면서 대응봉수가 바뀌었고 이후부터는 줄곧 동쪽은 달산봉수, 서쪽은 자배(자포)봉수와 교신하였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따르면, 남쪽으로 벌포(伐浦)연대와 북쪽으로 소마로(所馬路)연대와도 교신하였을뿐 아니라, 동쪽으로 달산봉수, 서쪽으로 자배봉수와도 교신하였다.



토산봉수 평단면도

제주도 봉수대 중 원형(原形)이 가장 잘 보존된 토산봉수의 평면 형태는 2중의 원형(圓形)으로, 큰 테두리(외호) 안에 하나의 작은 테두리(내호)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였다. 즉, 중심부에 토축으로 반경 14m(둘레 44m) 높이 1.1m의 봉우리를 쌓고 그 주위에 한단 낮춰 둑과 2중의 고랑을 원형으로 만들었다.[62] 외호 끝단의 반경은 15m 정도에 달한다. 연대(煙臺)는 높이 3m 내외의 토축(土築) 혹은 토석 혼축(土石混築)의 인공적인 시설을 지칭한다. 토산봉수는 제주도 봉수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편이다. 호(壕)는 성곽의

62) 내호는 남북길이 19.50m, 동서길이 23m, 깊이 약 40~70cm로 얕고 경사가 완만한 형태이다. 외호는 남북길이 약 34m, 동서길이 28~29m, 깊이 0.5~1m 정도로 깊고 경사가 급한 편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4, 『토산봉수』.



삼매양봉수 원경

해자와 같이 지면을 파서 만든 방호 시설이다.

토산봉수의 축조시기는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의 정의현에 '토산봉화(兎山烽火)'라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18) 삼매양봉수(三每陽烽燧)

서귀포시 서홍동 819번지 일원의 해발 153m의 삼매봉 정상에 봉수대가 위치한다. 봉수대 동쪽으로는 제지기오름과 예촌봉, 남동쪽으로는 새섬과 문섬 및 숲섬, 서쪽으로는 구산봉이 있다.



삼매양봉수 터

삼매양봉수(三梅陽烽燧)는 조선시대 서귀진(西歸鎭) 소속이었고, 서귀진으로부터 서쪽으로 5리(2.8km)에 있었다. 조선전기 『세종실록지리지』(1432년) 이후 줄곧 동쪽으로 호촌(狐村)봉수와 서쪽으로 대정현(大靜縣) 소속의 구산봉수와 응하였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 (1765년)에 의하면, 동쪽으로 보목포(甫木浦)연대와 서쪽으로 연동(淵洞)연대와도 교신하였다.

현재 봉수터는 체육공원 및 전망용 팔각정 건립으로 인해 멸실된 것으로 판단되며 봉수대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삼매양봉수의 축조시기는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의 정의현에 '삼매양봉화(三每陽烽火)'라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만든 것



호촌봉수 원경

으로 보인다.

19) 호촌봉수(弧村烽燧)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95-2번지 일원에 자리한 해발고도 68m의 예촌망 정상에 위치하였다. 봉수대 북동쪽으로는 자배봉, 남서쪽으로는 제지기오름, 서쪽으로는 삼매봉이 있다.

호촌봉수는 조선시대 서귀진(西歸鎭) 소속이었고, 서귀진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16.77km)에 있었다. 조선전기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동쪽으로 토산봉화, 서쪽으로 삼매양봉화와 교신한다고 하였다. 이후 『신증동국

여지승람』(1530년) 발간 무렵에는 서쪽으로 기존의 삼매양봉수와 교신했지만 동쪽으로는 토산봉수와의 중간에 전월론(餞月論)봉수가 신설되면서 이와 응하였다. 하지만 『탐라지(耽羅志)』(1653년)에 따르면, 동쪽의 전현리(錢懸里, 즉 전월론봉수)에서 자배봉(자포(紫蒲)봉수)으로 봉수대를 옮기면서 대응봉수도 바뀌었고 이후부터는 줄곧 동쪽은 자배(자포)봉수, 서쪽은 삼매양봉수와 교신하였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호촌봉수는 동쪽으로 우미연대와도 교신하였다.

현재 밀감과수원 조성으로 멸실되어 봉수대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호촌봉수의 축조시기는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의 정의현에 '호아촌봉화(狐兒村烽火)'라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자배봉수 원경

20) 자배봉수(資盃烽燧)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36번지에 자리한 해발고도 211m인 자배봉의 남쪽 봉우리에 위치한다. 봉수대 동쪽으로는 매오름과 토산오름과 가세오름, 남서쪽으로는 예촌봉과 칡오름이 있다. 이 봉수는 해안쪽으로 낮고 평평한 지대여서 바다의 상황을 감시하기가 용이하다.



자배봉수 터

자배봉수는 조선시대 서귀진(西歸鎭) 소속이었고, 서귀진으로부터 동쪽으로 35리(19.57km)에 있었다. 자배봉수의 봉수노선은 조선후기 『탐라지』(1653년)에 따르면 동쪽으로 토산(兎山)봉수, 서쪽으로 호촌(狐村)봉수와 연락을 취하였고 이후에도 동일노선이 봉수제도 폐지 시까지 유지되었다.

자배봉 정상부는 네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그 자체가 봉수대의 기단부 역할을 하고 있다. 축조방법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반경 5.5m, 높이 3.5m 크기의 상부가 평탄한 토축 연대를 만들고 주위에는 호(壕)를 둘렀다. 호 하단부에는 둔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자연석을 0.7m 높이로 2단 정도 호안석축을 설치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하였다.

자배봉수의 축조시기는『탐라지(耽羅志)』(1653년)의 정의현에 '자포봉수(紫蒲烽燧)' 라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효종 4년(1653)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21) 구산봉수(龜山烽燧)

서귀포시 하원동 1806번지 일원의 해발 170m의 구산봉의 해안을 향한 산중턱에 있다. 봉수대 동쪽으로는 삼매봉, 남동쪽으로는 범섬과 문섬, 서쪽으로는 성천봉과 군산(軍山)이 자리잡고 있다.

구산봉수는 조선시대 대정현(大靜縣) 소속이었고, 대정현으로부터 동쪽으로 45리(25.16km)에 있었다. 조선전기『세종실록지리지』(1432년) 이후



구산봉수 원경



구산봉수 터

줄곧 동쪽으로 정의현(旌義縣) 소속의 삼매양(三梅陽)봉수와 서쪽으로 호산(蠔山 또는 伊頭於時)봉수와 교신하였다.『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구산봉수는 동쪽으로 마흘천(勿屹川)연대와 서쪽으로 대포(大浦)연대와도 교신하였다.

현재 통신기지국이 설치되어 원형의 구조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잔존한 봉수터는 반경 4.7m 크기의 토석혼축으로 바다쪽을 향하여 1/2 정도만 돌아가면서 둥글게 둑을 쌓고 한 단을 높게 한 뒤, 반경 2.7m(둘레 8.5m), 높이 1.8m의 연대를 토축하였다. 둔덕과 둑 사이에는 0.8m 정도의 깊이로 파인 도랑이 있으며 여기에 잔돌이 깔려 있다.

구산봉수의 축조시기는『세종실록지리지』(1432년)의 정의현에 '거옥악봉화(居玉岳烽火)'라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호산봉수 원경

22) 호산봉수(蠔山烽燧)

안덕면 감산리 1057번지 일원에 자리한 월라봉의 앞 남쪽 해안 절벽 위에 위치한다. 봉수대 동쪽으로는 별로천연대와 군산(群山), 남서쪽으로는 형제도와 송악산, 서쪽으로는 산방산과 산방연대가 자리잡고 있다. 호산봉수는 산 정상이 아닌 해발고도가 매우 낮은 해안 절벽[63] 위에 입지한다. 봉수대를 월라봉 정상에 축조하면 동쪽 구산봉수와의 연결 시 앞에 있는 군산에 가로막혀 서로 교신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대응봉수와의 연결이 가능하고 해안 감시가 용이하며 자연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안 절벽을 선택하여 봉

63) 현재 안덕면 화순리(황개천)와 대평리 포구 사이에 '박수기정'으로 일컫는 해안절벽 위에 만들어져 있다.



호산봉수 전경



호산봉수

수대를 설치하였다고 생각된다.

호산봉수는 조선시대 대정현(大靜縣) 소속이었고, 대정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13.98km)에 있었다. 조선후기 봉수대를 산 아래 해안 절벽쪽으로 조금 옮겼지만『세종실록지리지』이후 줄곧 동쪽으로 구산(龜山)봉수와 서쪽으로 저별(貯別 또는 松岳)봉수와 교신하였다. 그리고『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동쪽으로 당포(堂浦)연대와 서쪽으로 산방(山房)연대와도 교신하였다

호산봉수대는 방형(말각방형) 평면으로 다른 봉수대에서는 볼 수 없는 돌을 사용하였는데 토축한 봉수대에 비해 규모가 아주 작다. 봉수의 상부인 연대의 축조방법은 자연석을 잔돌끼움 한 허튼층쌓기 방법으로 축조하였다. 석축의 규모는 남북길이 9m, 동서길이 8m, 높이 1.5m 가량된다. 중앙부는 함몰되어 있다.

호산봉수의 축조시기를 살펴보면『세종실록지리지』(1432년)의 대정현에 '구산봉화(仇山烽火)'라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후기『탐라지(耽羅志』(1653년)에서는 산 중턱에 있던 봉수를 해안쪽으로 옮겼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명칭도 호산(蠔山)봉수로 바뀌었다고 한다.

23) 저별봉수(貯別烽燧)

대정읍 상모리 산2-5번지 일원으로 송악산의 서쪽 '붉은오름'이라 부르는 해발 80m의 오름 능선에 위치한다. 봉수대 동북쪽으로는 산방산과 월라봉, 북서쪽으로는 모슬봉과 가시오름, 남쪽으로는 가파도와 마라도가 있다.



저별봉수 터

저별봉수는 조선시대 대정현(大靜縣) 소속이었고, 모슬진(摹瑟鎭)으로부터 동남쪽으로 10리(5.59km)에 있었다. 저별봉수의 봉수노선은 조선전기『세종실록지리지』(1432년) 이후 줄곧 동쪽으로 호산(蠔山 또는 伊頭於時)봉수와 북쪽으로 모슬(摹瑟)봉수와 응하였다.『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동쪽으로 산방(山房)연대와 서쪽으로 무수(無水)연대와도 교신하였다.

저별봉수대는 반경 12.2m, 둘레 39m, 높이 1.2m의 둥근 봉우리 모양의 원형(圓形)으로 다른 봉수대에 비해 규모가 작다. 호의 흔적은 뚜렷하지 않지만 둑을 보강하기 위한 지대석을 확인할 수 있다.

저별봉수의 축조시기는『세종실록지리지』(1432년)의 대정현에 '저리별



당산봉수 원경

이봉화(貯里別伊烽火)'라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24) 당산봉수(堂山烽燧)

한경면 고산리 산12번지에 자리한 해발고도 148m의 당산봉(堂山峯) 서쪽 봉우리에 자리하고 있다.

당산봉수는 차귀진(遮歸鎭)에 소속된 봉수이다. 당산봉수는 동쪽으로 대정현(大靜縣) 저별(貯別)봉수 또는 모슬(毛瑟)봉수, 서쪽으로 제주목의 만조(晩早)봉수와 연락을 취하였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남쪽으로 서림(西林)연대, 북쪽으로 우두(牛頭)연대와도 교신하였다. 당

산봉수는 차귀진으로부터 북쪽으로 1리(559m), 대정읍성으로부터 북쪽으로 27리(15.09km)에 있다.

당산봉수는 당산봉 정상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당산봉수터에는 해안 초소가 위치하고 있어 초소 조성 시 봉수는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산봉수의 축조시기는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의 대정현에 '차귀오름봉수'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사일록(南槎日錄)』에 당산(堂山)봉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차귀오름봉수는 숙종 6년(1680)에 이르러 당산(堂山)봉수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25) 모슬봉수(摹瑟烽燧)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540-2번지 일원의 모슬봉 정상에 자리하고 있



모슬봉수 원경

다. 모슬봉은 일과리 해안에서 남동쪽으로 2.2km 떨어진 해발 180.5m의 오름이다. 봉수대 동쪽으로는 산방산과 산방연대, 남동쪽으로는 마라도와 가파도 및 송악산, 북서쪽으로는 당산봉이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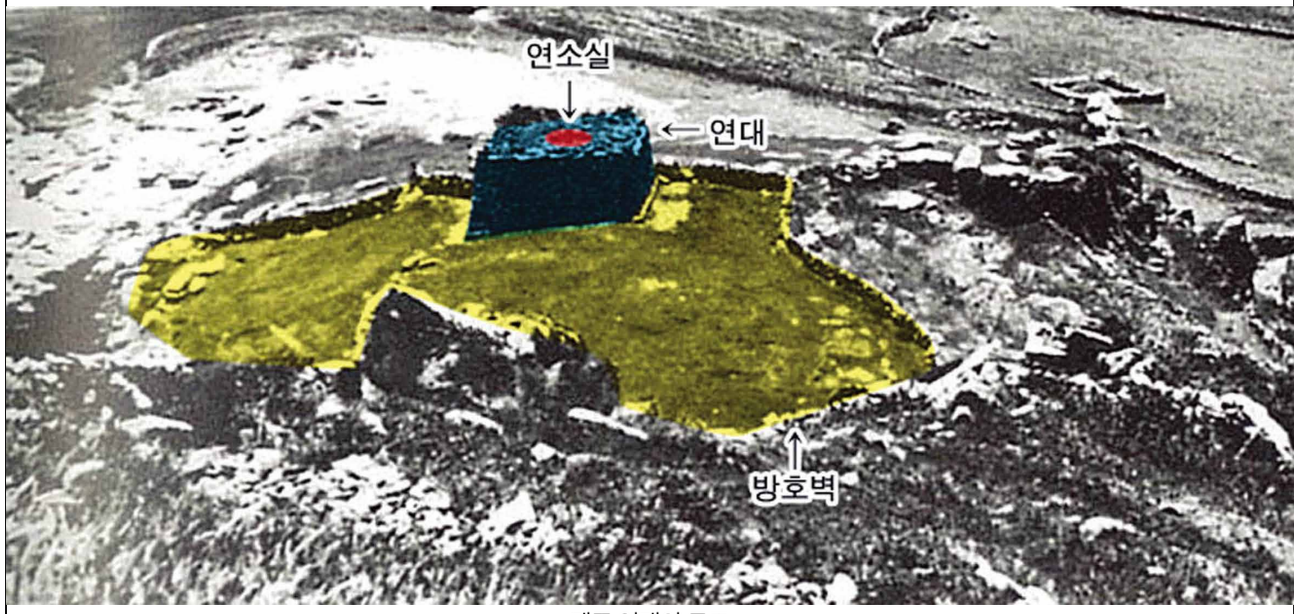
모슬봉수는 조선시대 모슬진(摹瑟鎭) 소속이었고, 대정현(大靜縣)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2.8km)에 있었다. 조선전기 『세종실록지리지』 이후 줄곧 남쪽으로 저별(貯別 또는 松岳)봉수와 북쪽으로 당산(堂山 또는 遮歸)봉수와 응하였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志)』(1765년)에 의하면, 동쪽으로 무수(無水)연대와 북쪽으로 서림(西林)연대와도 교신하였다.

봉수대가 자리한 곳은 현재 군부대가 입지하여 진입이 어려우며 산 아래서 바라볼 때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멸실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슬봉수의 축조시기를 살펴보면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의 대정현에 '모슬포악봉화(毛瑟浦岳烽火)'라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세종 14년(1432)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2. 연대(煙臺)

연대는 봉수와 동일한 후망(堠望)의 기능, 곧 해안의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살펴보며 경계하고, 이를 알리는 군사통신시설이다. 봉수와는 달리, 해안 연변의 구릉지대에 위치하였으므로 연변봉수(沿邊烽燧)의 기능을 행했다고 볼 수 있다. 연변봉수는 변경이나 해안에 위치했던 최일선 봉수로 보면



제주 연대의 구조

된다. 연대군의 노역은 다른 봉수의 그것보다 위험한 것이었다. 이들 연대의 시설축조와 정비는 조선시대 세종대에 이루어져 나가갔다.

영조 41년(1765)에 편찬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 의하면, 제주 삼읍성과 9진성으로부터 연대와의 거리는 최단 559m부터 최장 13.98㎞였다. 또한 각 연대마다 동쪽과 서쪽으로 상응하는 연대뿐만 아니고, 역시 양 방향으로 연결하는 봉수도 존재했다.

연대는 해안 변경의 최전방에 위치했던 만큼, 외적의 선박이 해안가에 다가오는 접근도의 동태를 살피는 한편, 상륙 시에는 응전·방어하는 요새시설로서의 임무도 수행하였다. 이 때문에 거화시설의 연대나 연소실, 호(壕)와 방호벽, 창고(주거지) 등의 시설물도 갖추었다. 방호벽은 석축(돌담)이고, 대

부분 방형의 석축으로 축조되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성과로 볼 때 제주의 연대가 그 위치와 명칭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것은 『남사일록(南槎日錄)』[64]이다. 여기에는 화북연대, 왜포연대, 오조포연대, 어포연대 등과 같은 34개소의 연대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17세기 후반 무렵에 와서는 제주 연대가 34개소에 달했고, 그 위치와 명칭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비로소 연대와 봉수가 각각 분리·파악되고 있었음도 드러나고 있다.

18세기 후반 편찬한 『탐라방영총람(耽羅防營總覽)』에도 제주 연대의 명칭과 위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총 37개소의 제주 연대가 확인된다. 특히, 여기에는 『남사일록』에 '보목포 서쪽에 연대가 있다.' '우미포 서쪽에 연대가 있다.' 등처럼, 포구 중심의 방향만으로 표시된 19개소 연대가 여기에서는 "보목연대", "우미연대"와 같이 명확하게 일컬어지고 있다. 이로써 제주 연대가 포구 중심의 방향과 같이 일컬어지다가 그 포구의 이름과 관련해 공식적 명칭이 따라붙었다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 앞으로 제주 연대 관련 표현양상이 『남사일록』과 『탐라방영총람』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연유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천착해 볼만하다고 본다. 1765년에 편찬한 『증보탐라지』와 1785년에 편찬한 『제주읍지』에는 제주 연대가 38개소에 설치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제주 연대는 18세기 후반기에 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완성단계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다. 『탐라방영총람』에서 확인되는 37개소 연대에 정의현 관내의 종달연대가 더해

64) 이증(李增)이 1679년(숙종 5) 5월 제주안핵겸순무어사(濟州按覈兼巡撫御史)로 임명되어 12월 제주에 온 뒤, 5개월 간 체류하면서 자신의 소임을 수행하며 겪은 일과 각종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일기체로 엮어낸 것이다.

져 38개소 연대가 되었다.

제주 38개소 연대의 설치와 운영은 제주사회에 민폐를 야기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그래서 1811년(순조 11) 9월에 제주의 민폐를 없애는 방안의 하나로서 긴요하지 않은 연대의 철폐가 조정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제주의 38개소 연대 중 8개소가 사라졌다. 이들 8개소 연대는 제주목사 이원조(李源祚)가 1841년(헌종 7) 편찬한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 제주목의 18개소 연대 중 함덕·좌가·귀덕·마두연대, 정의현의 11개소 연대 가운데 소마로·종달연대, 대정현의 9개소 중 마희천·별로천연대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이들 연대가 1811년 9월 7일자로 폐쇄하기로 결정되고, 그것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현재 확인되는 38개소 연대와 해안과의 이격거리는 200m 미만이 72%이고, 가장 먼 것이 550m 정도의 말등포연대이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거리다. 연대는 전부 해안가의 마을에 설치되었고, 포구도 연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의 마을에 비해 규모가 꽤 큰 편으로 요충지에 해당하곤 했다. 연대는 제주사람들에게는 '연디동산', '연디마을', '연모루', '연디왓', '연디밑' 등으로 불리곤 하였다.

제주도 전체 38개 연대 중에 23개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달리, 봉수의 경우 제주도 전체 25개 봉수 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현존하는 제주도의 연대와 봉수는 대부분 1894년 근대적인 전화통신의 등장으로 인해 봉수제가 폐지된 후에 100여 년 동안 적잖은 훼손과 변형이 진행된 후에 남아 있는 잔존물(殘存物)이다. 게다가 연대를 제

주도의 기념물로 지정하면서 그 원형을 충실하게 살려 복원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연대 본래의 모습들이 대폭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던 잔존 유구마저 훼손하게 되는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1) 입두연대(笠頭煙臺)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61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입두연대는 일주동로 상에 위치한 세화리 입구 즉 갓머리, 삼거리에서 남서쪽으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는 '망모루동산'이라고 불린다. 직선거리로 정의현 지미봉수와 5.4㎞, 왕가봉수와 3.3㎞이다.

입두연대의 주위에는 민가가 들어서 있고 대체로 낮은 지형에 있지만 세



입두연대 터

화리 앞 해안으로 시야가 트여 있는데, 그곳에는 현재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모래지반만 약간 남아 주택의 경계인 울타리로 이용되고 있어서 현재 연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입두연대는 별방진(別防鎭)에 소속된 연대(煙臺)이다. 별방진에서 서쪽으로 2리(1.12㎞), 제주읍성에서 동쪽으로 77리(43.04㎞)에 있다. 동쪽으로는 정의현 지미봉수, 서쪽으로 왕가봉수와 교신하였다. 직선거리로 지미봉수와는 5.4㎞이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2) 좌가연대(佐可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15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683-1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좌가연대는 '구좌농공단지'에서 남쪽 올레길 20코스를 따라 약 800m 이동하다 보면 소나무 숲 사이로 확인이 가능하다. 동쪽 해안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주변보다 높은 소나무 동산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소나무 숲으로 막혀 있지만 높은 곳에 위치한 덕에 동쪽의 왕가봉수터와 멀리 지미봉도 보인다. 특히 동쪽 하도리 해안, 서쪽 행원리 해안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좌가연대는 별방진(別防鎭)에 소속된 연대이다. 별방진에서 서쪽으로 5리(2.80㎞), 제주읍성에서 동쪽으로 72리(40.25㎞)에 있다. 동쪽으로는 왕가봉수, 서쪽으로 무주연대와 교신하였다. 무주연대와는 직선거리로 4.7㎞



좌가연대 원경



좌가연대

이다.

연대는 1996년 이전에 바다 쪽으로 향한 북측면과 동측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너진 상태이나 그 윤곽이 뚜렷했다. 하부의 폭은 7.6×8.4m, 높이가 18~2.2m 가량 남아 있다. 상부의 폭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부의 폭으로 미루어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연대는 55×44㎝, 50×50㎝ 크기의 거친돌을 허튼층으로 막쌓기 하는 방



좌가연대 복원 전 모습



좌가연대

법으로 축조하였으며 모서리 부분은 각을 주지 않고 둥글게 모접기 하였다. 2005년에 복원이 완료되었는데, 외벽 모서리 부분을 각을 내지 않고 둥글게 만들었다. 가운데에는 연소실 시설을 복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 방호벽도 꽤 높게 쌓아서 모양을 특이하게 만들었다. 복원규모는 장축 9.89m, 단축 8.98m, 높이 3.41m이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3) 무주연대(無注煙臺)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00-45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김녕해수욕장



무주연대 터

에서 해맞이해안로(올레길 20코스)를 따라 2㎞ 정도 떨어진 김녕리 마을과 월정리 마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서편으로는 '제주글로벌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가 자리하고 있으며 연대의 위치로 추정되는 곳은 현재 '카페카약올레' 건물에 해당한다. 건물이 들어서기 전 이 일대는 해안과 인접하여 주변보다 3m 정도 높은 사구층이었다. 주변 환경은 평지여서 동쪽으로 행원리 해안, 서쪽으로는 김녕리 해안까지 시야가 트여 있었다. 주민들은 이 동산을 '연대동산' 또는 '연대망'이라 부르고 있다. 서쪽의 좌가연대에서 4.7㎞, 입산봉수와는 2.5㎞ 떨어져 있다.

현재 무주연대는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본래 월정리 산19번지라고 되어 있으나, 20년 전에 마을길을 포장하면서 연대 자리의 모래를 옮겨가서 연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무주연대는 별방진(別防鎭)에 소속된 연대(煙臺)이다. 별방진에서 서쪽으로 25리(13.98㎞), 제주읍성에서 동쪽으로 70리(39.13㎞)에 있다. 동쪽으로는 좌가마연대(좌가연대), 서쪽으로 입산봉수와 교신하였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4) 함덕연대(咸德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14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276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함덕해수욕장 서쪽 언덕 지경에 위치한 제주대학교 해양과학환경연구소의 북서편 경계 대나무밭에 연대가 위치



함덕연대 원경

해 있다. 주위를 보면 2.5m 정도 높은 곳에 대나무만 무성하게 보이는데 주민들은 '망동산'이라 부른다. 망동산 동쪽으로는 함덕해수욕장과 서우봉, 서쪽으로는 왜포연대가 있는 해안이 가까이 보인다. 직선거리로 서산봉수와는 1.8㎞, 왜포연대와는 1.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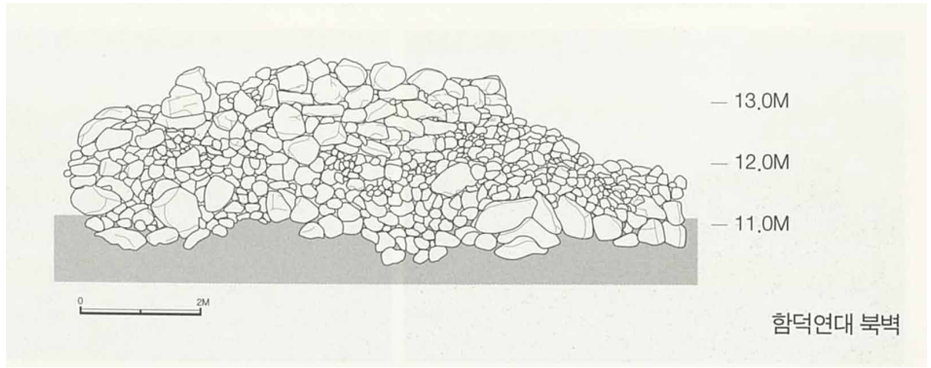
함덕연대는 조천진(朝天鎭)에 소속된 연대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조천진에서 동쪽으로 9리(5.03㎞), 제주읍성에서 동쪽으로 37리(20.68㎞)에 있다. 동쪽으로는 서산봉수, 서쪽으로는 왜포연대와 교신하였다.

연대의 축조 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함덕연대 조사 후 전경

함덕연대 조사모습



함덕연대 실측도

함덕연대는 2012년 표본조사에 의하면, 연대 주위에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외부에서 연대의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는 무성하게 우거진 대나무와 잡풀을 제거하고 석축을 노출시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말각방형 연대의 모습이 노출되었는데 연대의 상부는 상당 부분 붕괴가 진행된 상태였다. 연대의 서벽부로 테스트피트를 넣은 결과 연대가 암반층 위에 축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암반층 위로 1m정도 높이의 기단을 형성하고 그 위로 돌을 쌓아 올려 연대를 축조하였던 것이다. 당시 기단은 북벽과 서벽에서 일부 확인될 뿐이며, 원형을 추정해 볼 때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는 암반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대는 다듬은 대형 현무암을 이용하여 외벽을 쌓고 내부에는 자잘한 잡석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축조되었다. 한편, 북서벽과 남서벽에는 폭 1.5m 정도의 돌담이 연대와 연결되어 있다. 북서벽의 길이는 10m, 높이 1.5m 정도이며 남쪽으로 만입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남서벽은 길이 5m, 높이 0.5m 정도이며 북쪽으로 다소 벌어진다.[65]

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 2012,『제주시 방어유적-연대·봉수 조사연구』.



왜포연대 원경

5) 왜포연대(倭浦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13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84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조천만세 동산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약 1.5㎞가량 떨어진 곳에 주위 지형보다 약간 높은 언덕 지경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연대 주변으로 풀이 우거져 모습을 찾기가 어렵지만 북쪽으로 이어진 소로를 따라 조금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연대의 서쪽으로는 속칭 '엉장매' 동산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함덕연대와 서우봉 앞 해안(함덕해수욕장)을 볼 수 있다.

왜포연대는 조천진(朝天鎭)에 소속된 연대로 고포연대라고도 한다. 조천진에서 동쪽으로 6리(3.35㎞), 제주읍성에서 동쪽으로 34리(19.01㎞)에 있다. 동쪽으로는 함덕연대, 서쪽으로는 조천연대와 교신하였다. 왜포연대가 자리하고 있는 일대는 해안으로 굴곡이 심하게 돌출된 지형으로 주변으로



왜포연대

응하는 조천연대와 1.4㎞, 함덕연대와 1.4㎞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방어의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연대의 구조는 제주도 내 일반적인 방형구조의 연대와는 형태가 다른 타원형이며 벽체는 이중벽으로 내벽과 외벽으로 분리 축조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4년 고증을 거쳐 복원하였는데 연대 위로 높이 1m 정도의 방호벽을 이중으로 쌓았다. 복원규모는 장축 9.33m, 단축 7.99m, 높이 2.76m이다. 복원 전 기록을 보면 외부직경 7.6m, 내부직경 2.4m 정도로 외벽과 내벽의

사이는 폭이 1.8m이다.

6) 조천연대(朝天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5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980-4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조천리 일주도로에서 해안도로와 접한 포구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면 조천성(朝天城)을 지나 확인할 수 있다. 연대는 거리 상 조천성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주변 지형보다 높은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을 '연대동산'이라 부른다.

조천연대는 조천진(朝天鎭)에 소속된 연대(煙臺)이다. 조천진에서 북동쪽으로 1리(559m), 제주읍성에서 동쪽으로 29리(16.21㎞)에 있다. 조천연대

조천연대 원경



동쪽으로는 신흥리 앞 해안, 서쪽으로는 원당봉 앞 해안까지 보인다. 때문에 서쪽으로는 원당봉수, 동쪽으로는 왜포연대와 교신하였다.

연대의 축조 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조천연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조천연대

연대는 1975년에 복원하였는데, 장축 7.91m, 단축 6.82m, 높이 3.82m 규모로 사다리꼴 형태이다. 연대의 난간벽은 폭 0.7m, 높이 0.6m이고 입구의 폭이 1.8m로 다른 연대에 비하여 매우 넓다. 조천연대는 계단 또한 경사가 완만할 뿐 만 아니라 상부까지 돌층계가 놓여 있다. 축조 방법은 일반적인 연대와는 다르게 거친돌 바른층 쌓기이다. 2005년에 다시 복원이 이루졌는데 1975년과 같다.

7) 별도연대(別刀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9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화북1동 153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연대는 1998년에 고증을 거쳐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별도연대 원경

연대는 화북마을 북쪽 포구에서 올레길 18코스를 따라 약 100m 정도 도보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연대는 돌출된 해안에서 가장 높은 언덕, 속칭 '연듸동산'에 자리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현재 화북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되고 있는 화북진(禾北鎭)터가, 북쪽과 동쪽으로는 화북환해장성이 자리하고 있다.

별도연대는 화북진에 소속된 연대이며 화북연대라고도 하였다. 화북진으로부터 북쪽으로 2리(0.7㎞), 제주읍성에서 동쪽으로 12리(6.71㎞)에 있다. 동쪽으로 원당봉수, 서쪽으로 사라봉수와 교신하였다. 현재도 두 봉수가 시야에 잘 들어온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별도연대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연대는 1998년 12월에 고증을 거쳐 복원하였는데 자연적인 언덕 상면을 따라 타원형으로 축조하였다.[66] 연대를 복원하기 전에는 지대석들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복원규모는 장축 9.1m, 단축 8.74m, 높이 2.5m이다.

8) 수근연대(修近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8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용담3동 1159

66) 조사내용 중에 '별도연대는 둥근 형태의 언덕상면을 따라 타원형의 석축을 쌓아 올렸고 평면 방형, 입면 사다리꼴인 연대의 높이가 2m 내외 매우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기술되었다.(제주시, 2000, 『基礎調査報告書, 別刀煙臺』)

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연대는 복원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수근연대는 용담 해안도로 상의 속칭 '닦은내'라고 하는 마을 선착장과 마주하며 용두암 옆 제주사대부중에서 약 1.6㎞ 정도 떨어져 있다. 주변은 해안선을 따라 음식점이 즐비하게 자리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다. 연대가 자리한 공간은 현재 공원(어영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이 일대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수근연대의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해안으로 돌출된 평탄대지로 연대는 해안에서 25m 정도 떨어져 있다. 해안으로 현무암 갯바위(여)가 발달되어 있다.

수근연대는 제주읍성에 소속된 연대로 수포연대(修浦煙臺)라고도 한다. 제주읍성에서 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2.6㎞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

수근연대 원경





수근연대 복원 전경

다. 동쪽 해안으로 원당봉, 사라봉이, 서쪽 해안으로는 귀일리 앞 해안까지 트여 있다. 때문에 동쪽으로 사라봉수, 서쪽으로는 도원봉수와 교신하였다.

수근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일기체의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수근연대는 1978년 고증을 거쳐 복원하였으며 그 규모는 상부가 7.1m×7.1m, 하부가 7.4m×7.17m, 높이가 3.32m에 달한다. 형태로 보면 사다리꼴 또는 정사각형에 가깝다. 연대 위의 난간벽은 폭 1.1m, 높이 0.6m이다.

수근연대는 축조방법이 테두리는 큰 심석(心石)을 이용하여 2단으로 기단을 조성한 후 그 위로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층마다 길고 짧게 9단으로 엇물려 쌓았으며 다시 그 위로 마름모 쌓기에 가까운 허튼층쌓기를 하였

다. 출입구 하단으로는 홑구조의 등성시설(돌계단)이 상부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1.2m 높이에서 4단으로 조성되어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연대 외곽으로는 산재해 박혀 있는 자연석과 암반으로 볼 때 본래 연대와 함께 방호벽을 구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형태는 파악할 수 없다.

9) 조부연대(藻腐煙臺)

제주시 외도2동 1974-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연대는 복원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는 기념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연대의 위치는 제주시내 방향에서 버스로 올 경우 외도동 연대포구 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북서쪽으로 연대마을 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도보로 이동



조부연대 원경

하면 찾을 수 있다. 연대가 자리했던 곳은 '연대마을'로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세워진 '망루대'라는 이름이 붙여진 콘크리트 정자가 있었다. 입지와 도로명 및 지명을 통해 이곳이 연대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부연대의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해안으로 돌출된 평탄대지로 연대는 북쪽 해안에서 25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해안으로 현무암 갯바위(여)가 발달되어 있다.

조부연대는 제주읍성(濟州邑城)에 소속된 연대(煙臺)로 제주읍성에서 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9㎞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의 도두봉 해안과 서쪽의 귀일리 해안까지 시야가 트인다. 조부연대는 동쪽의 도두봉의 도원봉수와 서쪽의 수산봉수와 교신하였다. 현재 연대 상단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민박비치빌' 건물에 의해 도두봉은 잘 보이지 않는다.


조부연대

조부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조부연대는 2010년에 연대를 복원하기 전 잔존 규모는 상부 6.85×4.7m, 하부 6.6×5.1m, 높이 2.3m였다.[67] 축조방법은 거친돌 허튼층 쌓기로, 7단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위 난간벽은 콘크리트 정자에 의해 멸실된 상태이다. 2010년에 고증을 거쳐 콘크리트 정자를 철거하고 연대를 복원하면서 동쪽과 남쪽 벽면 중간 이하에는 돌이 그대로 남아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돌을 가져다 쌓았다.

10) 남두연대(南頭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7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780-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연대는 1977년에 고증을 거쳐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연대의 위치는 애월항에서 동쪽 해안도로을 따


남두연대 원경

67) 제주시·제주산업정보대학 산학협력단, 2009, 『조부·귀덕연대 복원 타당성 학술조사 보고서』.

라 약 4㎞ 정도 떨어진 곳인 '남뜨르'라 불리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북쪽 해안에서는 40m 내외로 가깝지만 절벽을 이루고 있다. 주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하귀리 해안, 서쪽으로는 애월리 해안까지 바라다 볼 수 있다.

남두연대는 애월진(涯月鎭)에 소속된 연대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남두연대는 애월진으로부터 동쪽으로 11리(6.15㎞)에 있다고 하나, 실제는 약 4㎞ 정도이다. 남두연대는 동쪽으로 수산봉수, 서쪽으로는 고내봉수와 교신하였다.


남두연대

현재 주변으로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주변 조망이 쉽지 않다.

남두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연대는 현재 상부가 6.3m×6.4m, 하부가 7.9m×7.6m, 높이가 3.9m로 사다리꼴 형태이다. 축조방법으로는 사선방향의 거친돌 허튼층쌓기이며 테두리가 바른층 쌓기로 하여 5단마다 큰 심석을 물려 쌓았다. 남두연대 밑에는 방호벽으로 추정되는 큰 주춧돌이 사방으로 고여 있다. 등성시설은 따로 확인되지 않는데 아마도 동벽쪽의 솟아오른 암반층을 그대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애월연대 원경

11) 애월연대(涯月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17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970-2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하고 있다. 연대는 기단부와 그 상부 일부만 남아 있던 것을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연대의 위치는 제주시내 방향에서 버스로 올 경우 애월리 신설동 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북쪽으로 약 250m 정도 도보로 이동하면 찾을 수 있다.

연대가 자리하고 있는 일대는 속칭 '연대왓'으로 밖으로 돌출된 해안에서 약 300m 떨어진 언덕이며, 서쪽으로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이 언덕은 주변보다 높아 동쪽으로는 신엄리 해안, 서쪽으로는 한림읍 수원리 해안까지 멀리 바라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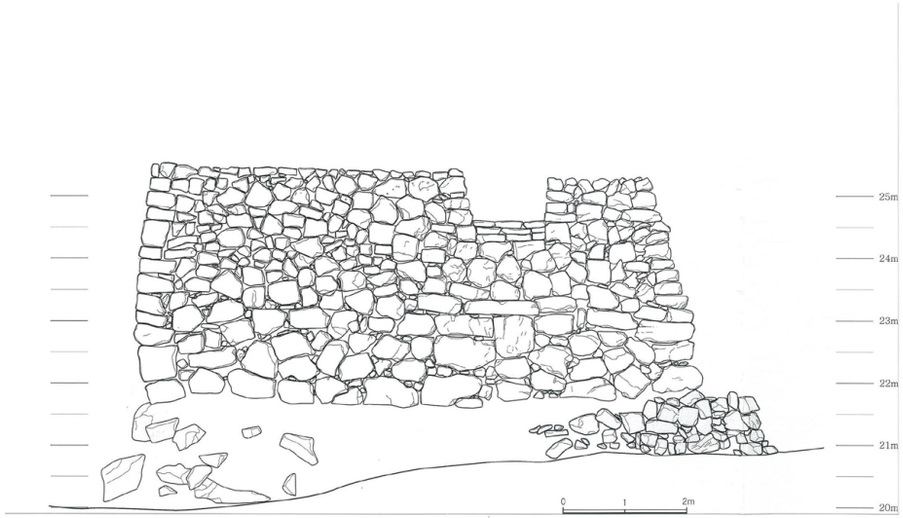


애월연대 전경

애월연대는 애월진(涯月鎭)에 소속된 연대로 기록되어 있다. 애월진으로부터 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800m 떨어진 거리로 제주성(濟州城)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20㎞ 거리에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남두연대, 고내봉수, 서쪽으로는 귀덕연대와 교신하였다. 현재는 서쪽으로 자리한 3층 건물(토비스콘도)에 의해 귀덕연대가 보이지 않는다.

애월연대의 축조 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연대의 구조를 보면 먼저 기저부를 형성하기 위해 바닥면은 원지형인 암반층 사이로 할석과 자연석을 펼치고 그 사이로 점토를 충진한 후 정지(수평맞추기)를 하였다. 복원된 연대의 규모는 상부가 8.3m×8.2m, 하부가 9.3m×9.4m, 높이가 4.8m이며, 형태로 보면 사다리꼴이다. 연대의 난간벽의 폭



애월연대 실측도(제주산업정보대학 산업연구소)

은 1.1m, 높이 0.7m이고, 입구의 폭은 1.4m이다. 다른 연대에 비해 규모가 크다. 전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입구는 중앙에 있지 않고 오른쪽(동쪽)으로 치우쳐 있다.

연대의 축조방법은 거친돌(자연석) 허튼층쌓기로 테두리는 큰 심석(心石)을 상부와 하부 사이의 중간 높이에 2단 물려 쌓았다. 현재 복원된 층수는 13단이다. 서남측 귀퉁이 돌 사이가 2㎝ 정도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지난 2017년 애월연대 정비사업에 따른 발굴조사 당시, 등성(계단시설)과 보축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고 내린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 당시 확인된 유물은 연대 남벽 기저부(트렌치1)에서 17~19세기에 해

당하는 백자와 수키와가 출토되었는데 문헌상 연대의 축조연대(숙종 4년 이전)와 일치한다.[68]

12) 귀덕연대(歸德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18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178-2번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연대는 해안과 비교하여 완만하게 들어온 속칭 '복덕개'라는 포구에 가까이 자리한 귀덕초등학교 뒤뜰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에서는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한단 올라와 레벨차이가 있다.

귀덕연대는 명월진(明月鎭)에 소속된 연대로 기록되어 있다. 명월진으로



귀덕연대 터

68)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7,「2017 애월연대 정비사업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간략보고서」.

부터 동쪽으로 19리(10.62㎞), 제주읍성에 서쪽으로 49리(27.39㎞)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쪽으로 애월연대, 서쪽으로 도내봉수와 교신했다. 하지만 현재 귀덕연대 동쪽을 보면 애월리에 있는 '토비스콘도'와 소나무 숲으로 인해 애월연대가 보이지 않는다. 서쪽의 경우도 귀덕초등학교 본 건물에 의해 도내봉수가 보이지 않는다.

귀덕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연대는 현재 약 3m 정도 위에 세워졌으나 지대석만 4.9×3.8m 길이로 'ㄷ'자 형태로 남아 있다. 석재의 크기는 17×91×19㎝, 17×83×24㎝로 당시에 쌓았던 석재가 아니고 최근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13) 우지연대(牛池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6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397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연대는 1976년에 고증을 거쳐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연대의 위치는 귀덕초등학교 입구에서 일주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1.6㎞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북쪽을 향하면 확인된다. 이 일대는 속칭 '망밭'으로 해안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높은 언덕이다. 연대는 지형이 높고 돌출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주변을 조망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우지연대는 명월진(明月鎭)에 소속된 연대(煙臺)로 기록되어 있다. 우지



우지연대 원경



우지연대

연대는 명월진으로부터 동쪽으로 17리(9.5㎞), 제주읍성에 서쪽으로 58리(34.42㎞)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쪽으로 귀덕연대, 도내봉수, 서쪽으로 죽도연대와 교신하였다. 현재 동쪽의 도내봉수는 잘 보이나 서쪽의 죽도연대는 '켄싱턴리조트' 가 시야를 가린다.

죽도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연대는 현재 상부가 6.5m×8.5m, 하부가 8.9m×8.7m, 높이가 2.3~2.7m이며, 형태는 사다리꼴 모양이다. 난간벽은 폭 2m, 높이 1.4m이고 입구의 폭을 1.1m로 하여 12단의 돌을 쌓아 등성시설을 구축하였다. 다른 연대에 비해 계단의 경사가 완만하고 난간벽 또한 폭이 매우 넓다. 축조방법은 허튼층쌓기이며 테두리가 허물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심석을 2단마다 엇물러 쌓았다.

14) 죽도연대(竹島煙臺)

한림읍 한수리 912-1번지에 자리잡고 있었고, 현재 한림항 북단의 썸스테이펜션 앞에 원형이 훼손된 채 터와 과거 북제주군문화원에서 세운 표지석만이 남아 있다. 『해동지도』「제주삼현도」에 따르면 죽도연대는 대섬(竹島)[69] 맞은편 해안에 표시되어 있다.

죽도연대는 명월진(明月鎭)에 소속된 연대로 기록되어 있다. 죽도연대는 명월진으로부터 동쪽으로 11리(6.15㎞), 제주읍성에 서쪽으로 64리

69) 연대의 서쪽 앞 섬으로 현재 한림항과 한림해안로로 연결된 바위섬으로 '전망대횟집'과 '붉은노을톤대섬'이라는 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죽도연대 터

(35.78㎞)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쪽으로 우지연대와 서쪽의 마두연대와 교신하였다. 현재 동쪽으로는 '대동빌라'에 의해 우지연대가, 서쪽으로는 1층 건물에 의해 마두연대가 보이지 않는다. 죽도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남사일록』에 잠수포(潛水浦)연대로 나오나, 나중에 죽도연대로 명칭이 바뀌었다.

15) 마두연대(馬頭煙臺)

마두연대는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명월조점(明月操點)」에 의하면 한림항 근처에 있었다고 전해지며 위치로 볼 때 현재 한림리 1378-1번지로



마두연대 원경

한림초등학교 앞 일주도로 건너편 북서쪽 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이곳은 '메이엘오션 빌라'와 '다가미횟집'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진행된 한림항만 개발에 따라 정확한 연대의 위치는 찾을 수 없다.

마두연대는 명월진(明月鎭)에 소속된 연대로 기록되어 있다. 마두연대는 명월진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2.8㎞), 제주읍성에 서쪽으로 71리(39.69㎞)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쪽으로 죽도연대와 서쪽의 배령연대와 교신하였다. 추정터는 주변으로 민가와 상가가 밀집해 있다. 특히, 서쪽으로는 '대동수산냉동' 건물로 인해 배령연대와 죽도연대가 보이지 않는다.

마두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16) 배령연대(盃令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19호로 지정되어 있고, 한림읍 금능리 160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배령연대는 금능해수욕장에서 금능포구를 지나 해안을 따라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남쪽을 향해 바라보면 찾을 수 있다. 북쪽 해안과는 2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해안에서 야트막한 경사를 이루며 올라온 언덕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의 해안을 넓게 조망할 수 있다.

배령연대는 명월진(明月鎭)에 소속된 연대로 기록되어 있다. 배령연대는 명월진으로부터 서쪽으로 7리(3.91㎞), 제주읍성에 서쪽으로 81리(45.28㎞)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쪽으로 만조봉수와 서쪽의 대포연대와 교신하



배령연대 원경



배령연대

배령연대

였다. 하지만 지금 배령연대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만조봉수는 잘 보이나 서쪽의 대포연대는 '일성비치콘도미니엄'에 의해 시야가 가려 보이지 않는다.

배령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1996년 조사당시의 자료를 참고하면 연대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형으로 된 지대석은 보이지 않고 다수의 크기가 작은 돌이 원형상으로 둘러져 있다고 한다. 하지만 2011년에 복원된 형태는 방형이며 복원된 모습을 통해 확인된 축조방법은 잡석쌓기이며 크기로는 하부직경 4.9m, 상부직경 1.6m, 높이 1.9m로 연대의 높이가 낮다. 연대 위에는 불을

피웠던 곳으로 보이는 흙으로된 화덕자리가 있었으며 둘레는 5m 정도 된다. 현재 복원규모는 장축 7.84m, 단축 6.69m, 높이 3,76m로 원래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로 복원되었다고 하겠다.

17) 대포연대(大浦煙臺)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807-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대포연대는 원형이 훼손되어 터만이 남아있다. 연대의 위치는 금등리 마을회관에서 일주서로를 따라서 서쪽을 향해 보면 '카페온결'이라는 건물이 확인되는데 그 동쪽으로 접한 곳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주변의 지형보다 높은 언덕이며 옛날에는 묘지가 있었으나 현재 이장하여 없다. 터에는 연대의 주춧돌로 판단되는 돌들



대포연대 원경



대포연대 터

이 산재해 있다.

대포연대는 명월진(明月鎭)에 소속된 연대(煙臺)로 기록되어 있다. 일명 한포(閑浦)연대라고 한다. 대포연대는 명월진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8.39㎞), 제주읍성에 서쪽으로 91리(50.87㎞)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쪽으로 배령연대와 서쪽의 두모연대와 교신하였다. 동쪽으로 '일성비치콘도미니엄'에 의해 배령연대, 서쪽으로는 접한 건물과 소나무숲으로 인해 두모연대가 보이지 않는다.

대포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대포연대는 비록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입지로 볼 때 지형이 주변보다 높아 적의 침입을 감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곳이다. 『남사일록』에 연대는 처음 판포(板浦)연대였다가 나중에 대포(大浦)연대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8) 두모연대(頭毛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20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605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하고 있다. 두모연대는 두모리 마을 일주도로에서 북서쪽으로 500m를 가면 해안보다 돌출된 지역에 포구와 인접해 있으며 두모어촌계 복지회관 50m 앞에 자리하고 있다. 1930년경부터 포구어등대(浦口魚燈臺)로 이용되고 있다.



두모연대 원경



두모연대 전경

두모연대는 명월진(明月鎭)에 소속된 연대로 기록되어 있다. 두모연대는 명월진으로부터 서쪽으로 22리(12.30㎞), 제주읍성에 서쪽으로 98리(54.78㎞)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쪽으로 한포(閑浦, 혹은 대포)연대, 서쪽으로 우두연대와 교신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동쪽의 2층 건물로 인해 대포연대가 시야에서 보이지 않고, 서쪽의 우두연대 역시 잘 보이지 않는다.

두모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두모연대는 본래 대지가 경사져 있어 높이 1.2m로 돌 쌓아 수평을 맞춘 후 폭 40㎝, 높이 58㎝ 정도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허튼층쌓기로 구축하였다.

게다가 직경은 상부 6.5×4.7m, 하부 6.7×4.7m 정도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등대로 사용되면서 상부는 허물어졌다. 여기에는 2004년에 고증을 거쳐 도대불과 분리하여 새로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복원규모는 장축 6.59m, 단축 4,96m, 높이 3.97m이다.

19) 협자연대(俠子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2호로 지정되어 있고,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7-1번지 일원으로 신양리 '섭지코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는 반도형으로 돌출되어 있고 주변보다 지형이 높아 해안을 감시하기에 매우 용이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대가 위치한 곳이 해안의 도로에 접한 낮은 언덕이다.

협자연대는 수산진(水山鎭)에 소속된 연대煙臺)이다. 수산진에서 동남쪽으로 15리(8.39㎞)에 있다. 북쪽으로는 성산봉수, 남쪽으로 독자봉수와 교신하였다. 직선거리로 지미봉수와는 0.9㎞이다.

협자연대의 석축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상부가 8.6×8.6m, 하부가 9×8m, 높이 3.1m 정도이다. 연대 위로 올라가는 입구의 폭은 0.7m이나 계단이 없어 담장을 오르듯이 해야 한다. 현재 연대 상부에는 직경 4.2m의 화덕자리가 남아 있으나 연소실은 확인하기 어렵다. 연대의 축조방법은 거친돌 허튼층쌓기로 모서리는 넓적하고 길이가 긴 판석을 층층이 쌓았다. 비교적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



협자연대 원경



협자연대



오조포연대 원경

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20) 오조포연대(五召浦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23호[70]로 지정되어 있고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2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오조포연대는 시흥리 송난포구(조가비박물관 근처)에서 해맞이 해안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1㎞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남쪽 언덕으로는 성산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오조포연대는 수산진(水山鎭)에 소속된 연대이다. 수산진에서 동북쪽으로 11리(6.15㎞)에 있다. 동쪽으로는 성산봉수, 서쪽으로 종달연대와 교신하

70) 문화재 지정 명칭은 오소포연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조포연대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오조리 마을에 위치하며, 한자음으로 대추 '조'로도 읽힌다. 1765년 윤시동의 『증보탐라지』에는 '오조(五照)'연대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오조포연대

오조포연대

였다. 직선거리로 지미봉수와는 0.9㎞이다.

복원 이전 연대는 거의 허물어져 있었으며 크고 작은 석재들만 1단 남아 있었고 상부에는 돌담이 쌓여 있었다. 잔존 규모는 8.4×6m로 방형에 가까운 평면으로 추정되었다. 복원한 연대는 남서면 중간으로 폭 0.8m의 출입용 등성시설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연소실을 두었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사일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음에는 명칭이 오조포(五照浦)연대였다가 『증보탐라지』 이후로는 '오조(吾召)연대'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21) 종달연대(終達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16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49-1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종달연대는 두문포항에서 해맞이해안로를 따라 6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미봉 방향으로 바라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안에서 서쪽으로 한단 올라온 언덕 지경에 자리하고 있어 해안쪽으로 우도와 성산일출봉은 물론 오조리 해안까지 드넓게 조망이 가능하다.

종달연대는 수산진(水山鎭)에 소속된 연대이다. 정의현 수산진에서 동북쪽으로 10리(5.59㎞), 정의읍성에서 동쪽으로 30리(16.77㎞)에 있다. 동쪽으로는 오조포연대, 서쪽으로 지미봉수와 교신하였다. 직선거리로 지미봉수와

종달연대 원경





종달연대 복원 전경

는 0.9㎞이다.

복원 이전의 기록에 의하면 높이 1.5m 지반 위에 비교적 큰 다듬은 석재가 1단으로 7.7m 가량 남아 있었다고 한다. 현재 복원규모는 장축 9.37m, 단축 8.87m, 높이 4.53m 이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사일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음에는 명칭이 두원포(頭遠浦)연대였다가 나중에 종달연대로 바뀌었다.

22) 말등포연대(末等浦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1호로 지정되어 있고,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355-1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온평리 마을 남쪽으로 혼인지마을 체육공원에서 북으로 200m, 일주동로에서 동쪽으로 600m 정도 떨어져 있다. 온평리 해안가에서 서쪽으로 한단 올라온 지형이 돌출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말등포연대는 정의현(旌義縣)에 소속된 연대(煙臺)이다. 정의읍성에서 동쪽으로 20리(12.18㎞)에 있다. 남쪽으로는 남산봉수, 북쪽으로 독자봉수와 교신하였다. 하지만 실제 위치는 다르며,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76~1800년)에 따르면 동쪽으로 협자연대, 서쪽으로 천미연대와



말등포연대 원경



말등포연대

말등포연대

응한다고 하였다.

연대의 규모는 상부가 9.9×9.4m, 하부가 10.3×10.5m, 높이 3.5m 정도이다. 연대 위로 올라가는 등성시설은 뒤쪽에 있는데, 일반적인 연대와는 달리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연대 상부까지 연결되지 않고, 높이 1.1m 정도까지만 설치되어 있다. 상부에는 지름 1.9m, 높이 0.6m의 불을 피웠던 화덕자리가 있으나, 연소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난간벽은 허물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23) 천미연대(川尾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3호로 지정되어 있고,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267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연대는 민가 내에 있어 찾기가 어렵지만 일주동로에 위치한 신천리 취락구조 정류장에서 마을길을 따라 동쪽으로 약 200m 정도 오면 볼 수 있다. 주변 지형은 해안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진 마을의 중앙부 언덕으로 연대는 민가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천미연대는 정의현(旌義縣)에 소속된 연대(煙臺)이다. 정의읍성에서 남쪽으로 10리(5.59㎞)에 있다. 남쪽으로는 달산봉수, 북쪽으로 남산봉수와 교신하였다. 하지만 실제 위치는 다르며『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76~1800년)에 따르면 동쪽으로 말등포연대, 서쪽으로 소마로연대와



천미연대 원경

응한다고 하였다.

연대의 규모는 상부가 7.2×7.4m, 하부가 7.7×7.9m, 높이 3.8m 정도이다. 연대의 출입구는 폭 1.2m로 일반적인 연대와는 달리 해안쪽으로 나있으며 등성시설은 없다. 상부에는 불을 피웠던 화덕자리나, 연소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난간벽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폭 1.1m, 높이 0.7m이다. 내부벽석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여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천미연대 세부 전경

24) 소마로연대(所乙路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4호로 지정되어 있고, 표선면 표선리 1336-3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남쪽 해안도로인 민속해안로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임야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 주변에는 양식장이 드넓게 자리하고 있어 출입은 물론 찾기가 어려운 편이다.

소마로연대는 정의현(旌義縣)에 소속된 연대이다. 정의읍성에서 남쪽으로 20리(11.18㎞)에 있다. 남쪽으로는 토산봉수, 북쪽으로 달산봉수와 교신하였다. 하지만 실제 위치는 다르며『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76~1800년)에 따르면 동쪽으로 천미연대, 서쪽으로 벌포연대와 교신한다고 하였다.

소마로연대 세부 전경



소마로연대는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으며 규모는 상부가 7.1×7.1m, 하부가 7.8×8m, 높이 2.6m 정도이다. 연대의 출입구는 폭 2.1m로 일반적인 연대와는 비교할 때 매우 넓은 편이다. 상부에는 불을 피웠던 화덕자리가 잘 남아있으며 난간벽은 허물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여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25) 벌포연대(伐浦煙臺)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24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흥2리와 태흥3리 사이 소금막 뒤편에 해당한다. 과수원이 조성되어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태흥1리 해안가(1177번지)에 석축(연대?)이 있는데, 막돌(천석)로 되어 있으며, 원래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래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1996년『제주의 방어유적』에는 태흥리 248번로 되어 있으며, 주민의 전언도 그러하다.

벌포연대는 정의현(旌義縣)에 소속된 연대이다. 정의읍성에서 서남쪽으로 35리(19.57㎞)에 있다. 남쪽으로는 금로연대, 북쪽으로 토산봉수와 교신하였다. 하지만 실제 위치는 다르며『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76~1800년)에 따르면 동쪽으로 소마로연대, 서쪽으로 금로포연대와 응한다고 하였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남사일록(南槎日錄)』과



벌포연대 원경



벌포연대 전경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26) 금로포연대(金路浦煙臺)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58-4번지 일원에 자리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는다. 남쪽 해안에서 약 25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야트막하게 올라온 과수원 지경에 해당한다. 남쪽으로는 '원영자동차운전학원'이 있다.

금로포연대는 정의현(旌義縣)의 서귀진(西歸鎭)에 소속된 연대이다. 서귀진으로부터 동쪽으로 35리(19.57㎞)에 있다. 동쪽으로는 벌포연대, 서쪽



금로포연대 터

으로 자포봉수와 교신하였다. 하지만 실제 위치는 다르며『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76~1800년)에 따르면 동쪽으로 벌포연대, 서쪽으로 우미연대와 응한다고 하였다. 연대 터는 현재 과수원이 조성되어 파악되지 않는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27) 우미연대(又尾煙臺)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87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옛 일주도로 북



우미연대 원경



우미연대 터

편 '위미문화의 집' 정류장에서 북쪽 도로를 따라 도보로 100m 정도 이동하면 터를 찾을 수 있다. 주변 지형은 만입된 위미리 해안에서 약 150m 정도 떨어진 언덕 지경이다.

우미연대는 정의현(旌義縣)의 서귀진(西歸鎭)에 소속된 연대이다. 동쪽으로는 금로연대, 서쪽으로 호촌봉수와 교신하였다. 하지만 실제 위치는 다르며『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76~1800년)에 따르면 동쪽으로 금로포연대, 서쪽으로 보목연대와 응한다고 하였다. 연대는 현재 민가가 조성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28) 보목연대(甫木煙臺)

서귀포시 보목동 1278-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감귤과수원이 드넓게 조성되어 있다. 남쪽 해안으로부터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현재 '장안그랜드빌라' 정류장에서 도보로 남쪽 마을길을 따라 약 600m 이동하면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이 일대의 지형은 '연듸동산'이라 부르는 절벽으로 동쪽으로는 위미리 앞 해안, 남쪽으로는 섶섬, 그리고 서쪽으로는 문섬까지 바라볼 수 있다.

보목연대는 정의현(旌義縣)의 서귀진(西歸鎭)에 소속된 연대이다. 서귀진으로부터 동쪽으로 18리(10.06㎞)에 있다. 동쪽으로는 우미연대, 서쪽으로 삼매양봉수와 교신하였다. 하지만 실제 위치는 다르며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76~1800년)에 따르면 동쪽으로 우미연대, 서쪽으로 연동연대와 응한다고 하였다.



보목연대 터 원경



보목연대 전경

연대는 멸실되어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29) 연동연대(淵洞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10호로 지정되어 있고, 서귀포시 서호동 73번지 일원으로 수모루(서귀여고 남쪽) 정류장에서 마을길을 따라 도보로 500m 정도 이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 지형은 해안에서 북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속칭 '망밭'이라 불리는 언덕으로 동쪽으로 삼매양봉수, 서쪽으로는 강정동의 서건도 앞까지 바라볼 수 있다.



연동연대 상부



연동연대에서 바로본 동쪽해안(삼매봉)



연동연대

연동연대는 정의현의 서귀진(西歸鎭)에 소속된 연대이다. 서귀진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5.59㎞)에 있다. 서쪽으로는 변수연대, 동쪽으로 삼매양봉수와 교신하였다. 하지만 실제 위치는 다르며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76~1800년)에 따르면 동쪽으로 보목연대, 서쪽으로 대정현의 변수연대와 응한다고 하였다.

연동연대는 2001년 2월에 복원되었으며, 복원 전에는 연대가 무너져 하부 직경 9.5m, 상부 직경 6.3m, 높이 2.4m이고, 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평면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축조 당시의 모습은 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복원된 연대의 규모는 하부가 8.4×8.5m, 높이는 3.6m 정도이며 서면 중간에 폭 1.1m의 출입용 등성시설이 설치되었다.

연동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30) 변수연대(邊首煙臺)

서귀포시 강정동 2605-2번지 일원으로 민군복합항 인근의 '켄싱턴리조트'에서 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남쪽 해안에서 한단



변수연대 원경

올라온 언덕 지경으로 동쪽으로 법환동 앞 해안, 서쪽으로 강정동 앞 해안까지 조망된다.

변수연대는 대정현(大靜縣) 소속된 연대(煙臺)이다. 대정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50리(27.95㎞)에 있다. 서쪽으로는 마흘천연대, 동쪽으로 연동연대와 교신하였다. 연대는 멸실되어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

변수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년)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31) 마희천연대(宁希川煙臺)

서귀포시 강정동 4695번지 일원으로 민군복합항 서쪽 말질로 변에 자리하고 있으며 강정포구에서 북동으로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다. 주변은 해안에서 한단 올라온 곳으로 동쪽으로 서귀포시 구시가지 해안에서 서쪽으로 대포동 해안까지 조망된다. 주변으로 하우스가 드넓게 조성되어 있다.

마희천연대는 대정현(大靜縣) 소속의 연대이다. 대정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45리(25.16㎞)에 있다. 서쪽으로는 굴산봉수(구산봉수), 동쪽으로 변수연대와 교신하였다. 하지만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76~1800년) 발간 이후부터는 동쪽으로 변수연대, 서쪽으로 대포연대와 응한다고 하였다. 연대는 도로에 접한 주택지로 멸실되어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조선 후기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1765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영조41년(1765)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증보탐라



마희천연대 원경

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음에는 명칭이 마흘천(宁屹川)연대이었다가 나중에 마희천(宁希川)연대로 바뀌었다. 그러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1842년) 이후부터는 마희천연대에 대한 내용이 없어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32) 대포연대(大浦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12호로 지정되어 있고, 서귀포시 대포동 2503번지 일원으로 현재 중문관광단지 동쪽 중문단지축구장 뒤편 구릉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 지형은 주위보다 밖으로 돌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과 직접 접한 높이 25m 벼랑 끝에 축조되어 있어서 강정동 앞 해안에서 대평리 앞 해안까지 넓게 조망된다.

대포연대는 대정현(大靜縣)에 소속된 연대이다. 대정읍성으로부터 동쪽



대포연대 원경



대포연대

으로 45리(25.16㎞)에 있다. 서쪽으로는 별로천연대, 동쪽으로 굴산봉수와 교신하였다. 하지만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76~1800년) 발간 이후부터는 동쪽으로 마희천연대, 서쪽으로 별로천연대와 응한다고 하였다.

연대는 훼손된 것을 2000년 2월에 복원하였으며, 그 규모는 하부가 8.7m ×8.7m, 높이는 4m 정도이다. 연대 동면(東面) 북쪽 모서리에 치우쳐 폭 0.8m의 출입용 오름시설(계단)을 설치하였다. 연대 위에 올라가면 해안쪽으로 주상절리가 한눈에 들어온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조선후기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1765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영조 41년(1765)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33) 별로천연대(別老川煙臺)

서귀포시 색달동 2101번지 일원의 '중문골프장' 내 현재 팔각정 건물이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대는 성천포 서쪽 '연디동산' 또는 '연디모루'라고 부르는 곳에 연대가 있었다. 연대의 동쪽으로는 강정동 앞 해안, 서쪽으로는 대평리 앞 해안까지 바라볼 수 있다.

별로천연대는 대정현(大靜縣)에 소속된 연대이다. 대정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35리(19.57㎞)에 있다. 서쪽으로는 당포연대, 동쪽으로 대포연대와 교신하였다.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76~1800년)에도 역시 같은 기록이 나온다.

연대는 골프장 조성 등에 따라 멸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별로천연대 전경(중문골프장)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34) 당포연대(唐浦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11호로 지정되어 있고, 서귀포시 하예동 1729번지 일원으로 하예마을 해안의 예래포구 뒤 동산에 해당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제주 지역 연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중문동 해안부터 대정읍 일대 해안까지 전부 조망이 가능하다. 연대 옆으로는 당집이 있다.

당포연대는 대정현(大靜縣)에 소속된 연대이다. 대정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16.77㎞)에 있다. 서쪽으로는 이두어시봉수(호산봉수), 동쪽으로 별로연대와 교신하였다. 하지만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76~1800) 발간 이후부터는 동쪽으로 별로천연대, 서쪽으로 산방연대와 응한다고 하였다.



당포연대

당포연대는 1999년 2월에 복원됐으며, 그 규모는 하부가 8.7m×9.1m, 높이는 4m 정도로 큰 편이다. 연대 북면(北面) 동쪽 모서리에 치우쳐 폭 0.8m의 출입용 오름시설(계단)을 설치하였다. 연대 위에 올라가면 하예포구가 한눈에 들어온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35) 산방연대(山房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21호로 지정되어 있고,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689 일원에 해당하며 사계리의 산방산 남쪽 해안가 '연디동산'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는 동쪽으로 월라봉 앞 해안, 서쪽으로는 송악산까지 시야가 트여 있다.



산방연대 원경



산방연대와 용머리해안(제주 100년, 제주도)

산방연대는 대정현(大靜縣)에 소속된 연대이다. 대정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11리(6.15㎞)에 있다. 동쪽으로는 이두어시봉수(호산봉수), 서쪽으로 저별봉수와 교신하였다. 하지만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76~1800년) 발간 이후부터는 동쪽으로 당포연대, 서쪽으로 무수연대와 응한다고 하였다.

연대는 복원된 것으로 연대 하부가 7.4m×8.6m, 높이는 3.2m 정도다. 연대로 올라가는 출입계단은 폭이 1.1m로 중앙에 축조했으며, 연소실은 2.2m×2.3m 크기의 방형(方形)이다.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산방연대의 모습을 보면 연소실은 원형(圓形)에 가깝다. 원래 연대 위치는 일제강점기에 찍은 사진을 참조할 때 하멜표류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서림연대 원경



서림연대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36) 서림연대(西林煙臺)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22호로 지정되어 있고,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288-4번지 일원으로 모슬포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수월봉 방향으로 가는 길에 있으며 일과리 마을에서 서쪽 해안으로 1㎞ 정도 이격되어 자리하고 있다. 제주 지역에서 바다와 가장 인접한 연대이다.

서림연대는 조선시대 대정현(大靜縣)의 모슬진(摹瑟鎭)에 소속된 연대이며, 모슬진으로부터 서쪽 15리(8.39km)에 있었다. 남쪽으로는 모슬봉수, 북쪽으로 당산봉수와 교신하였다. 하지만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76~1800년) 발간 이후부터는 동쪽으로 무수연대, 서쪽으로 우두

연대와 응한다고 하였다.

지금 남아 있는 연대는 1977년에 복원한 것으로, 규모는 하부가 9.4m×9.6m, 높이는 4.3m 정도로 큰 편이다. 연대로 올라가는 등성시설은 폭 1m로 뒤쪽(내륙)으로 설치되어 있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37) 무수연대(茂首煙臺)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509-1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모슬포항 서쪽 해안과 인접하여 넓은 밭으로 이곳을 '연디왓' 또는 '연디밑'이라 부른다.



무수연대 터

무수연대는 조선시대 대정현(大靜縣)의 모슬진(摹瑟鎭)에 소속된 연대이며, 모슬진으로부터 동쪽 2리(1.12km)에 있었다. 동쪽으로는 저별봉수, 서쪽으로 모슬봉수와 교신하였다. 하지만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76~1800년) 발간 이후부터는 동쪽으로 산방연대, 서쪽으로 서림연대와 응한다고 하였다. 현재는 멸실되어 찾아볼 수 없다.

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38) 우두연대(牛頭煙臺)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21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우두연대는 용수리 일주도로에서 해안쪽으로 약 1.4㎞ 정도 떨어진 '쇠머리동산'이라 불리는 곳에 있다. 용수리 일주도로에서 현재 전투경찰초소 북쪽으로 조금 가면 동쪽으로 난 소로가 있는데 20여m 들어간 곳 밭 하나 건너면 연대의 표지석이 확인된다.



우두연대 터

우두연대는 차귀진(遮歸鎭)에 소속된 연대(煙臺)로 기록되어 있다. 우두연대는 차귀진(遮歸鎭)으로부터 북쪽으로 11리(6.15㎞), 대정읍성에서 북쪽으로 38리(21.24㎞)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 제주목 소속 두모연대와 남쪽으로 대정현 소속 당산봉수와 교신하였다. 현재도 두모연대와 당산봉수가 잘 보이고 있다.

우두연대의 축조시기는 숙종 6년(1680)에 쓰인 『남사일록(南槎日錄)』과 1680년 이후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80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두연대에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원형이 훼손된 상태로 일부 벽체만 남아 있다. 연대는 상부 6.3m, 하부 6.5m, 높이 1.1m 크기이고, 연대 정면만 일부 남아 있을 뿐이며 그 윗부분은 초소로 이용되었던 같다.



Ⅳ. 제주의 방어체계

제주 읍성과 진성, 그리고 봉수와 연대는 깊은 관련성을 갖고, 또한 더 나아가 유기적 관계망을 이루고 있었던 시설물들이다. 제주목·정의현·대정현의 봉수와 연대는 제주·정의·대정읍성과 진성(방호소) 및 수전소의 사이에 설치되었다.

정조 6년(1782)에 작성한 『제주순무어사박천형서계(濟州巡撫御史朴天衡書啓)』에 의하면 '대개 봉대(烽臺)는 멀리서 적선이 바다를 지나는 것을 바라보는 곳이다. 연대(烟臺)는 가까이 적선이 와서 정박하는 것을 관찰하는 곳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산 정상에 있는 봉수대는 멀리서 적선이 바다를 지나는 것을 바라보는 곳이었다. 반면 해안 가까이에 있던 연대는 접근하는 배가 표류선인지 적선인지를 분간하고 관찰하는 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봉수(烽燧)의 신호 체계는 기본적으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안개나 구름이 끼거나 비바람이 불 때는 나팔이나 천아성(天鵝聲) 등의 각성(角聲)·화포(火砲)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연변봉수의 경우는 지방의 해안과 변경 지역의 최일선에 설치된 '연대(烟臺)'를 말한다. 따라서 연변봉수는 봉수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적의 침략 때에 자체적으로 웅전하고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기능과 요새적인 기능을 같이 하여 방어시설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연변봉수는 거화시설인 연대나 연소실(燃燒室)을 비롯하여 방어시설인 호(壕)와 방호벽(防護壁), 봉수군의 생활시설인 주거용 건물과 고사(庫舍)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갖추게 된다. 또 방호벽은 방화장(防火墻)·방화벽(防火壁) 혹은 방화석축(防火石築)이라고도 한다. 방호벽은 흙이나 돌로 담장처럼 두른 것이다.

연변봉수(연대)가 설치될 장소를 정할 때에는 자연적 여건과 인문·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변봉수는 개개 부지가 지닌 지형·지세의 자연조건이 연대의 주요 임무 수행을 가능케 하는 지에 따라 그 위치가 정해졌을 것이다.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거나 행정 치소의 중심지에 연변봉수를 설치하였다. 이는 바로 연변봉수와 진보(鎭堡) 및 읍성을 연계시킴으로써 견고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연변봉수의 입지는 봉수의 핵심기능인 후망(堠望)과 신호전달에 주안점을 두고 부지를 선정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각 봉수별 국지적인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적의 침입으로부터의 안정성 확보, 방어의 용이성과 같은 문제를 극대화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도내의 연대는 해발고도 3~30m에 위치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대의 축조 방식은 대부분 돌로 쌓은 것이다.

연대와 봉수에 대한 문헌기록은 『남사일록(南槎日錄)』, 『탐영방영총람(耽營防營總攬)』,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 『제주읍지(濟州邑誌)』,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등이 있다. 주로 연대·봉수의 위치, 소속 읍

성 혹은 진성의 이름, 읍성과 진성과의 거리, 주둔 군사의 인원, 연대와 연대, 혹은 봉수와 봉수와의 상응(동쪽, 서쪽, 북쪽, 남쪽)되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 상응되는 연대와 봉수는 대부분 연대는 연대끼리, 봉수는 봉수끼리 기록하고 있다(표1 참조). 다만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서는 연대와 봉수가 혼재된 경우도 있다. 이는 봉수와 봉수, 연대와 연대가 개별로 연락을 주고 받는게 아니라 상급부서(진성과 읍성)에 통신망이 유기적으로 혼재되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비상시에는 연대끼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봉수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연락망을 갖추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조 41년(1765) 10월 이후에 편찬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 나타난 제주목(濟州牧)·정의현(旌義縣)·대정현(大靜縣)의 연대(煙臺)와 상응연대(相應烟臺) 및 봉수(烽燧)는 <표 2·3·4·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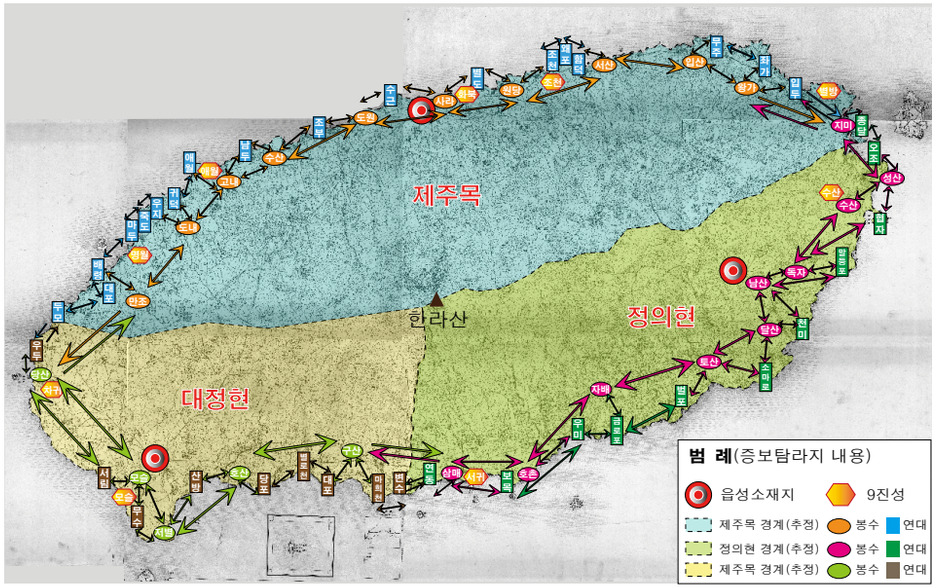


그림1. 『증보탐라지』에서 보이는 방어시설 위치 및 대응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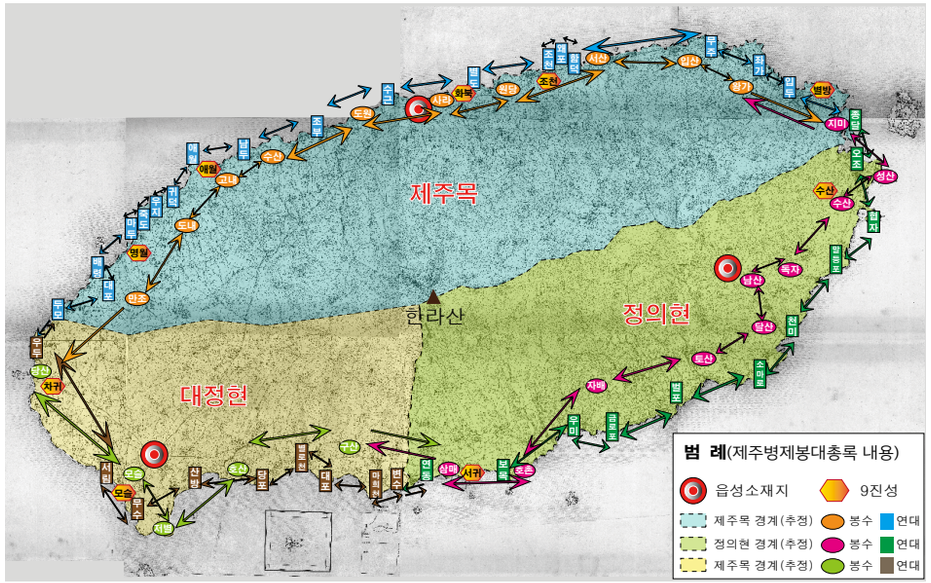


그림 2. 『제주병제봉대총록』에서 보이는 방어시설 위치 및 대응관계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상기한 『증보탐라지』[71]와 『제주병제봉대총록』[72]에 기록된 방어시설의 위치와 대응관계표를 1918년(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형도에 표기한 그림이다. 원판은 일제강점기에 획정된 시군경계를 기반으로 하다보니, 실제 조선시대 삼읍의 방어시설이 구축될 당시 정의현 소속인 종달연대와 지미봉수가 제주목에 표기된 점은 유의해야겠다.[73]

71) 『증보탐라지』의 작자는 윤시동(尹蓍東)으로 영조 41년(1765) 8월부터 영조42년(1766) 6월까지 제주목사를 지냈으며 이후 정조 정조19년(1795) 의정부 우의정까지 지낸 문신이다. 즉, 『증보탐라지』는 그가 약 36세에 1년도 안되는 짧은 재임기간에 기존 제주목사 이원진이 1653년에 작성한 『탐라지』에 항목을 추가하고 항목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한 책이다. 특히 본 글과 관련하여 『탐라지』에 기록되지 않고, 또한 이후에 정비된 연대가 기록되어 주목된다.

72) 『제주병제봉대총록』은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책으로 제주삼읍군제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 1780년대(정조 연간) 제주지역의 군제와 봉수·연대의 상황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필사본으로 작자를 알 수 없다.

73) 범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은 우선 개별 방어시설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기 두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대응관계를 화살표로 표기하였다. 화살표는 각각의 방어시설이 소속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하였다. 제주목의 봉수와 연대는 각각 황토색, 파란색, 정의현의 봉수와 연대는 각각 분홍색, 녹색, 그리고 대정현의 봉수와 연대는 각각 연두색과 갈색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그리고 사방 경계의 경우는 각각 소속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표기하였다.

상기 두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어시설 간의 대응관계에 관한 내용이 서로 확연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작성된『증보탐라지』의 경우 현재의 지형적 상황과 그에 따른 시야 확보 여부를 감안하여 대응관계를 작성하였다. 이는 윤시동 제주목사가 직접 현장을 관찰한 결과라 여겨진다. 일부 대응시설의 명칭에 있어서 오기가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후대 작성된『제주병제봉대총록』의 경우는 연대는 연대, 봉수는 봉수끼리 대응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렇게 때문에 지형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이격된 거리만 감안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윤시동 목사와는 달리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제주병제봉대총록』에는 수근연대가 동쪽으로 별도연대와 응소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사라봉이 가리고 있어 서로 대응할 수 없지만『증보탐라지』에는 사라봉수가 이를 연계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곳곳에서 확인되는데 그림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다.

『증보탐라지』에 나타난 제주목(濟州牧)·정의현(旌義縣)·대정현(大靜縣)의 연대(煙臺)와 상응 연대(相應烟臺) 및 봉수(烽燧)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내 연대의 위치는 해발고도 3.1~29.4m까지 이르고 있다. 제주 삼읍성과 9진으로부터 연대와의 거리는 최단 1리(559m)로부터 최장 25리(13.98km)에 배치하여 연기나 불빛을 인지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대-봉수-진성과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사건이 있었다. 1843년 5월 13일 미시(未時, 오후1시~3시)에 제주도 서쪽 근해에 이양선이 출몰하자 만조봉수와 배령연대에서 발견한다. 이를 명월진에 보고한다. 이양선의 이동 및 정박 상황을 3차례에 걸쳐 보고한다. 배령연대의 별장 윤종연(尹宗連)은 이양선은 발견하자 바로 명월진과 인접 연대와 봉수에 상황을 전달하고, 이러한 상황을 명월진에서는 제주목에 보고한다. 명월진 만호 김석룡(金錫龍)은 1차 보고가 들어온 후 만조봉수와 배령연대의 인접 진에 연락하고, 이양선의 동향을 감시토록 한다. 이양선이 배령포구에 접근하자 병력을 이동시켜 해안방어를 위해 배치한다.[74] 이양선의 움직임에 따라 방어체계가 진/봉수/연대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각각의 연대는 좌우측에 각 2개씩 총4개의 연대 감시구역과 중복된다. 바로 인접한 연대의 감시구역은 60%이상 중복해서 감시할 수 있다. 제주 해안은 250km 가량 된다. 이를 3읍성 9진성에 적용해보면, 3읍성은 평균 83km의 해안선을 담당하고, 9진성의 경우 28km를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봉수와 연대를 조밀하게 설치함으로써 봉수-연대-진의 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75]

일제 강점기에 찍은 산방연대를 보면, 연소실(燃燒室)은 횃불을 올려 변방의 상황을 알리는 일[炬火]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대(煙臺) 상부의 중앙부에 마련한 연료소성방(燃料燒成房)을 찾아볼 수 있다. 곧, 연대 상부 중앙에는 원형 또는 방형의 연소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또 방호벽은 방화장(防火墻)·방화벽(防火壁) 혹은 방화석축(防火石築)이라고 한다. 방호벽은 흙이나 돌로 담장처럼 두른 것이다. 따라서 방호벽은 봉수대에 근무하는 봉수군이 짐승으로부터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거나 혹은 항시 불을 다루므로 거화시 실수에 의해 불이 산 아래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방화용

74) 이원조, 1843,『탐라계록(耽羅啓錄)』.

75) 신효승, 2016,「조선후기 제주도의 관방체계」『歷史와 實學』59, 歷史實學會.

시설물이다.

한편 「탐라도(耽羅圖)」에 연대와 봉수의 표기형태는 사각형(연대형)이다. 연대형은 봉수가 위치한 오름 위에 연대를 그려 넣었다. 해안에 있는 연대가 위치한 곳에도 연대만을 표기한 것이다. 제주도내 봉수의 축조 방식은 흙으로 쌓는 것(土築)이다. 하지만 연대의 축조 방식은 모두 돌로 쌓은 것(石築)다. 이와 같이 돌로 쌓은 것은 연대가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살피며 경계(警戒)와 주변 정찰, 자체 방어 등 군사요새지로서의 역할도 겸하였기 때문이다.

『증보탐라지』에 나타난 제주목·정의현·대정현의 봉수(烽燧)와 상응봉수(相應烽燧) 및 연대(烟臺)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수의 위치는 해발고도가 최소 33.6m로부터 최고 223.2m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제주 3읍성과 9진에서 봉수와의 거리로는 최단 1리(559m)로부터 최장 35리(19.57km)에 배치하여 연기나 불빛을 인지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도내의 봉수(烽燧)는 해발 33~200m의 오름에 위치한 봉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제주의 읍성과 진성, 봉수와 연대는 각가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시설물이기는 하나, 4곳의 시설물들이 바다로 부터 올 수 있는 외적의 침입 경계·격퇴와 관련해서는 서로 유기적 관계망을 이룬채 방어의 효율성을 도모한 방어체계로서 그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제주목의 읍성, 곧 제주성은 제주방어시설의 통신망이 지향하는 최종 종착지와 같은 존재감도 드러나는 곳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도 제주목사는 다른 지역 목 단위의 수령과 달리, 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가진 존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표 1> 읍성, 진성 소속 연대와 봉수, 응소 관계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76]

읍성	9 鎭	봉 수	응소지역	연대	응소지역
제주읍성	직할	사라 원당 도원 수산	동:원당, 서:도원 동:서산, 서:사라 동:사라, 서:수산 동:도원, 서:고내	수근 조부	동:별도, 서:조부 동:수근, 서:남두
	화북진			별도	동:조천, 서:수근
	조천진	서산	동:입산, 서:원당	조천 왜포 함덕	동:왜포, 서:별도 동:함덕, 서:조천 동:무주, 서:왜포
	별방진	입산 왕가	동:왕가, 서:서산 동:지미, 서:입산	무주 좌가 입두	동:좌가, 서:함덕 동:입두, 서:무주 동:종달, 서:좌가
	애월진	고내	동:수산, 서:도내	남두 애월	동:조부, 서:애월 동:남두, 서:귀덕
	명월진	도내 만조	동:고내, 서:만조 동:도내, 서:당산	귀덕 우지 죽도 마두 배령 대포 두모	동:애월, 서:우지 동:귀덕, 서:죽도 동:우지, 서:마두 동:죽도, 서:배령 동:마두, 서:대포 동:배령, 서:두모 동:대포, 남:우두
대정현성	직할	구산 호산 저별	동:삼매양, 서:호산 동:구산, 서:저별 동:호산, 북:모슬	서림 산방 당포 별로천 대포 마희천 변수	동:무수, 서:우두 동:당포, 서:무수 동:별로천, 서:산방 동:대포, 서:당포 동:마희천, 서:별로천 동:변수, 서:대포 동:연동, 서:마희천
	차귀진	당산	동:모슬, 서:만조	우두	동:서림, 북:두모
	모슬진	모슬	서:당산, 남:저별	무수	동:산방, 서:서림

76) 해양수산부 2002, 『한국의 해양문화 -⑤제주해역』 참조.

읍성	9 鎭	봉 수	응소지역	연대	응소지역
정의현성	직할	남산 독자 달산 토산	동:독자, 남:달산 동:수산, 서:남산 북:남산, 서:토산 동:달산, 서:자배	벌포 소마로 천미 말등포	동:소마로, 서:금로포 동:천미, 서:벌포 동:말등포, 서:소마로 동:협자, 서:천미
	서귀진	삼매양 호촌 자배	동:호촌, 서:구산 북:자배, 서:삼매양 동:토산, 남:호촌	연동 보목 우미 금로포	동:보목, 서:변수 동:우미, 서:연동 동:금로포, 서:보목 동:벌포, 서:우미
	수산진	수산 성산 지미	동:성산, 서:독자 동:지미, 서:수산 남:성산, 서:왕가	협자 오소포 종달	북:오소포, 서:말등포 남:협자, 북:종달 남:오소포, 서:입두

<표 2> 『증보탐라지』에 나타난 제주목의 연대와 상응 연대 및 봉수[77]

소속		연대	위치 (해발)	상응 연대		상응 봉수		거리
제주목	별방진	입두	15.9m			동:정의현 지미	서:왕가	별방진으로부터 서쪽으로 2리(1.12㎞)
		좌가마 (좌가)	16.6m		서:무주	동:왕가		별방진으로부터 서쪽으로 5리(2.80㎞)
		무주	3.1m	동:좌가마			서:입산	별방진으로부터 서쪽으로 25리(13.98㎞)
	조천진	함덕	12.6m		서:왜포	동:서산		조천진으로부터 동쪽으로 9리(5.03㎞)
		왜포	11.2m	동:함덕	서:조천			조천진으로부터 동쪽으로 6리(3.35㎞)
		조천	10.6m	동:왜포			서:원당	조천진으로부터 동북쪽으로 1리(559m)
	화북진	別刀	7.7m			동:원당	서:사라	화북진으로부터 북쪽으로 2리(1.12㎞)
	제주읍성	수근포 (수근)	7.3m			동:사라	서:도원	제주읍성으로부터 서쪽으로 12리(6.71㎞)
		조부포 (조腐)	6.1m			동:도원	서:수산	제주읍성으로부터 서쪽으로 23리(12.86㎞)

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 2012, 『제주시 방어유적-연대·봉수 조사연구』.

소속		연대	위치 (해발)	상응 연대		상응 봉수		거리
제주목	애월진	남두리 (남두)	29.4m			동:수산	서:고내	애월진으로부터 동쪽으로 11리(6.15㎞)
		애월	22.8m		서:귀덕	동:고내		애월진으로부터 서쪽으로 3리(1.68㎞)
	명월진	귀덕	16.3m	동:애월			서:도내	명월진으로부터 동쪽으로 19리(10.62㎞)
		우지	15.4m		서:죽도	동:도내		명월진으로부터 동쪽으로 17리(9.50㎞)
		죽도	2.7m	동:우지	서:마두			명월진으로부터 동쪽으로 11리(6.15㎞)
		마두	3.9m	동:죽도	서:배령			명월진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2.80㎞)
		배령	6.4m	동:마두	서:한포	동:만조		명월진으로부터 서쪽으로 7리(3.91㎞)
		한포 (대포)	8.6m	동:배령	서:두모			명월진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8.39㎞)
		두모	5.1m	동:한포	남:우두			명월진으로부터 서쪽으로 22리(12.30㎞)

<표 3> 『증보탐라지』에 나타난 정의현·대정현의 연대와 상응 연대 및 봉수

소속		연대	상응 연대		상응 봉수		거리
정의현	수산진	종달	동:오조			서:지미	수산진으로부터 동북쪽으로 10리
		오조		서:종달	동:성산		수산진으로부터 동북쪽으로 11리
		협재			남:독자	북:성산	수산진으로부터 동남족으로 15리
	정의읍성	말등			동:남산	북:독자	정의읍성으르부터 동쪽으로 20리
		천미			동:달산	북:남산	정의읍성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소속		연대	상응 연대		상응 봉수		거리
		소마로			남:토산	북:달산	정의읍성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벌포	남:금로			북:토산	정의읍성으로부터 서남쪽으로 35리
정의현	서귀진	금로	동:벌포			서:자포	서귀진으로부터 동족으로 35리
		우미	동:금로			서:호촌	서귀진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보목포	동:우미			서:삼매양	서귀진으로부터 동쪽으로 18리
		연동		서:대정변수	동: 삼매양		서귀진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
대정현	대정읍성	변수	동:정의연동	서:마흘천			대정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50리
		마흘천	동:변수			서:굴산	대정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45리
		대포		서:별로	동:굴산		대정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40리
		별로	동:대포	서:당포			대정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35리
		당포	동:별로			서:이두어시	대정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산방			동:이두어시	서:저별	대정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11리
		서림			남:모슬	북:당산	대정읍성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
	모슬진	무수			동:저별	서:모슬	모슬진으로부터 동쪽으로 2리
	차귀진	우두		북:제주두모	남:당산		차귀진으로부터 북쪽으로 11리

<표 4> 『증보탐라지』에 나타난 정의현·대정현의 봉수와 상응 봉수 및 연대

소속		봉수	위치 (해발)	상응 봉수		상응 연대		거리
제주목	별방진	왕가	33.6m	동:정의현 지미	서:입산	동:입두	서:좌가마	별방진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8.39㎞)
		입산	84.5m	동:왕가	서:서산	동:무주		별방진으로부터 서쪽으로 35리(19.57㎞)
	조천진	서산	79.9m	동:입산	서:원당		서:함덕	조천진으로부터 동쪽으로 12리(6.71㎞)
	제주읍성	원당	95.1m	동:서산	서:사라	동:조천	서:별도	제주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11.18㎞)
		사라	142.2m	동:원당	서:도원	동:별도	서:수근포	제주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2.80㎞)
		도원	61.4m	동:사라	서:수산	동:수근포	서:조부포	제주읍성으로부터 서쪽으로 17리(9.50㎞)
		수산	116.1m	동:도원	서:고내	동:조부포	서:남두이	제주읍성으로부터 서쪽으로 30리(16.77㎞)
	애월진	고내	175.3m	동:수산	서:도내	동:남두이	서:애월	애월진으로부터 동쪽으로 3리(1.68㎞)
	명월진	도내	123.5m	동:고내	서:만조	동:귀덕	서:우지	명월진으로부터 동쪽으로 21리(11.74㎞)
		만조	223.2m	동:도내	서:대정현 당산		서:배령	명월진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2.80㎞)

<표5> 『증보탐라지』에 나타난 정의현·대정현의 봉수와 상응 봉수 및 연대

소속		烽燧	相應 烽燧		相應 烟臺		거리
정의현	수산진	지미	동:성산	서:제주 왕가	동:종달		정의읍성으로부터 북쪽으로 45리
		성산	동:소수산	서:지미	동:오조	남:협재	수산진으로부터 동쪽으로 15리
		소수산	동:성산	서:독자			수산진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
	정의읍성	독자	동:소수산	서:남산	남:말등	북:협재	정의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18리
		남산	동:독자	서:토산	남:말등	북:협재	정의읍성으로부터 동남쪽으로 3리
		달산	동:남산	서:토산	남:소마로	북:천미	정의읍성으로부터 남족으로 10리
		토산	동:달산	서:자포	남:벌포	북:소마로	정의읍성으로부터 서남쪽으로 35리
	서귀진	자포	동:토산	서:호촌			서귀진으로부터 동쪽으로 35리
		호촌	동:자포	서:삼매양	동:우미		서귀진으로부터 동쪽으로 30리
		삼매양	동:호촌	서:대정 구산	동:보목포	서:연동	서귀진으로부터 서쪽으로 5리
대정현	대정읍성	굴산	동:정의 삼매양	서:이두어시	동:마흘천	서: 대포	대정현으로부터 동쪽으로 45리
		이두어시	동:굴산	서:저별	동:당포	서:산방	대정현으로부터 동쪽으로 25리
		모슬	동:저별	서:당산	동:무수	북:서림	대정현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
	모슬진	저별	동:이두어시	서:모슬	동:산방	서:무수	모슬진으로부터 동남쪽으로 10리
	차귀진	당산	동:저별	서:제주 만조	남:서림	북:우두	차귀진으로부터 북쪽으로 1리



Ⅴ. 맺음말

제주의 방어체계는 실질적으로 전쟁 혹은 왜적의 침입과 이양선의 출몰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작동한 사례를 문헌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침입과 출몰에 대한 기사는 나타나지만 연대, 봉수, 진성, 읍성에서 비상시 운용 체계가 실질적으로 기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휘 및 방어 체계가 확립된 상태에서 굳이 기사화 혹은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에드워드 벨처가 쓴『사마랑호 탐사항해기』(1848년)에 제주섬의 감시망에 대한 기록이 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언덕 꼭대기에 항시 경계 태세의 감시탑이 설치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 있는 사각의 비좁은 요새(연대) 안에서 경비병들이 항시 왔다 갔다 하며 망을 보고 있다. 해질녘에서 밤새도록 정해진 시각에 봉화를 피워 가장 가까운 봉수대에서부터 배나 보트까지 신호를 보내며,(원저자 에드워드 벨처의 몰이해에서 나온 그릇된 인식이라고 보임 ; 필자부기)다른 봉수대로도 잇달아 전달하는 것이다. 낮에는 연기로 효과를 냈는데, 잘게 썬 젖은 짚이나 가끔은 쌀겨를 불속에 집어넣어 즉각 짙은 흰 연기 기둥을 만들었다. 이는 매우 슬기롭고 꽤나 매력적으로 작동해서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흉내 내 우리끼리 신호를 전달

할 때 써먹기도 했다. 몇몇 관원들은 불빛의 형태로 그 상징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 우리들의 망원경 성능이 매우 뛰어난 것에 비해, 그들의 망원경으로는 매우 형편없는 관찰에 지나지 않음을 감안하면, 불빛 형태로 그 상징성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추정에 불과했다. 거기다 해당 목적물간의 거리가 적어도 약 5킬로미터나 되는 이상, 그런 추론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78] 이 글은 오름의 봉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방형(사각형)의 연대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오름 정상부에 연대(축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밤에는 불빛, 낮에는 연기로 연락망을 구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765년『증보탐라지』,「봉수(烽燧)」에 '평상시에는 서귀진의 삼매양 봉수에서 불을 붙여 보낸다. 동쪽으로는 정의현, 서쪽으로는 대정현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차례로 호응하여 불을 붙여 보내면 모두가 사라봉수에 이르게 되고 수시로 경계한 것을 보고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이양선의 출몰 등에 대비하는 훈련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성담은 제주도가 해양중심의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중앙정부와 멀리 떨어진 변방이라는 이유로 방어시설에 대한 정비와 증개축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이는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조치일 수 있다. 하지만 제주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다. 고려시대 항파두리성과 환해장성 기록은 방어와 공격의 전쟁 전략으로 인해 빠른 시간에 성담을 쌓았을 것이다. 항파두리성에 얽힌 전설 중에 성을 쌓을 때 식량이 모자라 다른 사람의 인분을 먹으면서 쌓았다고 한다. 이는 자발적으로 성담 쌓기에 참여했을

78) 고영자 번역, 2013,「에드워벌처, 켈파트섬과 제주견문록」『서양인들이 남긴 제주견문록』, 우당도서관.

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하는 사실이다. 또 다른 사례는 고성리에서 성읍리로 정의현을 옮기는데, 읍성을 쌓는데, 5일이 걸렸다고 한다. 당시 정의현 소속 인구[79]가 얼마 되지 않는데, 단기간에 성담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동원 되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심한 고초와 노역이 들었을 것이다.

해방 이후 살려고 성담 쌓기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4·3사건때 였다.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사람들의 물고 물리는 진퇴가 계속되면서 만들어진 성담이 있다. 이들 흔적은 현재도 4·3성으로 남아 있다. 이제 성담은 시멘트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들 방어유적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지정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혹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거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유적은 비교적 관리가 허술한 편이다. 읍성은 대부분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고, 진성도 남아 있는 것은 지방 기념물 혹은 향토유형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연대도 남아 있는 것은 보존되고, 복원하여 공개되어 있다. 환해장성도 10개소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비지정문화재로 남아 있는 것이 많은 편이다. 봉수는 지정된 사례가 전무하다. 오름 정상부에 위치하다 보니 오름 탐방로와 올레길, 전망대, 통신기지 등으로 파손되고 있다. 다행히 남아 있는 곳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제초 등 보존을 하고 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절실한 편이다.

제주의 성담은 제주 사람들이 남긴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은 우리의 자산, 마을의 자산, 제주도의 자산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육지에서는 봉화

79)『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 의하면 정의현의 인구는 2,073명(제주인구 18,897명)이다. 김상헌의『남사록』(1601년)에 제주목의 호구는 3,450호, 남자 7,990명, 여자 11,100명이다. 정의현의 호구는 382호, 남자 990명, 여자 1,480명이다. 대정현의 호구는 307호이고, 남자 55명, 여자 880명으로 당시 제주의 총인구는 23,990명이다. 참고로 1911년 총인구는 170,468명이었다.

축제, 성곽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마을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다.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야 말로 후손들에게 물려 줄 마음의 자산이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世宗實錄』(규장각 소장본)

『新增東國輿地勝覽』(규장각 소장본)

『耽羅志』(규장각 소장본)

『南槎日錄』(개인 소장본)

『耽羅防營摠覽』(개인 소장본)

『增補耽羅誌』(일본 천리대 소장본)

『濟州兵制烽臺摠錄』(규장각 소장본)

『濟州巡撫御史朴天衡書啓』(규장각 소장본)

『濟州邑誌』(규장각 소장본)

『濟州大靜旌義邑誌』(규장각 소장본)

『耽羅誌草本』(이원조 후손 소장본)

『耽羅誌』(일본 동경대 소장본)

『濟州郡邑誌』(규장각 소장본)

「耽羅圖」(제주특별자치도 소장본)

『耽羅巡歷圖』 (제주특별자치도 소장본)

『海東地圖』「濟州三縣圖」(규장각 소장본)

「濟州三邑全圖」(규장각 소장본)

강창룡, 2016,「관방유적의 연혁과 역사 : 봉수·연대·환해장성 중심으로」『서귀포시』 제6호.

강창언, 1991, 제주도의 환해장성연구,『탐라문화』 1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고영자 번역, 2013,『서양인들이 남긴 제주견문록』, 우당도서관.

고재혁, 2021,「조선전기 제주해안방어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편』.

김명철, 2000,『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연구』,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봉옥, 2000,『제주통사』, 세림.

김일우, 2016,「조선시대 제주 關防施設의 설치와 분포양상」『한국사학보』 65, 고려사학회.

김주홍, 2011,『조선시대 봉수연구』, 서경문화사.

남제주군, 1987,『제주성읍민속마을 성문지 및 치성발굴조사보고서』.

남제주군, 2001,『대정성지 북문 -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6,『전국 봉수유적 심화학술조사』.

문화재청· 제주시청· 제주흥사단 문화유산답사회, 2014『사라져가는 제주문화재』.

박용후, 1987,「조선조 후기의 제주도 방위 및 이선 대처의 실제」,『제주도연구』 제4집.

변성훈, 2015,「제주읍성의 변천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변성훈, 2018,「제주읍성의 구조와 부대시설에 대한 고찰」,『제주문화』 24, 제주문화원.

북제주군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2000,『명월성남문지- 발굴조사보고서』.

신효승, 2016,「조선후기 제주도의 관방체계」『歷史와 實學』 59, 歷史實學會.

양상호, 2011,「舊韓末 濟州邑城의 道路體系에 관한 硏究」『건축역사연구』 제20권 제6호, 한국건축역사학회.

오상학, 2019,「조선시대 제주도 9진성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고지도에 표현된 내용을 중심으로 -」『韓國古地圖硏究』 11-1, 한국고지도연구학회.

오수정, 1997,「19세기의 제주읍성」『19세기 濟州社會硏究』, 姜昌龍·高昌錫·金東銓·金祥玉·朴贊殖·吳洙政·吳昌命·趙誠論 共著, 一志社.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17,『조천진성 Ⅰ』.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20,『조천진성 II 』.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1018,『제주 추사전시관 유적』.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제주 서귀진지』.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4,『제주 서귀진지 II 』.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5,『제주 고산리 2225번지 유적』.
제주도, 1996,『제주의 방어유적』.
제주도, 1996,『道昇格 50周年 記念 寫眞集, 제주 100년』.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4,『비지정문화재학술조사보고서-兎山烽燧』.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대정읍성학술조사보고서』.
제주시, 2002,『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제주산업정보대학 산업연구소, 2011,『애월연대 실측조사보고서』.
제주시·제주산업정보대학 산학협력단, 2009,『조부·귀덕연대 복원 타당성 학술 조사 보고서』.
제주시· ㈜별터건축사사무소, 2014,『별방진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0,『서귀포시 문화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3,『제주성지-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5,『제주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한국자치경제연구원, 2012,『제주시 방어유적-연대·봉수 조사연구』.
제주특별자치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8,『제주도 진성-제주도 진성의 국가 사적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7,『서귀포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계획』.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2016,『증보판, 화산섬 제주 문화재 탐방』.
해양수산부, 2002,『한국의 해양문화 -⑤제주해역』.

고재원

제주대학교 사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수료(고고학)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연구사(前)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現)
제주도문화재위원/4·3유적지보존위원/박물관및미술관 진흥위원(역임)

논문

『고산리유적 타제석기의 형태적 분석』,「제주도지역의 신석기문화」
「유물로 본 제주도 고산리문화」,「제주도의 4기퇴적층과 구석기」 등

<제주시 방어유적>, <서귀포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계획>, <제주성지>,
<제주 목마 관련 잣성유적 실태조사>, <제주의 옛길 조성 및 종합계획> 등 조사연구

제주의 성담과 방어유적

인　쇄 2021. 12. 17
발행인 서귀포문화원장 강명언
발행처 서귀포문화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중섭로33 3층 서귀포문화원
전화 : 064-733-3789 팩스 : 064-732-3789
E-mail : sgp3789@hanmail.net
홈페이지 : www.seogwipo.org
글·사진 고재원
감　수 김일우
기　획 김미성
진　행 오준식

ISBN 978-89-959206-9-5
비매품

Copyright ©서귀포문화원 2021

서평이나 인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책의 어떠한 부분도
서귀포문화원의 서면 허락 없이 복제, 저장,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서귀포시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무료
03090
9 788995 920695
ISBN 978-89-959206-9-5

제주의 성담과 방어유적

영주산대총도-국립고궁박물관 소장

